현대불교

제 79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음력 5월 26일 · 불기 2554년 · 주간)





실승 '시국선언' 추진

본사 · 선원 서명운동… 종단 반개혁에도 대처

1980년대부터 승가의 사회 참여 활동을 주도해 온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수경 스님의 뒤를 이어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다. 또 종단 부조리와 반개혁적 흐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퇴휴, 이하 실천승가회)는 6월 30일 조계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생명 평화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8일 대규모 승려 시국선언 △전국 본사 · 선원 등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 전개 △17일 문수스님 소신공양 범국민추모제 적극 참여 △4대강 개발 중단을 위한 범불교연대기구 확대 등을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실천승가회가 사회 및 종단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입장 표명으로 수경 스님의 승적반납 이후 구심점을 잃었던 불교환경운동이 새 전기를 맞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전 교육원장 청화 스님(실천승가회 상임고문)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수경 스님이 걸어온 4대강 반대 운동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참회하며, 4대강 반대 운동의 구심에 실천승가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은 "수경 스님은 큰 족적을 남기며 불교환경운동의 거울 역할을 해온 분이다. 그동안 홀로 힘겨웠을 스님의 무거웠던 짐을 이제는 나눠지겠다"고 밝혔다.

실천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과 수경 스님의 고뇌와 결단은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며 생명평화에 대한 끝없는 성찰의 결과이며, 남아있는 우리의 실천하는 용기와 의지를 당부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린 MB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 강행은 권력의 오만과 무지이며 생명과 자연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행자의 양심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퇴휴 스님은 "실천승가회는 7월 18일 문수 스님 추모기간을 전후해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승려 시국선언은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의 시국선언과 함께 진행되며, 무분별한 4대강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시범 실시 · 검토 후 점진적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승가회는 시국선언에 3천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실천승가회는 지나치게 친정부적인 행보로 비판 받고 있는 종단 지도부에 대해서도 "사회적 허물을 바라보는 시각만큼 종단 내부의 부조리와 반개혁적 흐름에 분명히 대처하겠다. 설령 제살을 뜯어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항상 경책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다잡아 가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문수 스님 소신공양 불교도 1만인 선언' 서명운동을 2일 시작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선언 행사를 통해 문수 스님이 단행한 소신공양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역경에 스승 · 제자 따로 없어 남양주 봉선사가 월운 스님의 주도로 〈인본욕생경〉 시역고(試譯稿) 강평회(講評會)를 6월 28일 개최했다. 시역고 강평회는 한 사람이 번역한 원고를 여러 사람이 나눠보고 각자의 견해를 토론해 최종적으로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월운 스님은 시역한 원고를 미리 후학들에게 나눠주고 한달 동안 맡은 부분을 연구하게 했다. 사진은 시역고 강평회에서 제자들의 번역에 대한 비판을 들으며 메모하는 월운 스님의 모습. 관련기사 14~15면 · 사진=임연태 논설위원

"사찰문화는 관광 아닌 콘텐츠"

도권 스님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에 일침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은 관광사업이 아닌 문화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합니다."

경북 군위군이 조성중인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접근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온은 '가운데', 누리는 '세계'라는 뜻으로 가온누리는 가운데 세상 즉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가온누리 사업은 삼국유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이를 통해 군위군은 인각사 일대를 국내 대표적인 신화 · 역사관광지로 육성 ·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6월 28일 서울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은 지역사찰과 〈삼국유사〉 관련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을 논의하지 않고 개발논리에 전도돼 관광자원적 측면에서만 접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위 인각사는 〈삼국유사〉가 쓰인 곳으로 〈삼국유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1991~2009년 진행된 발굴조사 등으로 인각사는 기존 당우마저 해체된 채 방치돼 왔다.

스님은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인각사 복원 없이 조성되는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의문이다. 군위군은 테마파크 조성에 앞서 인각사 복원과 〈삼국유사〉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권 스님은 "군위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국고 등 3650억원을 인각사 등 삼국유사와 인접하지도 않은 140만㎡(약 40만평) 부지에 쏟아 붓겠다고 한다.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활성화 없이 관광시설 확충에만 몰입한 가온누리 사업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도권 스님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의 정책적 기반은 대선공약인 '경북도 3대 문화권 개발 사업 중 불교문화권 사업'이다. 불교문화권 사업임에도 인각사 등 지역사찰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MB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불교인권위 성명서 발표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가 "4대강 반대, 평화통일 운동, 천안함 진실 규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6월 2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사 무시, 남북긴장감 고조와 통일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내어 주는 일, 참여연대 탄압, 경찰 고문사건 등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경제, 전쟁위기 조장, 자본독점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 4대강 사업 중단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위원 영탄, 명진 스님, 종교평화연대 사무총장 자흥 스님, 진철문 박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문수스님 분향소에서 공동 분향을 진행했다. 이상언 기자

낙동강선원 개원

"4대강 운동 본격화"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낙동강 선원이 문을 연다.

경남불교평화연대 대표 자흥 스님(창원 금강사 주지)은 6월 29일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 현장이 보이는 곳에 낙동강 선원을 열고 4대강 생명살림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강선원, 여주 여강선원, 공주 금강선원에 이어 문을 여는 낙동강 선원은 경남 창원시 동읍 본포리 228번지 본포취수장에 자리잡았다. 경남불교평화연대, 4대강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사업저지 낙동강 국민연대 등은 낙동강 선원을 통해 4대강 사업 저지의 뜻을 굳건히 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7월 20일 개원하는 낙동강 선원 개원식에는 부산 태종사 도성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박창균 신부, 박영식 목사, 김세은 교무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언 기자

▶5 인터뷰-석상마을 착공한 법만 스님 ▶9 현장-채식 요리강좌 ▶11 특집-이주민 토론회





소원이 통하는 소통 법륜대 나투었네...

황금빛 눈이부신 금강경책으로 전생빛 갚느라
법륜대에 복장하는 불사가 연이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한바퀴 한바퀴 공덕, 업장소멸에서 바라는 소망을
글로 적어 바치는 특별함이 전통을 이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원이 통하는 법륜대의 특징

1. 수미단(탁자촛대) 좌우에 일천 부처님이 봉안됩니다.
2. 금강경 4,000권이 양쪽법륜대에 봉안됩니다.
3. 업장소멸로 소망성취 하는 윤장대로 돌아갑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791-022010.7.510:45AM페이지1(1,1)

조계종 승려연수 상설 운영

승가고시 응시 · 주지 소임 지내려면 1년 1강좌 이상 연수교육 해야

조계종 스님들이 3 · 2 · 1급 승가고시 응시와 주지 소임을 지내려면 1년 1강좌 이상의 연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 연수교육 운영안을 발표했다.

연수교육은 실효성에 문제가 그치지 않았던 본말사주지연수를 대체한 재교육제도이다. 교육원은 '승려연수교육운영및관리에관한령(안)'을 통해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재교육을 지속적 ·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수교육은 1주 2~3시간 교육을 6주간 받는 통학연수교육과 2박 3일 동안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숙박을 하며 연수교육을 받는 형태로 나눠 스님들이 여건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스님들은 통학 · 숙박연수교육별로 △전법향상과정(불교의례의식과정, 세상변화와 불교역할, 온라인 모바일세상알기, 설법능력향상과정, 신도상담지도과정 등) △사찰경영일반과정(복지 · 교육시설 수탁과 운영 과정, 불교생협 만들기,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사찰건축 이론과 실습 등) △불교교학과정(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과 삶, 한국의 종교, 그 현황과 미래전망, <전심법요> · <선요> · <임제록> · <육조단경> 특강 등) △불교문화실기과정(불교지화, 불교회화, 사찰음식 등)의 영역별 프로그램을 선택해 7월 30일까지 소속 교구본사로 신청 · 접수하면 된다. (02)2011-1808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통학연수교육]

과정	강좌명	강사	일정
전법 향상 과정	불교의례의식과정 I	정각 스님 (동국대 겸임교수)	8.18~9.15(주1회) 매주 수요일 13:00 ~ 17:00
	세상 변화와 불교 역할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8.18~9.15(주1회) 매주 수요일 19:00 ~ 21:00
	온라인 모바일 세상 알기	김종민 (이미지홀딩스 대표)	10.7~11.11(주1회) 매주목요일 13:00 ~ 17:00
사찰 경영 일반 과정	복지 · 교육시설 수탁과 운영 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추후공지
	불교생협 만들기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외	8.17~9.14(주1회) 매주 화요일 13:00 ~ 17:00
불교 교학 과정	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과 삶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교수)	9.29~11.3(주1회) 매주 수요일 13:00 ~ 17:00
	한국의 종교, 그 현황과 미래전망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소 소장) 외	9.29~11.3(주1회) 매주 수요일 13:00 ~ 17:00
불교 문화 실기 과정	불교지화 (15명 선착순 마감)	김태연 (궁중상화연구소 소장)	8.18~9.15(주1회) 매주 수요일 10:00 ~ 13:00
	불교회화 (15명 선착순 마감)	김창균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 외	8.26~12.16(주1회) 매주 목요일 10:00 ~ 13:00

[숙박연수교육]

과정	강좌명	강사	일정
전법 향상 과정	설법능력향상과정	김이곤 (음향감독)	8.26~8.28 (2박3일)
	사찰수련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일감 스님 (금산사 수련원장)	9.5~9.7 (2박3일)
	신도상담지도과정	황수경 (동국대 선학과 강사)	9.30~10.2 (2박3일)
	불교음악과 법회운영	도영 스님 (불교음악연구소 소장) 외	11.25~11.27 (2박3일)
사찰 경영 일반 과정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태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8.23~8.25 (2박3일)
	사찰농지임야활용	김태용 (공인회계사) 외	9.13~9.15 (2박3일)
	사찰건축이론과 실습	지용한옥학교, 현고 스님(전남문화재연구원이사장) 외	9.28~9.30 (2박3일)
	문화재콘텐츠활용과정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컨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10.3~10.5 (2박3일)
	사찰경영지도자과정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외	10.25~10.29 (4박5일)
불교 교학 과정	전심법요 특강	종묵 스님 (해인사 전 강주)	9.2~9.4 (2박3일)
	선요 특강	통광 스님 (쌍계사 승가대학학장)	9.9~9.11 (2박3일)
	초기불교	각묵 스님 (화엄학림 교수)	10.4~10.6 (2박3일)
	간화선수행의 이론과 실제	월암 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10.9~10.13 (4박5일)
	티벳불교의 힘	최로덴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10.15~10.17 (2박3일)
	서장 특강	지오 스님 (전 범어사승가대학장)	11.3~11.5 (2박3일)
	임제록 특강	무비 스님 (동국역경원장)	11.11~11.13 (2박3일)
	불교와 심리치료	서광 스님(동국대 겸임교수),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11.13~11.15 (2박3일)
	경덕전등록 특강	지안 스님 (승가대학원장)	11.24~11.26 (2박3일)
	육조단경 특강	설우 스님 (법인정사 선원장)	12.2~12.4 (2박3일)
불교문화 실기과정	사찰음식	사찰음식보존회	11.8~11.10

[기타교육과정]

과정	강좌명	일정	진행
사회복지봉사과정		10월 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종단 산하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

[교육원 인증 교육과정]

강좌명	일정	진행	
웰다잉운동본부	10월~12월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과정	1년과정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02-929-5004
동국대 사찰경영 전문최고위과정	1년과정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02-2260-8887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교양과정	상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8
동국대(경주) 불교문화대학원 지도자과정	1년~2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054-770-2392
대한불교교사대학	1년과정	사단법인 동련	051-864-4569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감소 프로그램	10월~12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02-732-1367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	9월~11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02-738-7860
기초불교영어강좌	상설	국제포교사회	02-722-2206
불교호스피스자원봉사교육	11월 개강 예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해외특별교구 관리보단 지원"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모습.

조계종이 한국불교 세계화와 해외사찰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해외특별교구는 관리 · 규제가 아닌 해외포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 종무부(총무부장 영담)은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사회자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해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뉴질랜드 남국정사 주지 동진 스님, 국제교류위원 진월 · 조주 스님, 교육원 연수국장 광전 스님, 정석원 종단 변호사, 박용규 총무차장, 홍민석 국제팀장 등이 토론자 · 실무 배석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별 법인 설립 기준 등이 제각각이라 일괄 적용이 어렵다. 세계 각국의 사찰을 사무국으로 관리하겠다는 것도 무리"라면서 "해외특별교구는 종단이 해외사찰들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해외 포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무원 총무부는 이날 토론 내용 외에도 9월에는 미국동부지역 간담회를 여는 등 해외사찰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된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종회의원 정수 조정 전망

제16대 중앙종회부터 교구당 2인으로 일률 배정됐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수가 조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교구의석배분 종헌위반 심판청구 예비심사의 건'을 통과시켜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2년 이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등 41명의 스님들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교구별 재적승 수와 관계없이 교구별 2명씩 배정된 것은 종도들의 참종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앙종회의원의 의석배분기준을 교구별 재적승 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종헌소원심판서를 17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수는 1994년 11월 개정된 후 지금까지 재적승과 무관하게 교구별 동수로 구성돼 왔다.

이날 법규위의 결정은 종회의원선거법 개정을 강제한 것으로 향후 종회의원선거법 개정 방향에 따라 조계종 정치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종회의원 수를 현재의 81명으로 유지하면서 교구별 의석 수나 직능별 대표 수의 재배정을 통한 해결 방법은 각 교구본사별 · 직능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구별 2명씩의 정수를 유지한 채 재적승이 많은 일부 교구의 의원수만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81명으로 규정한 종헌을 개정하는 이 방법에는 종헌 개정 과정에서 그동안 의석수가 적다고 지적돼 온 비구니 · 직능별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동섭 기자

불교영어대학원 설립안 논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7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영어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영어대학원은 국제포교에 필요한 전문자와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영어 교육기관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1차로 2011년 상반기 중 비구니스님 대상으로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행사는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의 불교영어대학원 설립안 설명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02)2011-1803

조동섭 기자

www.dongsanbud.net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툼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앞 동산불교회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2010년도 후기
동산불교대학·대학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안내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불교학과

1. 교과목 및 교수

	교 과 목	교 수
1년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불교대) 묘주스님(동국대), 정병조교수(동국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2년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 장엄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모집인원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80명),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명), 통신반 (50명)

3.입학일시 : 불교학과 2010년 8월 7일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4.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0년 7월1일 부터 접수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초발신자경문, 한문해석 금강경(1),(2), 유마경(1), 중국고전(장자) 등	심만춘교수	9월 9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T-테이블셋팅(한국, 중국, 일본, 유럽 차문화사) 재다학(1),(2) 한국의 현다례	도양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9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불교포교론	묘주스님	9월 6일(매주-월) 오후7시
	아함의 수행론	김형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7시
근본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20명)	초기불교수증론(2)	최봉수교수	10월 7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2년과정)	다관,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신전	김진숙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9월 4일(매주-토) 오후2시
범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	인각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3시

본회사무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 732-1206 FAX : 732-1207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팜프렛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 장 무 진 장 / 이사장 안 동 일

전통사찰, 문화 · 관광 · 복지 거점으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전통사찰 발전 제안서' 펴내

전통사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56가지가 담긴 제안서가 나왔다.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소장 김종서, 이하 연구소)는 최근 <전통사찰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펴냈다. 제안서는 조계종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추진한 <전통사찰 전수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기획돼 2010년 2~5월 연구소 연구원들이 전통사찰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 분석과 전통 사찰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기초로 작성됐다.

김종서 소장은 머리말에서 "오늘날 전통사찰이 처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발전기회이다. 철저한 보존 원칙에 입각한 신중하고 지혜로운 발전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제안서를 통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정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제안서의 주된 초점을 추상적인 이론 제시가 아닌 전통사찰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뒀다"고 말했다.

제안서는 1)전통사찰의 현대적 의미와 중요성 2)전통사찰 정책 개괄 3)전통사찰 발전 정책 4)시범사찰과 거점 발전 전략 5)전통사찰의 홍보 방안 및 실태조사 결과 활용 방안 6)전통사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사업 및 활용방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56가지의 전통사찰 발전을 위한 제안은 제안마다 1~2 페이지 분량으로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개조식으로 기술돼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자료로의 활용성을 높였다.

연구소는 전통사찰 발전 정책을 ①지역문화의 거점 ②새로운 관광의 거점 ③교육 및 복지 거점의 큰 틀로 나눴다. 이 세가지 기본틀 위에서 시범사찰을 선정해 거점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연구용역, 홍보, DB 구축 및 실태조사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연구소는 전통사찰이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산사음악회, 시낭송회, 전시회,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교의례문화 재현 행사, 불교문화콘텐츠 체험 행사, 사찰음식 체험 행사 등 불교문화 행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연구소는 "전통사찰이 새로운 관광거점이 되려면 수행과 신행이라는 전통사찰의 본래 목적과 사찰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며 체험 및 일체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테마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교육 및 복지 거점으로서의 전통사찰을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교육 · 복지 기능을 살려 문화강좌 · 대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 다문화 · 소외층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소는 아버지 학교 · 부부 학교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전통사찰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찰은 전통사찰이 지닌 자연미와 문화적 다양성, 역사적 고유성을 '사찰과 자연'(멋[美]과 어울림[和]), '사찰과 문화'(선[禪], 맛[味], 의식[齊]), '사찰과 역사'(사람[人], 이야기[說], 만남[緣]) 등 세가지 테마, 8가지 키워드로 유형화해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찰과 자연' 테마에서 '멋'은 자연 · 생태 환경 등이 빼어난 사찰을 환경교육, 체험관광 등으로, '어울림'은 환경과 사람, 전통과 현대 등이 잘 어우러진 참살이 문화의 거점으로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사찰을 선정 ·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찰과 문화' 테마에서 '선'과 '맛'은 각각 한국불교 선맥과 사찰음식 등의 보존 및 세계화를 '의식'은 범패, 승무 등 예술적 가치를 지닌 불교의식을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사찰과 역사' 테마에서 '사람'은 전통사찰과 역사적 인물을 토대로 사찰 역사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로 기획하며, '이야기'는 설화, 민담 등을 간직한 사찰을 중심으로 답사 코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또, '만남'은 불교의 초전지 등 한국과 불교의 만남, 불교와 토착문화, 이웃종교와의 만남이 이뤄진 전통사찰을 발굴해 특화시키자는 계획이다.

전통사찰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 시행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연구소는 "전통사찰의 가치에 대한 홍보는 사찰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반"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 △다양한 유형의 전통사찰 홍보 책자 발간 △전통사찰 배경의 다큐멘터리 제작 △불교문화 멀티미디어 자료관 구축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전통사찰 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정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사찰주변 환경, 템플스테이 효율화 방안, 불교의 이미지 조사 및 이미지 개선 방안 등 전통사찰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서에는 정부의 전통사찰 지원이 불교계에 대한 편향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전통사찰 발전의 당위성도 담겼다.

연구소는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정책은 종교에 대한 간섭도 종교간 차별도 아니다. 문화국민의 자존감을 드높이는 길"이라며 "종교문화의 민족 문화적 공동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인의 삶 속에 구체화하는 것은 고급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동화사 제26대 주지 성문 스님 진산식 봉행 대구 동화사는 6월 26일 제26대 주지 성문 스님의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문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혜를 모아 원융 화합하는 팔공산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담아 선지식도량인 새로운 팔공산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국불교 세계 홍보 나선다

자승 스님, 7월 캄보디아 · 9월 美 뉴욕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해외복지시설 지원과 한국불교 홍보를 위해 캄보디아와 미국을 순방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19~23일 캄보디아를, 9월 16~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의 캄보디아 방문기간 동안 노로돔 시아모니 (Norodom Sihamoni) 국왕과 훈센 (Hun Sen) 총리, 캄보디아 불교 종정 테퐁 스님을 만나 한-캄보디아 간 우호증진과 불교문화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또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시엠립에서 건립 중인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아동센터의 화엄다목적센터 준공식에도 참석한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7월 BWC센터를 방문해 화엄다목적센터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9월 16~22일 미국 뉴욕 순방기간 동안 자승 스님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나 세계평화에 관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또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미국 동부지역 간담회, 뉴욕지역 대법회 참석을 통해 미주불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9월 20일 뉴욕 맨하튼 스카이라이트에서 사찰음식의 날 행사와 템플스테이 국제 홍보 등을 펼친다.

조계종 관계자는 "자승 스님의 잇따른 해외 순방은 지난달 한 · 일불교대회 참석에 이어 국제사회와도 소통의 기회를 폭넓게 가져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 사찰음식 현장설명회 열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사찰음식연구단(단장 효탄)이 7월 1일 대구 동화사 성보박물관에서 '2010년 대구 · 경북지역 사찰음식현황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부는 2010년은 지역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중화와 세계화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부는 지역현황조사의 가장 핵심인 현장방문조사 과정을 최초로 공개했다. 동화사 6대 산내암자인 양진암의 정묵 스님과 원정 스님은 삭발 · 목욕일에 특별식으로 먹는 상추전을 시연했다. 문화부 최소영, 강경구 연구원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 조리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 전통사찰 현황 최초 정리

조계종 문화부 '한국의 전통사찰' 발간



전국의 전통사찰 934곳을 전수조사해 현황을 기록한 자료가 출간됐다.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효탄)는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0전통사찰 현황보고서-한국의 전통사찰> 등의 발간을 발표했다.

<한국의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계종 문화부 직원들이 2009년 12월~2010년 5월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물로 불교계 최초로 전체 전통사찰의 현황이 망라돼 있다.

2권으로 발간된 <한국의 전통사찰>은 사전류 형식의 보고서로 전통사찰 934곳(2010년 5월 기준)을 대상으로 기본 행정 · 문화재 · 건축현황, 사찰 특징을 알려주는 문서자료와 사찰 사진 등을 수록했다. 또,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도별 · 종단별 통계와 다양한 분류의 색인을 첨부했다.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한국의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자료로 관련 기관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전통사찰>에 따르면 경상북도(175곳)와 전라북도(114곳)의 전통사찰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58곳, 부산 30곳, 대구 18곳, 인천 8곳, 광주 5곳, 대전 4곳, 울산 11곳, 경기 100곳, 강원 46곳, 충북 82곳, 충남 81곳, 전북 114곳, 전남 95곳, 경북 175곳, 경남 95곳, 제주 12곳의 전통사찰이 분포했다. 조동섭 기자

휴가를 몸과 마음 쾌청하게

단식 · 참선 삼매체험 집중수련 5일/30일/50일/100일

산사에서 참선 단식 다이어트

금강단식 온단식 : 국민단식으로

"단비" 집중력 · 사고력 · 성적 UP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무겁고 어두운 몸과 마음을 단식과 참선(화두)로 대전환 한다.

◆행복참선학교 : 토요일 10시 30분

기적의 금강단식 단식참선의 획기적 효과

- 바로 끊고 바로 먹고, 요요현상 제로 -

○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고혈압 당뇨 체질개벽 해독 피부미용 여드름 · 아토피 여성병(생리불순, 폐경, 생리연장)
○ 금연,금주,위장,대장,소장 등 각종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
○ 통찰로 지혜의 극치에 도달, 운명 천성이 바뀜.
○ 심신개벽,자신감,신념증대,창의성,능력개발,성격개조
○ 우울증,신경쇠약,정서안정,공포불안,대인관계 인내심,집중력,기억력
○ 물만 마시고도 각종 난치병 · 성인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금강단식으로 몸과 마음이 활기회복
○ 예비감식 보식 없음

청소년특별프로그램 "단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과 사고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릴 단기출가 선 수행 프로그램인 "단비"를 운영한다.

〈특징〉
권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없애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흐트러진 정신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권 집중력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태도 전환을 갖게 됩니다.
권 사고력의 확장으로 정서, 자신감, 정신적 안정에 도달하며, 정신적 신체적인 확고한 토대를 이룹니다.
권 참선을 통한 인생관을 확립합니다.

단기출가 4박 5일 일정

차 수	날 짜	대 상	장 소	회 비
1차	7. 17 ~ 7. 27	청소년, 부 또는 모 동반(단비)	활인선원	신청회비 60만원 (장려금 20만원 지급, 10일전 신청완료, 10만원지급) * 1차에 한하여 3일 전 적용
2차	7. 23 ~ 7. 27	청소년, 부 또는 모 동반(단비)	활인선원	
3차	7. 20 ~ 8. 3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4차	8. 6 ~ 8. 10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5차	8. 12 ~ 8. 16	청소년, 대학생, 일반	제주 원명선원	
매일정기 1회 실시	9. 19 ~ 9. 23	청소년, 대학생, 일반	활인선원	
	10. 22 ~ 10.26	청소년, 대학생, 일반		
	11. 26 ~ 11.30	청소년, 대학생, 일반		

30일 50일 100일 단기출가

날 짜	기 간	날 짜	기 간
7. 17 ~ 8. 14	30일	11. 12 ~ 12. 11	30일
7. 17 ~ 9. 4	50일	11. 12 ~ 2011. 1. 1	50일
		11. 12 ~ 2011. 2.26	100일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끌어 올려 영원한 삶으로 바꿔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젊음은 젊음대로, 황혼은 황혼대로 값진 삶으로 인도해 줄 단기 참선출가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룹시다.

문의신청 ☎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참선전문도량 활活인人선禪원院 (제주 원명선원) 안성맞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일 주 문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7월 20~23일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제13회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02)723-6165



조계사 제1기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계사 경내 교육관에서 제1기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02)720-1390



용주사 장보고 유적지 문화특강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7월 25일 용주사 청소년수련관에서 장보고 유적지 특강을 개최한다. (031)234-0040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입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1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제25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했다. (033)339-6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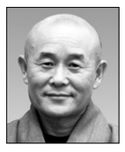
제8회 경암스님 국제서화전시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7월 16~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회 경암스님 국제서화전시회를 개최한다. (02)913-6311



청정승가, 음악포교 아카데미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대표 진오 스님은 7월 6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교육관에서 불교명상음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732-1209



무각사 스리랑카 종정 초청 법회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7월 4일 경내 대웅전에서 스리랑카 아스기리야 종 종정 붓다락끼따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정토회 7월 명상 수련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7월 8일부터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7월 명상수련을 실시한다. (02)587-8990

■ 불교언론인회 새 회장 이동식씨 선출



한국불교언론인회는 6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7대 회장에 이동식 KBS 정책기획본부장을 선출했다.

신임 이동식 회장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KBS 입사, 베이징 특파원, 런던지국장, 보도제작국장, 부산총국장, 정책기획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 생명사랑 콘서트 연 도신 스님

노래로 법장 스님의 나눔 정신 계승

열반 시 법구를 기증한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입적 5주기를 맞아 7월 2~3일 이틀간 서울 KBS홀에서 '2010생명사랑 자비콘서트'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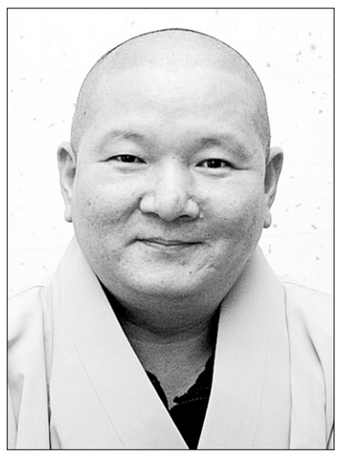
이날 콘서트에는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도신 스님(사진)이 직접 밴드 '색즉시공'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은사인 법장 스님에 대한 존경을 담은 사부곡을 불러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도신 스님은 이날 공연에 앞서 "늦은 감이 있지만 생명 나눔을 실천한 법장 스님의 유업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기도 했던 법장 스님은 지난 2005년 9월 입적 당시 법구를 기증해 당시 불교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장기 기증 행렬에 동참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도신 스님은 "평상시에도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전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며 "사회와 불교계 안팎에 배려의 정신이 부족한 현재, 소외된 이들을 위하며 살아오신 스님의 정신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은사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스러움을



전했다.

스님은 "법장 스님이 생전에 노래를 못하게 하시며 기타를 보시면 부수셨다. 항상 '노래는 그 정도면 됐다'고 하셨는데 '노래로 전법포교를 열심히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며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말을 안 들은 것이 노래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일까. 국악 가수이기도 한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의 입적 원인인 심장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앨범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그동안 법장 스님의 뜻을 잇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장 스님 추모음악회 추진위원회'와 도신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서산 서광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콘서트도 법장 스님 추모와 함께 스님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을 위해 마련됐다.

스님은 "기념관에는 법장 스님의 유품과 함께 활동사진, 동영상 자료를 전시하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의 자료 등을 담아 나눔 정신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콘서트를 계기로 법장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해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고 사회와 종단의 화합을 제시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음악회에는 장윤정, 박현빈, 신촌블루스의 엄인호, 한영애, 박소림과 불교연합합창단, 마음소리승가합창단 등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콘서트 현장에서는 장기기증 서약과 헌혈행사도 함께 진행됐으며 KBS와 불교TV 등을 통해 방영됐다. (041)664-2001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진철승 불교문화정보연구원 원장

"정보 · 인물 교류하는 종합아카이브 될 것"



불교문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 1일 설립된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 · 사진)이 최근 창립 후 첫 대중강좌 프로그램인 '불교문화 석학강좌 시리즈 – 불교와 음악'을 개최했다. 6월 29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만난 진철승 불교문화정보연구원 원장은 불교문화계의 과제에 대한 얘기 보따리를 풀었다.

진철승 원장은 먼저 불교문화계가 현재 '범주의 혼동'이란 문제점에는 봉착해 있으며 그 원인에는 문화계 전반에 걸친 대중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사회현상의 주체들이 활동에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야의 파괴와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원장인 이러한 과정이 불교문화계에서도 일어나며 큰 혼란과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조계종으로만 보면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불교문화의 연구와 개발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지도 각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돼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각 분야의 개념조차 혼동되기 때문에 분야의 교류나 대중성 연구 등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이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문화의 각 분야를 정확히 규정하고, 일반 문화계와 불교계의 접합점을 찾아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은 미술, 음악, 건축, 문학 등 문화 전반에 걸친 200여 명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와 교류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석학강좌 시리즈는 불교문화의 각 분야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된 '불교와 음악'에 이어 '불교와 건축', '불교와 문학' 등 1년 2차례씩 5년간 10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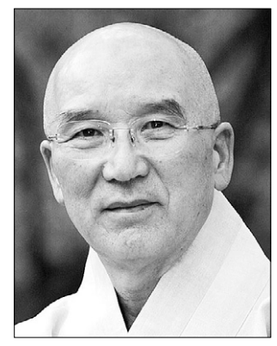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동안 불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은 정보와 인물이 교류하는 종합아카이브로도 거듭나 겠습니다."

진철승 원장은 불교문화의 개념 정립을 넘어 결국 불교문화가 대중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보와 인물의 교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번 석학 강좌를 시작으로 불교를 자양분으로 문화계 저변에서 활동 중인 신진작가 등도 지원하고자 한다. 또 그동안 연구된 원천자료의 디지털화 등 불교콘텐츠의 대중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라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만불선원 진철 스님 입적



대전 만불선원 회주 진철 스님이 6월 29일 경남 통영에서 입적했다. 세수 71세, 법납 47세. 영결식은 7월 3일 공주 마곡사에서, 다비식은 양산 통도사에서 엄수됐다.

진철 스님은 1940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사범대를 졸업했다. 스님은 1964년 마곡사에서 일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5년 마곡사에서 도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 대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이사장, 생명나눔공양실천회 초대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 포교와 불교사회복지에 앞장서 왔다.

조동섭 기자

제12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 발표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제12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자를 발표했다.

제12회 진각논문대상은 5월 14일 논문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위원장인 진각종 종학연구실장 지정 정사와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개별심사 및 심사위원단 회의를 거쳐 불교일반(5편), 밀교일반(1편) 등 2개 분야에서 6편을 선정했다.

이번에 당선된 논문은 △불교일반분야에서 고려후기 총지종의 활동과 성격(김수연) △짠드라끼리띠의 유식학파 비판(김현구) △계체(戒體)를 통한 불교윤리 연구(김현진) △출가의 동기를 통해서 본 남성수행자의 깨달음(이길주) △정법(淨法 · kappa)의 발달을 통해 본 율(律)의 역할(이자랑) △밀교일반분야에서 금강계 37존도의 한국적 전개에 대한 연구(최성규) 등이다.

논문계획서 당선자들은 향후 4개월 간 논문완성 기간을 거쳐 11월 중순 최종 논문 발표회를 갖고 최우수편을 가리게 된다.

이나은 기자

천태종 대구 대성사, 십선 실천 대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는 7월 1일 십선실천 대법회를 봉행했다.

십선실천대법회는 보살십선계 실천을 통해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정화 운동의 하나이다.

남원 달수사 관응 스님은 법문에서 "모든 것은 인과로 뭉쳐져 한 치의 오차 없이 풀려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차려 나가는 것이 참 불자의 마음가짐이다"라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노인위안 도문 큰스님 초청대법회

용봉사회복지관(관장 원명)과 대전 거사림연합회(회장 류해상)는 6월 27일 대전 동구 노인중앙복지관에서 용성조사 사상선양회 창립을 기념해 '노인위안 도문 큰스님 초청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용성조사 사상선양회 회원 스님들과 대전 거사림 회원 동구노인회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용봉사회복지관장 원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용성 스님의 유훈을 늘 새기며 노인급식을 수행 방편삼아 업그레이드 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혜철 총청지사장

봉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창종 법회 축

종정예하 법성 혜암

원로원장 고제 무성 총무원장 청송 청파 종정사서실장 백천 동담

포교원장 정대 동호 복지원장 덕진 도광 감찰원장 대공 동곡 사회원장 무천 도원 문화원장 대명 동천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이루어낸 무한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하고자 종단 창종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의 창종 법회에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창종법회 봉행위원장
원로원장 고제 무성 합장

귀 일 시 : 불기 2554(2010)년 7월 10일 (토) 11:00
귀 장 소 : 경남 김해 골든뷔페 (김해 부원동 614-19 / 055)326-6363~4)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성불암 전화 055)336-0108
- 종정예하 주석사찰 대원사 : 대전 서구 도마1동 84-6 13길 42호 / 042)527-3800

인터뷰 – 노스님 위한 석상마을 착공한 법만 스님

"교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불사"

"이제 시작입니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사부대중의 의지와 원력으로 마을 규모를 점차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사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법만 스님이 노스님들의 수행마을인 석상마을을 착공식 하루 전날인 6월 27일 공개했다. 선운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석상마을은 입구에는 차나무 잎이 반짝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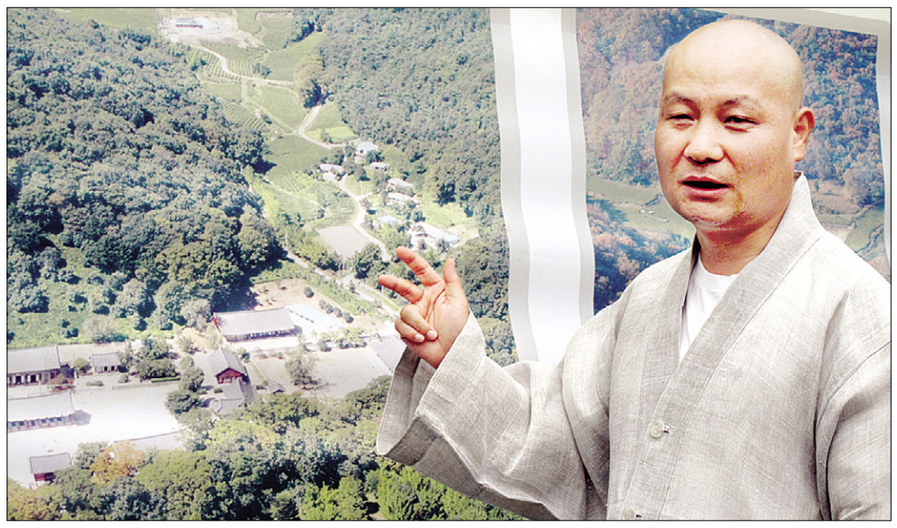
"불가의 전통 그대로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곳도 결국은 선운사의 일부로 경내로 보면 됩니다. 전기, 통신선은 땅 밑으로 깔아 보이지 않게 해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고, 기존 황톳길, 돌담길, 작은 샛길까지도 살려낼 겁니다. 어른 스님들의 최고 수행공간이 되도록 말입니다."

석상마을 곳곳의 빈 집이 눈에 띄었다. 올해 석상마을 원주민은 마을일을 위한 1명 외에 모두 이주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터에서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약간의 반발도 있었지만 노스님들의 수행공간이 된다는 말에 주민들은 적극 협조했다.

"최근에는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108개의 등을 달아달라며 108만원을 보시하는 신도도 있었습니다. 신도 한 두 명의 원력이 아닌 사부대중의 염원으로 부처님 기본 사상과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불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승려 노후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스님을 위한 수행마을 석상마을은 법만 스님과 함께 제24교구 문중의 노력과 신도, 지역 주민 등 사부대중의 합작품이다. 법만 스님은 "주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7년 5월 선운사 주지로 부임한 법만 스님이 석상마을을 구상한 것은 20년 전이다. 선운사에서 출가해 전국 여러 선방에서 25차례나 안거한 스님은 "선방에서 노스님들을 뵐 때마다 지금의 석상마을 같은 곳을 꼭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법만 스님은 사찰이 가진수많은 자원을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고심해왔다. 노후수행마을도 스님이 오랜 시간 동안 목표했던 숙원사업으로 선운사 주지를 하면서 반드시 이뤄야할 일이었다.

법만 스님은 종단의 노후보장, 복지에 문제를 느껴왔다.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승려노후를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교구본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닦아 놓으면 선운사가 승려노후복지는 물론 재가자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행과 포교, 복지와 문화 공동체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특별기고



진오 스님
대둔사 주지

이주민 포교 갈 길 멀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2010년 3월 31일 기준), 국내체류 이주노동자 60만, 결혼이주여성 17만, 유학생 10만 명 등 이주외국인이 118만 명을 넘었다. 통계청은 이주외국인들이 2050년에 4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0%로 증가해 복합민족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4만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800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 6400여 명의 다문화 2세 자녀가 살고 있고, 구미시에는 이주노동자 5000여 명과 950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있다. 수도권 거주 이주외국인이 65%를 차지하고, 농촌지역일수록 다문화 자녀들이 초등학교 정원을 겨우 유지시키는 현실이다.

경제적 소득이 낮은 아시아국가 출신 이주외국인에 대한 멸시와 인격비하 발언에 대해 불자들이 방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이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인격성숙도를 비교할 수 없듯이 이주외국인을 문맹자나 아랫사람 취급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해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업보를 초래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과 휴일에 공장에서 벗어나 사찰을 찾아가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곳이 없다. 한국불교의 포교역량이 부족한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스님들이 산중생활을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포교현장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아줌마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결혼이주여성도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때 도움 받을 사찰이 드물다. 생각해보면 사찰 신도조직과 지역 이주여성을 1:1 친정엄마 결연으로 인연 맺는 방법이 있다.

전통사찰요리교실과 사찰음식초대전은 큰 관심을 끈다. 초파일 노래자랑대회를 열고 생필품 제공과 어울림 시간으로 흥겹고 즐거운 연등축제도 가능하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여성이 전통복장을 입고 사찰합창단 활동을 하거나 백중맞이 합동제사와 국가별 음식시식회를 열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명찰순례시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가족을 동참시키는 신행프로그램도 좋다. 아시아 출신 여성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불교신앙 속에서 자란 까닭에 법당을 찾아 향 피우고 삼배 올리며 소원을 비는 모습은 일반적인 종교생활과 같다.

다문화 자녀는 전국적으로 8만여 명에 이른다. 자녀를 위한 교육열은 다문화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다문화자녀 장학금제도는 거사림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면 배우자 남편을 인도할 수 있고, 정기적인 단체모임 활성화에 상생작용이 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을 저출산 · 고령화를 극복할 대안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지원했지만, 언어소통 부재, 부부갈등, 시부모와 갈등, 평균 12세 차이의 남편과 세대차이에 따른 부적응 상황을 이주여성 탓으로 돌렸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다. 문화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하라는 사회통합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남편이 밤늦도록 술 마시고, 말이 안 통한다고 때리고, 너희네 나라로 되돌아가라는 농담에 이주여성은 심리적 큰 상처를 받는다. 그들을 위한 비구니스님들의 인권보호활동은 매우 높은 효과를 얻는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가가지 않으면 구성원들로부터 냉대 받을 것이다. 향후 교구본사별 이주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돼 사회적 약자와 이주여성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 불교가 나서야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며, 각종 재해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 자발적인 자조집단 형성을 목적"으로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포교활성화를 위해 경북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다.

같은 나라 출신의 친구를 만나고, 아플 때 쉬고, 폭행과 임금체불의 부당한 사례에 적극 개입하여 도움을 준다. 주말마다 태권도교실,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일요일과 연휴기간에는 각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포교의 제1 전략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한 만큼 대우 못 받는 사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평등, 평화, 자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과연 자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주외국인들에게 머리가 아닌 실천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한국불교는 포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총무원은 좀 더 적극적인 종책으로 현장에서 애쓰는 독립군(?) 스님과 포교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100자 뉴스

조계종 화쟁위 4대강 사업 찬 · 반 의견 청취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4대강 사업에 관련한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청와대 박재완 수석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형표 기획국장, 환경부 김지태 물환경정책국장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김정욱 서울대 교수,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참석했다.

화쟁위 대변인 법안 스님은 회의 후 "제3차 회의에서는 양 측의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7월 14일 예정된 제4차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화쟁위원의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포교원 경찰전법단 출범

경찰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계종 경찰전법단이 6월 28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거행했다.

경찰전법단은 스님 42명으로 구성돼 경찰 불자들의 법회 및 신행활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경찰전법단 창립은 포교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출범한 조계종 전법단 조직 구성의 일환으로 5월 12일 창립된 병원전법단에 이은 두 번째 전법단이다. 박선주 기자

東大 경주 예술문화진흥연구소 7월 학술회의

동국대 경주캠퍼스 예술문화진흥연구소(소장 박상진)는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문화예술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역사를 통한 불교문화예술의 진흥 방향 모색(김승국) △전통불교문화의 현대적 복원-불교무형문화의 자산과 콘텐츠 가치에 대한 주목(구미래 성보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법회 의식곡 문제점 개선을 통한 불교문화의 정체성 회복(최종민 동국대 교수) △불교 전통공연예술의 현황 및 발전 방향(손태도 문화재전문위원)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054)770-2201 이나은 기자

불교인재원 7월 23~25일 불교 모금 강좌

불교인재원은 7월 23~2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불교 모금(권선 혹은 화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모금 문화 방향 설정을 위한 모금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김재춘 아름다운가게 정책국장, 이희관 사회공헌정보센터 자문위원, 김동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사업단 팀장이 △모금의 개념과 원리, 불교계 모금활동의 현실 △모금기획과 전략의 설계, 종교단체의 모금과 지역모금 △모금제안서의 작성(모금 메시지 개발 워크샵) △블루오션-온라인과 IT 모금 △108가지 모금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02)735-2428 이상언 기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청소년 교리 경시대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이하 경시대회)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 경시대회는 초 · 중 · 고등부로 나뉘어 9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된다. 군장병을 위한 경시대회도 시범적으로 육군 제9 · 25사단에서 각각 부대별 일정에 맞춰 열린다.

참가신청은 7월 12일~8월 31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우편접수도 가능) (02)515-9351 조동섭 기자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기탄잘리'와 무산 조오현 선사의 시집 '만악가타집' 비교연구 국제세미나

시를 통한 한국과 인도의 마음 나누기 (Sharing Mind between INDIA and Korea through Poe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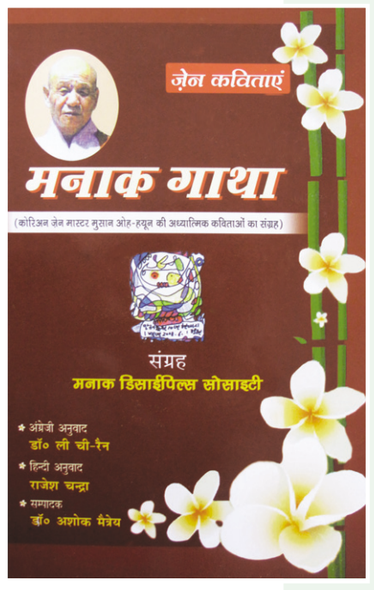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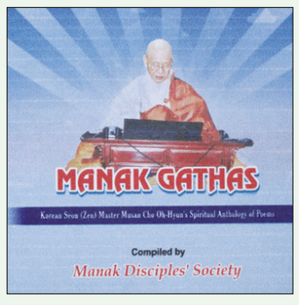
동방의 등불 타고르 작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주요한 옮김. 1929.4.2).

◆ 기조연설 : 아쇼크 메이트레이 박사 (Dr. Ashok Maitrey, 인도 국민시인)
◆ 발 제 자 : 1. Dr. Ashok Maitrey : 타고르의 '기탄잘리'와 조오현의 '만악가타집' 비교 분석 (하 푸르 타고르 시인협회장)
2. Dr. Er. Shreyskar Gaur : 타고르의 시세계 (인도 델리대학교 영문학교수)
3. Dr. Padam Singh Sidhu : 만악 가타집 분석 (인도문학연구소장)
4. Prof. Dr. N.Q. Pankaj : 인도고대불교문학 (베나레스 힌두대학교)
5. Dr. Birendra Nath Parsad : 인도현대불교문학 (럭나우대학교)
6. Prof. Dr. Ajay Vijay Kaur : 인도현대문학 (하푸르 미룻 대학교)
7. 라메쉬 마단 박사 '타고르 여성관' (인도정부 인적자원부 사회과학연구원 부소장)
8. 무산 조오현 시 세계
9. 인도의 전통과 음악
◆ 패널리스트 : 60명 (인도의 시인, 교수 등)
◆ 일 시 :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 장 소 : 인도 웃타라프라데쉬(UP) 하푸르, 디프 웃사브 대연회장
◆ 세미나 발제자 10명 · 패널리스트 60명 · 참가인원 3천명

주관 : 인도정부 인적 자원 부 사회과학재단 욘커 사회과학연구소
후원 : 인도 하푸르 타고르 시인협회
한국연락처 : 02)3672-5042 dhammalee@hanmail.net





아득한 성자 조오현 작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서툴지만 혼이 담긴 작품이에요"

성북장애인복지관 '사랑을 담은 그릇전' 개최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현관 스님과 김설한양이 꽃병을 들고 있다.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만든 도예품은 성북구청 1층 성북문화홀에서 7월 9일까지 전시된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6월 28일~7월 9일 성북구청 1층 성북문화홀에서 도예전시회 '흙으로 빚는 아름다운 세상 – 사랑을 담은 그릇展'을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된 도예품은 성신여대 조형연구소 이만수 교수의 지도아래 매월 1회 40여 명의 장애인들과 미래에셋 직원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행사에는 작업을 하며 찍은 사진과 함께 컵, 그릇, 꽃병 70여 작품이 전시돼 있다.

28일 열린 개막식에서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성훈 사회복지사는 "이번 전시회가 참여자 장애인에게는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사회 참여를 이끌며, 비장애인에게는 예술 ·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설한양은 "이거 제가 만든 꽃병이에요"라며 전시돼 있던 자신의 작품을 들기도 했다. 전시장을 찾은 김선영군의 어머니 김윤옥씨는 "아이가 1년간 끈기 있게 한 가지에 몰두하고 또 본인이 재미있어 하니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2007년 문을 연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사회 기능 재창출을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딱딱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지루해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과 문화 · 예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예'를 도입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도예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신여대 조형연구소(소장 이만수), 미래에셋 직원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성신여대 조형연구소 팀과 미래에셋 직원 봉사자들은 장애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왔다. 덕분에 장애인들은 자신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만들었다.

복지관장 현관 스님은 "흙을 만지며 형태를 만든 후 불에 구워내는 도예활동은 지적장애인들의 표현력을 다양하게 하고 근육 강화를 통한 신체 발달과 재활 의지를 높여준다. 손으로 하는 활동은 말초신경을 자극해 두뇌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만수 교수는 "장애인은 인지 반응이 느릴 뿐이지 모자람이 없다.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들의 진심과 감동을 느꼈다. 서툰 솜씨지만 만드는 사람들의 혼이 담겨있는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사랑을 담은 그릇展에 전시된 작품은 판매될 예정이며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프로그램 기금 및 재활 훈련비 등으로 사용된다. (02)915-9200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재가자 역할 확대해야"

생활의례문화원, '상장례 염불 재가불자의 역할' 토론

상장례 의례에는 스님의 역할이 있고, 재가불자들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스님의 역할을 재가불자들이 대신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상장례 염불을 할 때 재가불자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6월 2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상장례 염불 재가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준영 불교인재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철원 심원사 포교국장 선현 스님,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생활의례봉사단 강홍원 단장, 조계종 법요집 편찬연구위원회 이성운 연구위원, 봉은사 지장 상조회 이종완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또, 불교생화의례문화원의 염불봉사자와 각 사찰의 염불 봉사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홍원 단장은 "상장례시 불교식 장례를 치르려는 불자들이 많은데 활동하는 스님들의 수가 적다. 또 49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불자들도 있다.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재가불자들이 상장례 염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현 스님은 "'스님들이 장례용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율이 있지만 현재 불교가 가야 할 길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회장은 "종단에서 상장례 염불시 재가자가 요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혼들이 편안함을 얻는데 가장 좋은 소리가 요령소리이다"며 말했다.

봉선사(주지 인묵) 구연회 홍문숙 회장은 "봉선사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을 통해 재가불자들이 스님과 똑같이 상장례 염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패널은 "스님들이 상장례 의식을 꺼려하고 있고, 또 포교를 위해서 재가자의 염불봉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종단에서 재가불자들이 염불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법요집 등을 만들고 통일된 의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말이 아닌 충실한 홍보대사 될 것"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 · 길거리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6월 28일 홍보대사와 함께 장기기증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대학생 봉사단, 김혜옥씨, 일면 스님, 한혜진씨, 박상민씨가 참가했다.

불교계 장기이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주최한 장기기증 캠페인이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열렸다.

장기기증 캠페인에는 일면 스님, 홍보대사 가수 박상민씨, 가수 한혜진씨, 배우 김혜옥씨와 대학생 봉사자 20여 명, 생명나눔 봉사단 보현회 회원들 10여 명이 참여했다.

홍보대사들은 인사동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홍보물 '생명을 나누세요'를 나눠주며 "꼭 읽어보시고 좋은 일 하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후덥지근한 날이었지만 인사동일대에 있던 시민들은 먼저 와서 장기기증, 생명 나눔에 관심을 보였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홍보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대학생 봉사단 장자경(성균관대 4)양은 "우리들(대학생 봉사단)만 거리 캠페인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홍보대사들이 참여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이 15년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더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을 하고 생명을 나눠 아픈 이들에게 희망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옥씨는 "연예인 홍보대사들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점을 살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장기기증을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앞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가수 박상민씨와 한혜진씨는 일면 스님에게 위촉장을 받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서에 서명하며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상민씨와 한혜진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받게 된데는 김혜옥씨의 공이 크다. 김혜옥씨가 박상민씨를 설득했고 마음을 낸 박상민씨가 한혜진씨를 설득한 것.

위촉장을 받은 박상민씨는 "말로만 하는 홍보대사가 아니라 역할에 충실한 생명나눔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혜진씨는 "처음 장기기증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절차가 복잡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부담스럽지 않다"며 "생명을 나누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건대병원법당 약사여래부처님 점안


건대병원법당 지도법사 법경 스님(능인정사 주지)이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식을 거행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한 보살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불교법당(지도법사 법경)이 6월 24일 확장이전 및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직지사 전 주지 자광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정송학 광진구청장, 병원 직원 불자회, 봉사자, 환자들과 그 가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도법사 법경 스님은 "몸이 아픈 환자의 고통을 씻어주는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전달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02)2030-7963

박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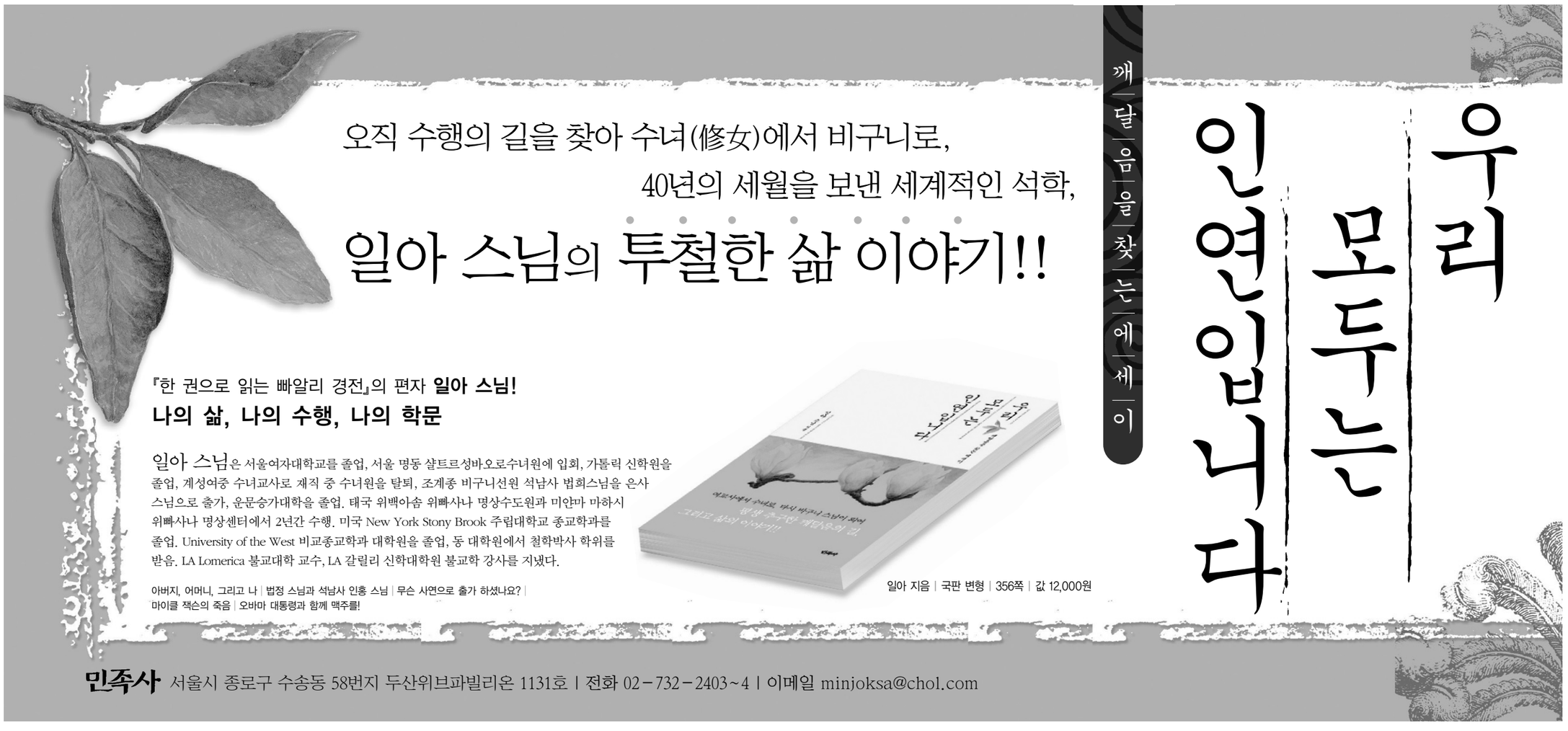
환자 · 가족들의 바람 엮은 〈소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상실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할지 모를 만큼 힘겨워질 때가 있다.

병원법당을 지키는 지도법사 스님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한 발 앞선 희망을 가지게 한다. 18년째 서울아산병원 법당을 지키고 있는 지홍 스님(서울 암사동 정향사)은 병실을 방문해 환자를 볼 때마다 "부처님, 저 환자로부터 아픔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인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온과 자비심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원〉은 병원 법당에 놓았던 소원지(방명록)에 적힌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바람을 수안 스님의 그림과 함께 엮은 것이다. 박선주 기자



교육 · 문화 · 관광에 명상 결합시키자

교불련 한국교수불자대회서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 전략' 모색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6월 28~30일 강원도 법흥사에서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법 스님



김용환 교수

현재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바른 공의와 정론은 무시되고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무모한 정책과 개발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 등의 혼돈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적 고유정서가 배어있는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한국불교와 선(禪)사상으로 건강한 정신문화를 주도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6월 28~30일 영월 법흥사에서 '조화로운 국토이용과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 전략'의 주제로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국토이용과 한국불교 명상을 교육 · 문화 · 관광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해 불국정토를 건설하고 전략적으로 한국불교 명상을 세계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다.

행사에는 김규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자연과 사회의 변화가 가져올 현대 불교문화의 발전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가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가치적 전략'을,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불교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문화관광학적 측면에서 발표했다. 이지중 한국재활복지대 교수가 '선문답의 교육적 생명력'을, 김용환 충북대 교수가 '명상의 세계 윤리적 가치'를 교육학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 밖에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중기 우빠니샤드에 나타난 명상의 의미'를, 명법 스님(서울대 외래교수)이 '한국 불교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반성과 제언'을 원혜영 연세대 인문학 연구원이 '유식과 선불교의 꿈 해석'을 불교학적 측면에서 발표했다.

#교육 · 명상 · 관광 융합은 유망산업

김규칠 교수는 급변하는 지구환경과 기후, 정신적 사유의 변화를 겪는 인간사회 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불교문화를 발전시켜야 할지를 고찰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 미학 · 심리학적 요소를 최대한 살려 사찰환경과 문화의 변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불교적 사상과 철학, 윤리도 담겨 있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미학적 요소도 담겼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가 그 당시로서 가장 현대적인 '미학적인 원리로서의 불교'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현했던 시대였듯이, 현재에는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 미학적 요소를 살려 불교를 세우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음통찰, 명상 등 불교심리상담분야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와 학습 및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가불자들의 '미학적 요소'추구를 관광 · 교육 · 명상의 융합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대는 통섭과 융합의 시대다. 명상 또한 명상만을 따로 하는 시대가 아니며 주마간산식 관광여행이나 쇼핑위주의 관광은 빛을 잃어가고 체험 · 테마관광이 각광받고 있다"며 "이러한 아이템을 살려 드라마식 다큐 등에듀테인먼트식 교육방법에 테마관광을 결합시키거나, 역사 · 문화 · 철학산책 등 산책관광과 명상을 결합해 순수 자연감상과 체험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대 최고의 유망산업분야를 개발하고 이끄는데 승속이 따로 없다. 여기서 절실하고 바람직한 것은 수행자 측에서 먼저 지도적 포용적 자세를 취하고 대중과 신도를 위해 사찰 개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찰 세계문화유산등재 가능

홍광표 교수는 "890점의 세계문화유산중 9점이 한국 문화유산이고 그 가운데 2점만이 불교문화재다. 지금부터라도 불교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불교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사찰은 유네스코가 인정할만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사찰과 차별화되는 한국사찰의 특징을 예로 들며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전략을 살폈다.

홍 교수는 "산지사찰이 대부분인 한국사찰은 중심영역의 경우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사찰이 많다. 주변환경 역시 사찰과 연관된 기능을 보이는 사찰클러스터의 형태로 나타나며 영산재 등 다양한 무형유산들이 잘 보존돼있고 마음 · 정신을 위한 수련도량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한국사찰은 여러 개의 사찰이 특정한 문화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고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이 들을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가능한 사찰들이 등재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회피한다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가 명상으로 세계시민성 함양

김용환 교수는 "명상을 통한 연대 · 관용의식과 세계시민성을 함양해 세계적 규모의 기아와 식량 문제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요가명상의 목표는 연대성 삼매(三昧)이며, 이는 곧 신비로운 비전이나 초능력을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적 제약과 한계로부터 벗어나 초월적 자아를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연대성의 깨달음은 세계시민성에서 공(公)과 사(私)를 매개하는 가치를 드러내며, 업보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으로 원생으로 살 수 있게 함으로 세계윤리의 연대성 가치를 보여준다"며 "명상을 통한 연대성과 관용성을 발휘해 상생에 기초한 시민사회구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인포교 시급

명법 스님은 미국 이민사회에서의 한국불교 포교 방안에 대해 조명했다.

스님은 "유럽에서 아랍계 이민의 증가는 이슬람 확산을 가져왔고, 미국에서는 라틴계의 증가가 가톨릭 신자의 증가를 초래했으며,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은 불교가 미국에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인의 세계화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동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이주한 이후 10년 내에 모국에서 믿어온 종교를 버리게 됨에 따라 기존의 불자들마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명법 스님은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하려는 한인들의 열망과 더불어 교회가 이민자들의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의 빈 공간을 빠르게 채워나갔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사회 내에서 불교의 존립과 세력 확대를 위해 재외 한인들에 대한 포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역이민과 조기 유학생들의 귀환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국내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듯 한인들의 영향력은 서양 주류사회뿐 아니라 모국인 한국사회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지금까지 서양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한국사회의 지도적 계층이 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세력이 확대됐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재외 한인에 대한 포교는 국내에서의 한국불교 존립을 위해서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 불교 관련 강좌가 개설돼 있으며, 가장 있기 있는 강좌가 불교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기독교가 주류이지만 대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불교가 지식인들의 주류문화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을 살펴 전 세계 한인세계의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 세력에 대응해 한인사회 내에서 불교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왕오천축국전' 내한

국립중앙博 12월 17일부터 특별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혜초 스님(慧超 · 704~787)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1283년 만에 한국에 온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12월 17일~2011년 3월 말까지 개최되는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을 맞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왕오천축국전>을 전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왕오천축국전>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1908년 프랑스 학자 펠리오(1878~1945)가 중국 둔황(敦煌) 막고굴에서 발견한 지 102년 만이다. 현재 <왕오천축국전>은 열람 신청 후 심사 등을 거친 전문연구자만이 볼 수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지난 4월 국립중앙박물관의 요청을 받은 후 17일 대여승인 심의회의를 거쳐 24일 대여 결정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세기 초 쓰여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한국인이 작성한 최초 여행기로 7세기 현장 법사의 <대당서역기>,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14세기 <이븐 바투타 여행기>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여행기 중 하나로 꼽힌다.

현존하는 <왕오천축국전>은 앞뒤가 훼손된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된 필사본이며, 총 227행으로 남은 글자는 5893자다.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펠리오가 구입한 둔황 막고굴 문서 속에 포함돼 있었으며, 1909년 12월 10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왕오천축국전> 발견에 대해 보고했다. 1915년에는 일본 다카구스 준지로에 의해 혜초 스님이 신라 승려임이 밝혀졌다. (02)2077-9278 노덕현 기자

자비도량참법집해 보물로

문화재청 보물 3건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6월 28일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 '노자권재구의(老子黌齋口義)' 등 3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 중 주목받는 것은 보물 1653호 '자비도량참법집해'로 <자비도장참법>의 여러 주석서들을 모아 정리하고 풀이한 책이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저본 활자는 <직지(直指)>를 찍은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추정된다.

금속활자본은 전하지 않지만 고려 후기 <직지>외에 또 다른 금속활자본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이날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 · 보물) 가운데 조각류 93건(국보 30건, 보물 63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으며 30일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등 5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5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을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게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어느덧 제 나이도 6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막상 뒤돌아보니 할 줄 아는 것도 해 놓은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어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어 수면제도 많이 먹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좀처럼 되지 않고, 아는 스님은 업이 많아서 그러니 팔자라고 생각하라는데 그 말이 더 상처가 됩니다. 요즘은 죽는 것이 더 행복할 거란 생각까지 듭니다.

A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 보니 많이 힘이 드셨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라고 되돌려 봤을 때 허무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날들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이겨내려고 하는 내담자는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기 위해 앞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시려고 모습에 마음이 놓이며,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시지만, 그 동안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충실히 살아오신 날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내담자께서는 어디에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봐줘야 하듯, 마음도 내가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내담자가 먼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자존감의 씨앗도 쑥쑥 자랄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나 명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나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자신을 좀 더 아껴주고 보듬어주길 바랍니다.

Q 저는 평범한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이제 자녀들도 모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래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기에 불교에 대해 잘은 몰라도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덕분인지 동기들 중 승진도 가장 빨리하게 됐고, 비교적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고 왜 살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할 처자식이 있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 걱정입니다. 제가 진정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출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A 내담자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출가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군요.

인간은 발달 단계마다 이뤄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심리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문득 자신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종교에 귀의해 재가자로서, 신행생활을 한다던지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께서는 출가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속세의 모든 지위와 위치를 내려놓고 출가를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하심(下心)입니다.

우선 내담자께서 진정으로 출가를 하시려면 먼저 나를 만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바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출가를 해서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계종으로 출가를 하시려면 50세 미만에 결혼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이혼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친권포기가 돼 있는 독신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종단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삶과 죽음 만나는 곳에 불법 전해요

행복법당 탐방

고려대 안암병원


고대의료원과 중앙대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과 법회 운영을 하는 지현 스님과 자원봉사자들. 지현 스님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고대 안암병원 법당에서 법회를 연다.

"환자는 외면하냐" 절규에 2005년 7월 고대의료원 불자회 결성

봉사하며 고려대 안산 · 구로 · 안암 3개 병동에 불교 법당 마련

부처님의 출가계기가 됐던 생로병사(生老病死). 이 고통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다. 하루에만 수십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고 환자들이 입원하며 죽음 직전의 환자들이 가족을 옆에 두고 세상을 떠난다.

6월 25일 고려대 안암병원의 하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고려대 병원법당 지도법사인 지현 스님(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부회장)은 매주 1~3주 금요일 오후 2시 법회를 열고 마지막 주 오후 6시에는 병원 불자의료진을 대상으로 법회를 진행한다.

이 날은 법회가 없는 날이라 스님을 찾아뵙거나 법당에 들러 삼배를 올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어때요 몸은 괜찮으세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았던 미얀마인 진미한씨 부부가 법당을 찾았다. 진씨는 친동생으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진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법당에 들러 3배를 하고 가요"라고 말했다.

이윽고 한 청년이 들어왔다. 지현 스님이 진행하는 BBS '거룩한 만남'에 소개된 새터민 김남철씨(26). 김 씨는 1998년 가족과 북한을 탈출해 오랜 도피생활 끝에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13세에 가족들과 도피하던 중 아버지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붙잡혀 북한에 호송됐고, 그 후 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한국으로 혼자 오게 된 김씨는 17세에 재생불량성빈혈(백혈병)을 앓게 되고 수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완치를 위해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씨는 "열심히 공부해 경찰이 되고 싶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금 뒤에 호스피스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한 수녀님이 지현 스님을 찾는다. 불자인 암환자가 스님을 찾는단다. 지현 스님과 김영찬 호스피스봉사자가 즉시 달려갔다. 온몸에 암이 퍼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40대 초반인 의식불명상태의 아내를 곁에 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

"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처님이 원망스럽기만 해요." "우리 며느리도 불쌍하고 우리 두 손주들도 불쌍하고…."

"이렇게 울어 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인은 행복한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스님도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저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이다.

1997년부터 호스피스활동을 시작한 지현 스님은 "왜 스님들은 건강할 때 절에 찾아가는 불자들은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아파서 병원에 누워 스님을 찾는 환자들은 외면하냐"는 환자들의 원망 섞인 소리를 듣고 병원 법당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 뒤 스님은 법당 개원을 발원하며 김우주 감염내과의와 신경외과 김명화 수간호사를 만나 2005년 7월 7일 고대의료원 불자회(회장 김우주 · 이하 고의불)를 결성, 병원에 법당 건립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활동이 없어 공간을 내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립불가 통보를 내렸다.

예전부터 의료봉사 · 호스피스 활동 등으로 터를 닦아놓은 이웃종교에 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불교계가 법당을 얻기는 당연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스님은 곧바로 고의불 회원들과 성지순례를 비롯해 해외근로자 봉사활동, 몽골의료봉사 등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고려대 안산 · 구로 · 안암 3개 병동에 불교 법당을 마련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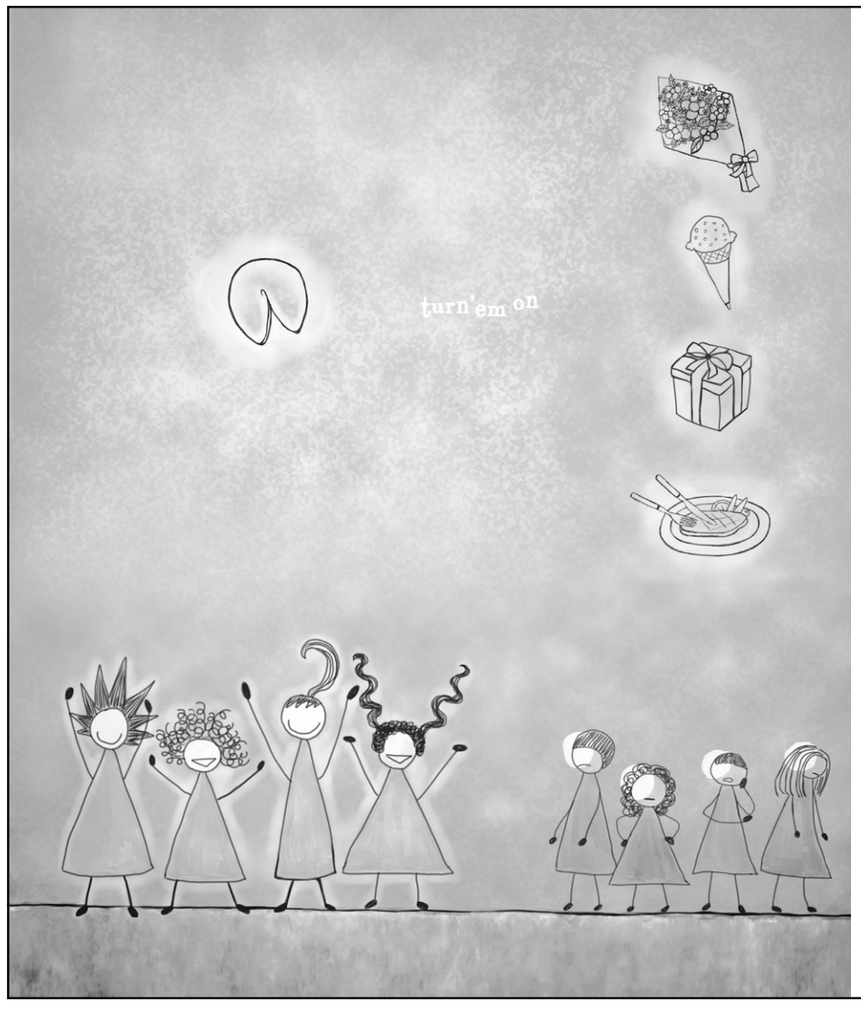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대의료원과 중앙대병원을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보고 의료진들을 위로하는 스님은 봉사를 하기보다는 배우고 가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삶과 죽음이 숨가쁘게 교차하는 병원은 그 어느 곳보다 부처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환자들을 위로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이야기 할 때 과연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깨우치게 됩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고려대의료원 불자회(고의불)는 2005년 창립이후부터 현재까지 100여 명의 교직원 및 의료진들과 함께 해외의료사각지대는 물론 노숙자 ·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국내 사찰 순회 의료봉사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만여 명 이상의 환자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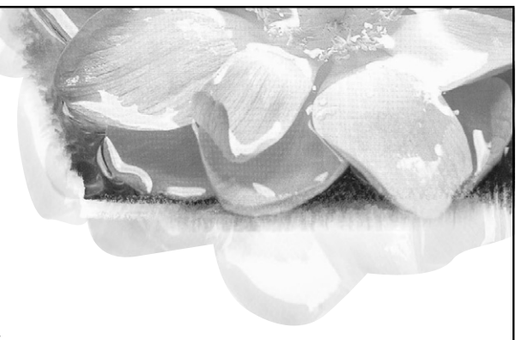
김명화 고의불 부회장은 "마음 맞는 회원들과 불자회를 결성해 봉사로 부처님법을 회향할 수 있어 좋다"며 "그러나 의료봉사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기구들은 모두 고의불 회원들의 자비로 마련된 것이다. 스님과 불자들의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소외 이웃들을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What is Buddha Cookie!!

법法 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 791 호 현대불교
2010년 7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인드라망 생활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채식요리강좌 세 번째 시간. 이도경 채식요리연구가가 재료와 요리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닭 없는 삼계탕 상상 되나요?


채식요리강좌 수강생들이 채식삼계탕과 모듬피클을 맛보고 있다.

"음~ 음~ 맛있다."

"애들이 먹으면 고기인줄 알겠어요. 신기하네."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삼계탕을 먹는 이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는다. 딱 보기에도 고소한 향기 · 맛 모두 영락없는 삼계탕이다. 그런데 삼계탕에 고기가 없다? '뭐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여름에 삼계탕 많이 드시죠? 닭고기 대신 콩에서 단백질만을 추출해 만든 콩단백으로 고기의 단백질을 보충하고, 잣으로 지방을 대신한 '채식 삼계탕'입니다."

이도경 요리사(채식요리연구가)의 소개다. 맛을 보는 사람들은 "고기는 하나도 없는데, 영양은 더 있겠다"라며 그 신기함에 놀라고, 맛에 놀라고, 호기심에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보통 삼계탕에는 대부분 찹쌀을 품은 닭이 물에 먼저 들어가지만, 채식 삼계탕에서는 나머지 재료가 푹 삶긴 후에 콩단백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다. '허. 참~ 기가 막힌 요리'다.


신선한 유기농 야채와 채소로 만들어진 한식 모듬피클은 하나만 맛봐도 밥맛이 돈다.

인드라망 생활협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채식요리강좌' 세 번째 시간. 7월 1일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량 공양간에서 채식삼계탕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요리들을 가족에게 선보이고 큰 호응을 얻은 주부들은 푹푹 찌는 공양간이 더운 줄도 모르고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콩단백은 물에 넣어 불린 뒤에 몇 번 행구고 적당한 크기로 찢어 소금, 후추, 참기름, 튀김가루나 전분으로 살짝만 조미해주세요. 기초화장 하듯 말이죠."

닭고기를 대신할 콩단백 설명에 이어 이도경 요리사는 찹쌀, 대추, 생강, 황기, 밤, 인삼의 효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황기는 기가 허해 땀이 많이 날 때, 대추는 짜증이 날 때 신경 진정제로 사용하시고, 인삼 · 밤은 체력 보강에 좋습니다. 생강은 창자를 데워주기 때문에 생식 등으로 가스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먹으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마른 생강을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둘러 볶으면 그 효력은 더욱 뛰어나지요."

요리 지도사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까 참가자들은 꼼꼼히 적어 내려간다.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삼계탕이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어 '모듬 피클' 요리도 소개됐다. 재료는 모두 인드라망 생협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이용했다. 보기만 해도 자연의 신선함이 전해졌다. 자리에 앉아 있던 참가자들이 벌떡 일어나 선생님 옆을 둘렀다.

"채식의 육수 재료는 다시마, 표고, 무가 기본입니다."

무, 오이, 깻잎, 사과, 셀러리, 양파, 버섯을 뚝뚝 크게 썰고, 간장, 식초, 설탕, 물을 넣고 은근한 불에 올렸다. 꽤 긴 시간 수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참가자들의 집중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이도경 요리사는 2가지 요리가 익는 동안 건강과 음식을 주제로 수업도 진행했다. "채식은 지혜와 자비를 샘솟게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채식은 인간 외의 모든 존재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채식은 곧 만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대승의 실천입니다."

이씨는 채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라며 "채식은 나의 건강은 물론 가족, 지구의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치질이나 변비에 걸리기 쉽습니다. 배를 눌러봐서 아픈 곳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배 마사지를 해서 소변과 대변으로 독소를 풀어내려면 채식을 해야 합니다. 현미잡곡, 검은콩, 녹두, 도토리 등의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등산으로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천연 해독작용을 해 있던 병도 사라집니다."

정신을 맑게 하는 채식강좌 인기
"지구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행"

재료의 효능이나 자연의 섭리를 이용한 조리법, 자가 치료법 등 다양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채식 삼계탕과 모듬 피클이 완성되고 있었다. 끝내주는 향이 교육도량에 솔솔 퍼지고 있었다. 침이 꼴깍 넘어 간다.

시식을 한 참가자들은 신선한 자연의 맛, 고기 없이도 뛰어난 영양을 갖춘 채식요리에 반했다. 지도사의 시범과 설명에 이어 시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세 명씩 짝을 이뤄 실습에 들어갔다. 집에 가져가 가족들에게 맛보일 생각에 몸도 마음도 바빴다.

권성은 씨는 채식 요리를 배울 곳이 거의 없어 신설동에서 이곳까지 먼 길 마다하고 찾아왔다. 가톨릭 신자지만 평소 채식에 관심이 많았던 권 씨는 "인드라망 채식요리 강좌를 통해 채식 위주의 맑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애들이 잘먹고 좋아하니까 참 행복하다"고 말했다.

고기 요리는 빠르고 편한 만큼 나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 채식요리는 손은 조금 더 가지만 인류를 위한 자비행의 첫걸음이었다. 참가자들은 채식으로 나의 건강은 물론 지구와 모두를 위한 행복의 지름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791-102010.7.510:53AM페이지1(1,1)

문경 김용사 대성암 금당 문화재 지정

문경 김용사 대성암 금당이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문경시는 최근 "19세기 후반 중창된 김용사 대성암 금당은 본채와 승려 거주 공간인 요사채의 창호 구성 등 문화재적 가치가 돋보여 문화재자료 제57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성암 금당은 건물 1동의 면적이 397㎡로 경북 북부지역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가장 크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문회 · 템플스테이 대불련 원광대 불교학생회



원광대 불교학생회 동문회가 익산 숭림사에서 예불을 봉행하고 있다.

대불련 원광대 불교학생회 불일사 동문회(회장 차봉기, 경주 동산한의원장)는 6월 26~27일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 원광대 대불련 재학생 및 동문 50여 명이 동참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참선, 다도, 108배, 발우공양, 둘레길 탐방 등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동문한마당 행사 및 불일사동문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원광대 불일사 동문회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정완섭(55세, 펭귄종합식품 지사장), 부회장 정인택 호남제주지부장 · 고형태 서울경기강원지부장 · 윤상희 충청지부장 · 황대룡 경상지부장, 사무총장 최종인(한서대 교수), 사무국장 김원우(우리불교 편집국장)를 각각 선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래하는 스님들의 열정적인 무대

불교NGO센터 건립 추진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음악회

불교NGO센터 건립을 위한 '맑고 향기로운 노래이야기'가 빛고을의 여름 밤을 감쌌다.

4대강 반대 운동이 불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일)는 7월 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생명 평화를 알리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0여 광주 시민과 불자들이 행사에 참여해 뜻을 같이했다. 맑고 아름다운 선율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불교 NGO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3000여 광주 시민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음악회는 종성 스님의 법고시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부루나합창단과 로터스합창단의 '새로 나게 하소서', '청산은 나를 보고'등의 혼성화음공연으로 분위기는 고조됐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범능 스님, 심진 스님, 지연 스님,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출신 시명 스님 등은 열정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객석은 물론 통로까지 가득 메운 신도들은 불편한 것도 다 잊고 스님의 공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범능 스님은 마지막 노래손님으로 무대에 올랐다. '꽃등 들어 님 오시면' 등 3곡을 선사한 스님의 음성공양에 신도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관음무용단의 '홀로 핀 연꽃', '마음의 혼불이 돼'등 관음춤도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과 관객들이 함께 부르는 '아미타불 나의 님'이 대극장에 울려 퍼졌다.

법일 스님은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리 이웃과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데 대안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는데 주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불교의 사회적 참여를 담보해갈 '불교NGO센터' 건립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행사를 통해 생명평화 사상을 알리고, 각 사찰과 신도들의 자발적 성금이 모아져 불교 대중화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는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경담 스님(선암사 주지) 등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호남지역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선암사 등 7개 본사 및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지역 사찰의 적극 후원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구자의 역할 하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봉준엽 신도회장 취임



"백양사가 한국불교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6월 26일 대웅전에서 봉준엽 신도회장(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방장 수산 스님, 시몽 스님을 비롯해 김양수 장성군수 당선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회장단 임명장 수여, 격려사, 취임사, 전도선언문 낭독, 미래의 백양사를 생각하는 결의문 낭독, 잉어방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신도회의 새 출발을 기념해 임원들이 전도선언문과 '미래의 백양사를 생각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수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취임하는 마음이 깊어 원하는 일 남음 없고, 세상 벗어나 곧 바로 대우차(大牛車)에 오른다. 성문(聲聞)은 홀로 진흙 속의 말에서 벗어나지만, 보살은 괴로운 바다의 고기까지 구제한다. 기꺼이 버린 사람 상락(常樂)의 언덕에 오르고, 원수진 사람 친한 사람 묘한 진여(眞如)를 깨닫는다. 그 공덕 어디서 오는가 고요히 생각하면, 텅 비고 또 비어 저 태허(太虛)밖이네" 라고 게송했다.

봉준엽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도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10년 후의 백양사, 100년 후의 미래상을 단계 · 연차별로 계획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봉준엽 회장은 83년 전남 영광, 광양, 구례군수와 전남도의 여러 국장을 역임하고 대주건설 사장, 송촌건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신사리 친견 나한전 낙성 법회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는 6월 27일 군산지역스님과 불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나한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성흥사 나한전은 연못 중앙에 부도형 진신사리탑을 조성하고 연못 주위로 아미타불을 비롯한 불보살과 16나한 등 30여 기를 석재로 조성했다.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은 "향후 수련센터, 문화센터, 명상센터, 복지센터 등을 건립해 복지와 전법의 도량으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흥사에 봉안하게 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와지리기 사원 스리랑카 담마사와 승정으로부터 쓰나미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기증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회갑에 나눔의 잔치를 연 김은희 불자

나눔으로 하나된 특별한 회갑연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회갑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준 주인공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광주생명나눔) 후원회장과 원효사 자리이타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은희 불자(불명 진여성, 무등산 '절로 가는 길' 대표 · 사진)이다.



김은희 불자는 6월 23일 자신의 회갑잔치를 대신해 독거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도리어 더 힘든 독거어른들에게 수연을 베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모아준 회갑잔치비용을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으로 1000만원,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하는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에 200만원,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 북녘어린이 콩우유 지원기금으로 써달라며 100만원, 병고에 지친 환자들에게 차를 봉사하는 조선대 차 봉사팀(팀장 문금자) 등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회갑에 새로운 의미를 더한 이번 행사는 30여 년전 김은희 불자가 아픈 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롯됐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나갈 수 있다면, 만일 이 아이가 자라서 내가 60이 되는 해에,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있으면, 이 아이처럼 아픈 아이들에게 회향을 하겠다' 고 부처님께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킨 것 뿐이에요."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안 자식들이 효심을 더했고 아주 특별한 자비나눔의 수연이 펼쳐지게 된 것.

김은희 보살은 이미 광주에서 봉사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는 봉사자이다. 광주생명나눔의 후원회장을 맡아 소아암백혈병어린이돕기 모금활동과 후원자 모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원효사 자리이타 봉사단 단장으로 광주공원과 산수시장 등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불교계의 대표적 봉사자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김은희 보살은 2009년 여성불교개발원이 선정한 전국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수연은 독거어른들을 위한 위안잔치로 시작됐다. 가수 주권기씨 등의 축하공연과 각 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점심시간에는 어른들에게 전복 삼계탕과 찰밥, 산나물, 떡 등으로 음식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희 불자의 가족들과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동원사 주지 지각 스님, 흥룡사 주지 상운 스님과 봉사자 50여 명도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18년 전 현지 스님을 도우며 시작된 광주공원 무료급식은 이제 인근 어른들이 찾아오는 '맛있는 밥상'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리이타 봉사단을 통해 고아원, 영아원의 봉사와 노인시설의 목욕봉사 활동과 광주생명나눔을 통한 소아암배혈병 후원사업은 김은희 불자의 새로운 사명이 됐다. 새로운 갑을 맞이하는 김은희 불자에게 광주불교계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더 많은 불자들이, 더 많은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김은희 불자의 바람처럼, 광주불교를 나눔의 잔치무대로 만드는 원력보살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자들은 이를 '정토'라 말할 것 같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영가등



왕생극락접등

불교(佛敎)에서의 백중일 유래(由來)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비구(目蓮比丘)가 지옥에 떨어진 모친(母親)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오미(五味)를 가진 음식과 온갖 과실(果實)을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供養)을 했다는 〈우란분경(盂蘭盆經)〉이라는 불경(佛經)의 이야기에서 연유(緣由)합니다.

※ 백중을 맞이하여 영가등 · 왕생극락접등 주문 받습니다.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피부색 차별하지 않았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이주민 정책 토론회


비영리민간단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6월 12일 구미역 광장에서 경북 거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족, 시민들과 함께 2010월드컵 한국전 응원전을 열어 인식 개선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생명 있는 모든 것,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나, 길고 커다란 것이거나 중간이거나 또는 짧고 작은 것이거나,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 걸고 구하듯이 모든 존재들에 한량없는 마음을 내야 한다." <자비경>

부처님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피부색이나 계급 등에 따른 차별적 관행을 깨고 평등을 실천했다. 하지만 2000만 불자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불교적 접근과 활동은 미비하다. 한국에서 활동한 이주 노동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인은 싫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왜 이주민들은 자비심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일까?

이주민 120만 사회를 맞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 주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지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혜경 스님은 개회사에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이 때 국가정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대회사에서 "현장 활동가는 물론 많은 이들이 이주민의 인권 등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보편적 인간존중 바탕한 다문화주의 모색해야
불교에 걸맞는 이주민 정책 개발 필요성에 공감

#이주민 인권과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이주민의 인권과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이주민도 기본권에 의한 보장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이주자가 법적으로 국민의 지위를 누리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를 개선해야 하고, 인권적인 면에서는 사회적인 차별의식과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 온 우리 사회에 다른 문화 집단과의 문화, 사고방식, 습성, 풍속 차이에서 대한 차별 의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다문화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돌봄의 대상, 제한적이거나 배제적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이 대표는 "이주민들은 문화적인 타자,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중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인권 향유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대표는 우리 사회의 인권이 서구에서 정의한 인권이라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불교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서구의 인권관이 인권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의 법적 · 제도적 실현이지만 불교의 연기(緣起)는 합법칙적 인권으로 재구성 가능하다"며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주상보시의 힘은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교적 실천은 중생(인권피해자 또는 사회적 소수자)이든, 보살(사회적 의무자)이든 모두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에 있다"며 "인권실현을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자 보살행이다. 사회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뤄진 인권실천 공동체가 사회적 차별 관행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는 토론에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은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의 실현이 곧 인권실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통하는 바를 남에게도 행하라' '내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도 행하라' '내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자통지법(自通之法)'의 가르침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고 덧붙였다.

 # 다문화 시대 불교계의 역할

이혜숙 불교아카데미 학술이사는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혜숙 이사는 "국제결혼 급증에 따른 다문화사회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심주의 문화 등을 보편적 가치로 두는 단일중심주의의 다문화주의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다중심성에 입각한 다문화주의 모색"을 제안했다.

이혜숙 이사는 "이주민(외국인)이 주류사회에 동화 · 적응 · 통합되는 것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거주민(한국인)이 이주민들에게 적응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계가 △사찰, 불자들을 중심으로 조달할 수 있는 '내부자원'과 정부의 정책과 제도 등에 비롯된 '공적 자원'을 파악하고 배치할 것 △사찰은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정책 홍보와 서비스 알선의 마당이 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어 이혜숙 이사는 "사찰과 종단차원에서는 포교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실무자 전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실무자들을 위한 사업 아이템도 소개했다. 그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은 통역, 언어교육, 양육 등을 도와주는 멘토, 이주민 간의 결연사업, 불교계 단체와 외부 단체와의 교섭을 제안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불교계 이주민 지원 현황

100명 중 8명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전체 결혼의 40%이상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 이주민 단체 등 현장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대책은 막연한 당위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불교계가 주목해야할 점은 여성결혼이주자 중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나 불교 정서가 강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주민들에게 불교를 통한 사회적 안정감이나 정착의 기회는 적었다. 불교계의 관심이 미약한 만큼 사업 전개 시점도 타종교에 비해 10여 년이나 늦게 출발했다. 그만큼 외형적으로도 들어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개소 중 불교계는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 소 중 불교계 4개, 400여 민간단체 중 불교계는 40~50여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교계의 역할은 주목된다. 이주민 지원사업이 교회 중심의 시민단체나 관주도 지원으로 일방적인 교육이나 베풀어주기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이주민 시원사업에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거부감 없는 환경 제공에는 불교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이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이 가장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재한 외국인 스님을 중심으로 열린 공간 제공 자국법회 개최는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의 창을 제공은 정신적 의지처 이상의 역할이 기대된다.

● 불교계 이주민 지원활동 사례

이날 토론에는 불교계에서 이주민 사업을 비교적 활발히 펼치고 있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전등사, 화계사, 캄보디아 · 네팔 · 몽골 법당의 현재 모습 소개,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오산행복한이주민센터,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 반갑다연우야, 부천 외국인노동자의집 등에서의 활동을 소개했다.

사찰에서 진행하는 이주민 사업은 단기성 행사, 한국불교 문화 소개 및 체험, 문화 축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어 교육, 의료지원서비스, 컴퓨터교육, 일자리 제공, 한국 음식 수업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곳도 있다. 캄보디아 · 네팔 · 몽골 법당에는 조계종단, 사찰 등에서 일부분의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이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이주민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이금현 자비의집 사무국장은 "이주민들은 건강, 임금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실제 몇 개의 사찰에서는 각 사찰의 성과성 사업으로만 풀어나가고 있다. 불교계의 연대를 통한 사업을 빨리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몽골 간단사원 한국지부 서울포교당 대표 바트보양 스님은 "이주민이나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몽골 공동단체를 만드는 데 한국 불교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가톨릭 활동 사례

김선임(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씨는 주제발표 '혜화동 공동체'에서 가톨릭계가 필리핀 이주 노동자 공동체인 '혜화동 공동체'에서 보여준 이주민 돕기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계의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혜화동 공동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을 이끌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인 가톨릭이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혜화동 공동체'는 1992년 자양동 성당 미사에 참석한 필리핀인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재한 필리핀인들은 가톨릭 서울대교구와 세계적 네트워크(과달루페 외방선교회, 메리놀 외방선교회, 필리핀 외방선교회)를 갖춘 가톨릭계의 체계적 지원으로 자신들의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혜화동 공동체'를 통해 가톨릭계는 성당의 예배 공간은 물론, 사무실 및 쉼터 공간까지 확보해줬다.

'혜화동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혜화동 로터리 일대에는 혜화동 성당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3000여 필리핀인들이 모여든다. 필리핀이주노동자 전담병원인 '라파엘 클리닉'은 서울대병원 가톨릭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일요일에도 송금서비스를 해주는 은행, 지역조직, 등의 공간까지 마련됐다. 가톨릭계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김선임씨는 "불교권 동남아 이주민이 많은 한국에서 종교를 통한 이주민 정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불교계의 연대를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복 지음(270면)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療法

빛 살림
정 正 골 骨 요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C791-122010.7.510:54AM페이지1(1,1)

모든 것들이 시간의 먼지를 털며 되살아난다

소설가 조정래가 나고 자란 곳
⓭ 순천 선암사(仙巖寺)



소설에서 들려오던 쇠북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예불이 시작됐다.

"너, 부처님 앞으로 가라."
"예에에……?"
"그 험한 난리 속에서도 너희 여섯 형제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었다. 장남은 좀 그러니 차남인 네가 가는 게 좋겠다."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는 스님이 될 뻔했다. 고등학생 조정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저항했다. 스님이 되고 싶지 않다고. 글을 쓰고 싶다고.

조정래(1943~)는 선암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조종현은 선암사의 부주지(철운 · 鐵雲)였고, 시조시인이었다. 비구였던 철운 스님은 일제의 종교황국화 정책에 의해 대처승이 됐고 조정래는 태어났다. 그는 "그러니까 저는 일제의 은혜(?)로 풍경 소리와 목탁 소리를 태교 삼아 태어난 목숨입니다"고 했다.

비에 젖은 승선교가 안개에 업혀 저녁을 기다리고, 일주문처럼 서 있는 강선루의 처마 끝은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선암사는 백제 성왕 5년(527)에 아도화상이 현재의 비로암에 터를 잡아 창건했고, 해천사(海川寺)라 했다. 도선국사가 지금의 터에 중창을 했고, 의천대각국사가 선암사로 중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정래는 선암사에서 오래 살지 못했다.
"그 때 제 나이 겨우 여섯 살이었는데, 총을 겨눈 군인들의 발길질에 걷어채어 나뒹굴며 끌려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법일 스님이 해방 후 좌익으로 몰려 고초를 겪는 이야기는 아버지 철운 스님의 이야기다. 철운 스님은 "사답(寺畓)을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가 좌익으로 몰려 고초를 겪게 되고, 그 일이 있은 후 그의 집안은 선암사를 떠나게 된다.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후, 이 땅은 이념의 대립으로 몸부림친다. <태백산맥>은 그 몸부림의 이야기다. 그는 소설에서 좌익 빨치산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가 아닌 계층간의 갈등으로 해석했고, 그 갈등의 근원은 생존이 걸린 '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소설의 중심이었던 땅에는 선암사도 있었다. 소설가가 된 그가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이 어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조정래의 대표작인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은 모두 방대한 분량의 대하소설이다. 주로 이 땅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있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등 어린 시절에 겪었던 슬픈 역사가 그의 문학적 토양과 작가의식의 저변이 됐고, 훗날 그는 멀어진 그 기억들로 소설을 썼다.

"저는 20년 동안이나 방에 갇혀 술 한 잔 안마시고 글을 썼어요. 그뿐인가요. 평생 주색잡기라곤 한 일이 없습니다. 뭐 별 이야기는 아니고 승려가 되었더라도 충실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 그는 출가하지 않았지만 그의 뼈마디에는 기억할 수 없는 시절부터 들어온 선암사의 풍경 소리와 목탁 소리가 배어 있다.

"저는 사실 글을 써오는 40년 동안 가끔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승려나 신부의 수도 생활이라는 것이 뭐 별것이겠는가…. 글 감옥에 갇혀 절연 상태로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수도가 아닐 것인가." 그는 수도하듯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의 소설에는 스님이 나오고, 부처님 말씀이 나오고, 선암사가 나온다. "사철 맑은 물이 촬촬 흘러내리던 개울, 물에 비치는 그림자까지 합치면 보름달 같은 원이 되던 두 개의 쌍둥이 다리 승선교(昇仙橋), 햇살이 스밀 수가 없도록 울창하던 길고 긴 숲길,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짙게 퍼지던 대웅전 앞뜰의 수국꽃 향기, 항시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던 본존불, 겨울새벽의 냉기 속을 슬픈 울음이듯 끝없이 울려퍼지던 쇠북소리…. 젊은 날의 기억들을 보듬고 있는 선암사의 모든 것들이 시간의 먼지를 털며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가 먼 기억으로부터 불러온 소설 속의 선암사가 안개 숲 너머에 그렇게 있었다.

선암사에 간다면 눈에 비친 선암사의 풍경을 선명하게 간직해서 돌아올 일이다. 멀어지는 것이 기억이지만 잊히지 않는 것 또한 기억이다. 한 작가의 멀어진 기억이, 하지만 잊히지 않았던 기억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 쯤은 읽어야 할 소설 한 편을 만들었다. 쇠북소리가 들려왔다. [인용문 출처: 태백산맥 · 황홀한 글 감옥]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물에 비치는 그림자까지 합치면 보름달 같은 원이 되던 승선교가 안개에 싸여 있다.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2>

누가 특별한 자리에 있는가?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가섭 존자는 아난에게 법을 전했다. 그렇다면 일러보아라. 달마는 누구에게 전했는가?"
학승이 물었다.
"2조가 골수(髓)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2조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조주 스님이 거듭 말했다.
"달마의 밖에 있는 자는 가죽(皮)을 얻고 안에 있는 자는 뼈(骨)를 얻었다는 말이 있다. 자, 일러보아라. 다시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얻었느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골수(髓)를 얻는 도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만 가죽을 보고 알아라. 노승은 이곳에서 골수(髓)조차 세우지 않느니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골수(髓)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는 가죽조차 찾을 수 없다."

師示衆云 迦葉傳與阿難 且道 達磨傳與什麽人
問 且如二祖得髓又作麽生
師云 莫 謗二祖
師又云 達磨也有語 在外者得皮
在裡者得骨 且道 更在裡者得
什麽
問 如何是得髓底道理
師云 但識取皮 老僧者裡髓也不立
云 如何是髓
師云 如麽皮也摸未著

선사들은 무엇을 얻는 것은 없다
깨달았으나 깨달은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

이 선문답에는 3가지 주제가 차례로 드러나 있다. 첫째는 2조 혜가 스님이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문답이다.

조주 스님은 2조 혜가 스님을 비방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선사들은 대체로 무엇을 얻은 것은 없다. 어떠한 사실을 깨달았으나 깨달은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화제는 무엇이 골수적인 법인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골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니 다만 가죽을 보고 골수를 깨우치라고 말했다. 조주 스님은 골수조차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이 골수법인가? 선의 이치를 아는 자라면 원래 골수법은 있지도 않고 골수라는 말도 필요 없다고 설할 뿐이다.

세 번째 화제는 학승의 어리석은 질문에 질책을 주고 마치는 것이다. 앞에서 그토록 자세하게 골수에 대해 말했건만 막판에 가서 또 "골수가 무엇인가"하고 묻고 있는 것을 질책한 것이다. 그렇게 입이 닳도록 골수가 없다 해도 중생은 끝없이 골수에 집착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교정해준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그와 같이 당당하게 계시는 것이 화상의 바른 자리(正位) 아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지만 이것을 수긍하지 않는 자가 있음을 아는가?"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특별한 자리(別位)가 있다는 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가 특별한 자리(別位)에 있는 자인가?"
학승이 말했다.
"누가 특별하지 않는 자리(不別位)에 있는 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뭐라고 부르던지 그대에게 일임하겠네."

問 與麽堂堂 豈不是和尙正位
師云 還知有不肯者麽
學云 與麽卽別有位
師云 誰是別者 誰是不別者
師云 一任叫

여기서 말하는 정위(正位)는 바른 자리, 바른 자세, 바른 지위 등의 뜻이 있다. 별위(別位)란 정편(正偏)을 떠난 도(道)의 본래 자리를 말하고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안주하는 자리이다. 이 대담은 조주 스님이 법상에 앉은 모습이 마치 부처님 같고 모든 성인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학승이 조주 스님을 온당한 부처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담이 시작됐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자네의 그런 표현은 좋아. 평상시 내가 말하던 바와 같네. 그러나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일면 그것을 수긍하지 않는 자가 있음도 아는가?"하면서 "선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네의 말이 틀리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아는가?"하고 점검해 본 것이다.

그러자, 학승이 "그렇다면 별도의 자리(別位)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하고 예리한 반론을 펼쳤다. "특별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틀린 것인데, 노화상께서 지금 특별함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반문성 질문은 선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다. 단 한 번의 행위로 막고 찌르는 것을 동시에 행하는 선객들의 전형적 질문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 역시 오랫동안 경험이 풍부한 노화상이라 학승의 공격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거듭 예리한 답변으로 반격했다. "누가 특별한 자리에 있는 자란 말인가?"하고 점검을 가했다. 학승 역시 끝까지 왕자(王子)의 패기를 잃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특별하지 않는 자리(不別位)에 있는 자란 말입니까?"하고 반문해 바른 자리라든가, 바르지 않는 자리 따위는 원래 없지 않느냐고 일갈을 토했다.

그때서야 조주 스님은 점검을 끝냈다. "그렇기는 하네만 그 자리는 무엇으로 불러도 좋은 거야" 하면서 선사들의 자유자재하게 쓰는 경지를 엿보게 해줬다. 이러한 대담을 통해 학승은 장차 후배와의 선문답에서 또한 자유로운 방편을 구사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상상(上上)근기는 한 번에 문득 바꿉니다만 하하(下下)근기가 올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상상근기인가? 하하근기인가?"
학승이 말했다.
"원컨대 화상께서 대답을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없는 것이잖아."
학승이 말했다.
"저는 7천리 바깥에서 왔습니다. 막 다루지 말아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그렇게 묻는데 어찌 막 다루지 않겠는가?"
학승은 하룻밤 자고 곧 떠나버리고 말았다.

問 上上人一撥便轉 下下人來時如何
師云 汝是上上下下 云 請和尙答話
師云 話未有主在 云 某甲七千里來 莫作心行
師云 據你者一問 心行莫不得麽 此僧一宿便去

여기서 학인은 "하하근기가 올 때 선사는 어떻게 가르침을 주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지만, 조주 스님은 하하근기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부득이 자신이 하하근기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직접 가르침을 주겠는데, 찾아온 객승은 자신이 상상근기인지 하하근기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써 조주 스님은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❹ 전법보기

최고의 북종 전등사서

〈崔古〉

보리달마를 시작으로 하는 중국 선종은 이후 8세기 초까지를 소위 초기선종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시대에는 이미 번역된 <유마경> <능가경> <열반경> <반야경> <좌선삼매경> <선비요법경> <화엄경> <법화경> <사익경> 등 다양한 선경을 바탕으로 해 선법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이다. 특히 <능가아발타라보경>의 전승을 중심으로 능가종의 전통이 수립되면서 번역자인 구나발타라를 시조로 하는 일군의 선풍이 등장했다. 소위 북종의 전통을 계승한 일파에서는 <능가인법지> <전법보기>(713) <능가사자기>(716)의 전등계보를 내세웠다.

이와 같은 모습은 돈황에서 방대한 선문헌의 발견과 더불어 보다 확실해졌다. 20세기 초에 돈황에서 발견된 선문헌의 가치를 처음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일본의 야부끼 게이키(矢吹慶輝)이다. 그는 <삼계교연구>(1927) <명사여운>(1930) <명사여운해설>(1933) 등을 통해 돈황불전의 연구에 큰 업적을 보였다. 또한 스즈끼 다이세츠 박사의<교간소실일서>(1936) 등을 바탕으로 해 <강좌돈황>의 여덟 번째 시리즈로 <돈황불전과 선>(1980)의 연구서가 출현됐다. 그 기초자료는 대부분 영국의 스타인 발견본 및 프랑스의 페리오 발견본이었다.



김지하 시인의 달마도.

이 가운데 부정관을 중심으로 설해진 <선요경>은 경전의 형식을 취한 8세기 초기의 선록이다. 이 밖에 <대승무생방편문> <대승북종론> <이입사행론> <달마선사론> <절관론> <대승무생방편문>, 경조두비의 <전법보기>(713), 정각의 <능가사자기>(716) 등 수많은 자료가 발굴됐다.

이 가운데 <전법보기> 1권은 소위 북종의 전등사서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 성립연대는 상세하지 않지만 개원 초년(713)으로 추측되며, 12단락으로 나뉘어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귀경계 2.서문: 진리는 문자와 경론과는 달리 무상승(無上乘)의 심지를 전하는 사람만이 얻는다. 불세존-아난-말전지- 나바사 등 인도의 전등을 서술하고, 또한 보리달마-혜가-승찬-도신-홍인-법여-신수로 이어지는 중국의 부법상승(付法相承)을 서술한다. 세간에 유포된 <달마론>에 대해 비난한다. 3. 목록 4. 보리달마: 숭산의 달마에 본격적으로 사사한 사람으로서 도육(道昱)과 혜가의 이름을 언급한다. 혜가의 단비구법(斷臂求法)에 대해 달마는 방편으로써 혜가의 마음을 곧바로 깨우쳐준다. 혜가에게 심요로서 <능가경>을 전수한다. 벽관과 사행에 대해 비판한다. 달마가 북위의 불교계로부터 기피돼 독해를 받는다. 천화한 날에 송운이 총령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달마를 만난다. 5. 혜가: 달마가 서쪽으로 돌아간 후에 혜가가 소림사에 주석한다. 혜가의 교화방법은 상대방의 모든 근기에 응했으며 그것을 기록한 제자가 있었다. 개오한 제자로서 향거사, 화공, 요거사 등 다수가 있다. 승찬에게 <능가경>을 전수해 4대 이후에는 형식화될 것을 예언한다. 6. 승찬: 북주파불 때 10여 년 동안 산에 은거한다. 개황 초년에 정선사와 함께 환완공산에 은거해 시자였던 보월을 제도한다. 7. 도신: 개황 연간에 환공산의 승찬에 사사해 깨친다. 도적들에 포위됐을 때 자사에게 <반야경>을 염송토록 한다. 기주 쌍봉산에 주석하자 법현 및 선복 등이 참여한다. 문인에는 항상 좌선을 장려한다. 입멸에 즈음해 홍인에게 전법한다. 두정륜이 비문을 찬술한다. 8. 홍인: 도신으로 사사할 때부터 작무와 좌선을 장려한다. 후에 많은 귀족들이 참문한다. 교화의 방법으로는 질문에 상응해 그대로 도에 이르게 한다. 법여에게 법을 전수한다. 9. 법여: 숭산 소림사에 주석하자 동도의 고덕인 혜단이 참문한다. 교화의 방법으로는 방편을 활용해 직지인심 시킨다. 입적 때에 문인들로 하여금 신수에게 참문하도록 권장한다. 10. 신수: 홍인으로부터 전법한 후에 오랫동안 개법하지 않다가 법여의 입적 이후에 비로소 개법한다. 후에 측천무후가 귀의한다. 입적하자 중종은 도문사를 세워 대통선사라는 호를 내린다. 11. 총론: 진리의 체득은 문자언어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한다. <원각경>에 대해 비판한다. 달마는 경론을 떠난 입장에서 직접적인 실천법을 설하고, 우수한 제자에게만 법을 전한다. 홍인 이후의 법문은 널리 열리고 염불정심(念佛淨心)의 방편이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수해들이 우둔한 자가 많은 것은 혜가의 예언이 통한 것이다. 이 책의 편집은 일찍이 친우의 명에 따른 것이다. 신수 문하의 훌륭한 모습은 <능가경>의 소설에 합당하다. 12. 종남산귀사대통도수화상탑문: 이와 같이 <전법보기>는 소위 북종의 법맥을 정통으로 간주하는 전등사서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734년 활대의 종론을 전후로 해 남종이 세력을 확보하면서부터 더 이상 계승되지 못했다.

이후로는 <돈황본단경>(780)-<보림전>(801)-<조당집>(952)-<경덕전등록>(1004) 등으로 계승되는 남종의 정통을 주장하는 전등사서가 출현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Ⅱ·Ⅲ·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래정(來情)·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齊)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 만을 구입·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획득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메모)** 또한 백미 입니다!



구입·승인·교환 안내 : 051)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토론 통한 '공동번역' 시대흐름 따라잡는 지름길

지상중계

봉선사 '인본욕생경' 시역고 강평회

월운 스님 후학 20여 명과 '시역고' 공개토론
"고전경론 다룰 상설기구 종단차원서 설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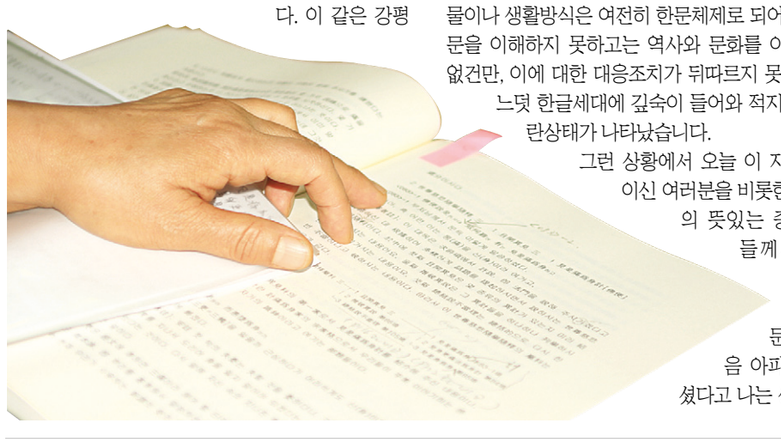
스승의 높이와 깊이가 눈에 보인다면 무참한 일이다.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생각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없는 스승의 경지 앞에서 후학들은 존경과 분발심을 용출시킨다. 스승의 향훈(香薰)이 주는 무량한 감동은 후학들을 6월의 방초(芳草)처럼 자라게 한다.

교종 본찰 봉선사. 6월 28일 봉선사는 교종 본찰의 진면목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강학(講學)의 전통이 점점 흐려지는 시절이지만, 보기 드물게 '시역고(試譯稿) 강평회(講評會)'를 개최한 것. 한 사람이 먼저 번역한 원고를 여러 사람이 나눠보고 각자의 견해를 토론해 최종적으로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이 '시역고 강평회'다. 경전 번역의 객관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의견 절충이 안 될 경우 번역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준이나 지위가 엇비슷한 사람들이 강평회를 하는 경우라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각자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경해 마지않는 스승이 시역고를 내고 후학들이 강평을 한다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스승은 스승대로 자신의 체면을 생각지 않고 초벌번역을 후학들에게 보이는 것이 쉽지 않고, 후학들 역시 스승의 미완성 원고를 난도질(?) 하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상의 역경을 위한 발원 하나로 사적인 감정과 입장을 배제한다면 체면과 입장쯤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인본욕생경(人本欲生經) 시역고 강평회'.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체면을 버렸다. 그 후학들도 불법 앞에 평등한 학인으로 마주 앉았다. 강평회는 당일 준비된 것이 아니다. 월운 스님이 시역한 원고를 책으로 묶어 후학들에게 배포하고 토막토막 책임을 지웠다. 후학들은 우선 원고 전체를 정독하고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고 연구하며 잘잘못을 가려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8일 봉선사 운하당(雲霞堂)에서 강평회를 연 것이다. 이 같은 강평회를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을 지키려는 몸짓쯤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체면을 던지고 강평회를 마련한 월운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 한다. 오전에 열린 입재식에서 스님은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이것으로 인터뷰를 대신하자고 했다)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여러분의 덕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서로 힘을 합쳐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분석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힘을 모아 부처님의 은혜에 소분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에 불교가 처음 들어 올 때에는 한문에 의해 전해졌고, 우리 사회의 문물제도 역시 한문을 위주로 전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포교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스님들도 그런 추세에 따라 입산하자마자 경전을 배우는데 이질감이 적었고, 나중에 대성해 중국불교학자들과 학문을 교류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속에서 한문교육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 되었듯이 사원 역시 입산하는 이의 수도 줄었거니와 입산 연령이 높아져서 종전의 교육과정을 소화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교육의 공백상태가 시작된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리체계나 역사문물이나 생활방식은 여전히 한문체제로 되어 있어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없건만,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뒤따르지 못한 채 어느덧 한글세대에 깊숙이 들어와 적지 않은 혼란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비롯한 상당수의 뜻있는 중견승가들께서 막연하게나마 이 문제를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나'라야 되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누군가 해 주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의식을, 역사를 우리가 손 놓고 있더라도 누군가가 알아서 해 줄 이가 있다면 당연히 손 놓고 기다려야 하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종단 선각자들이 반세기 전에 역경원을 만들어 역경을 시작했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 후 근 40년 만인 2001년에 고려대장경의 일차적인 번역을 끝내는 고불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한 것도 문제지만 읽음과 동시에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이 공통적인 흠이었습니다.

이렇게 뜻이 안 통하는 번역물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문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마치 커다란 기계 어느 한 구석에 모래알 하나만 끼어도 기계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장력이 약한 요즘의 실정으로는 그룹식 번역작업이 좀 나을 터인데 달통한 이들이 하는 방식인 단독번역제를 택했기 때문에 자기의 벽(壁)을 자기가 잡지 못하고 넘긴데서 유래한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대본(臺本)으로 삼은 <인본욕생경>입니다.

이 경이 어렵다는 말씀은 젊어서부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경이 얼마나 어렵기에 그토록 야단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더니 이른바 '삶은 호박에 이빨'이었습니다. 다시 한글대장경을 찾아 읽어 보아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주석이라고 첨부된 것을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는 서당에 좀 다녔고 출가해서는 한 평생 경을 만졌다는 사람으로서 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자책하는 자세로 새겨도 보고 번역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충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오랜 우리의 관습이 번번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껏 자신에게 충실치 못했던 자신을 경책하면서 꾸준히 문의(文義)와 문맥의 흐름을 찾는 것으로 참회행을 삼았으나 늘 여의치 않아 손을 떼려고 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도안법사(道安法師)의 소(疏)입니다. 그 문장이 너무 간략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촌철살인인양 한 자(字)의 허언도 없이 직대근원(直戴根源)해 주신 노파심은 어느 노선화(老禪和)의 봉할(棒喝)보다 고마웠습니다. 이 소로 인해 안세고삼장(安世高三藏) 소역(所譯) 30여 종의 경이 일괄 소통될 것 같아 무한히 고마웠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은 이 고마움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혼자서 개 그리고 말 그리듯이 번역한 것을 여러분 앞에 기탄없이 털어 놓고, 잘못된 부분을 엄정하게 지적해 달라고 청하리만치 여유로워진 자신의 변화가 첫째의 기쁨이요, 완벽하지 못한 서로서로가 호상탁마 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주고받아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이요, 이러한 작업이 주효(奏效)해 변하는 세태에 따라 알맞은 경전과 읽을거리를 제공할 기능을 터득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최상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선 고전경론을 토론하고 읽을 수

HOT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멍석(카페트)로 cool 하게~~
네츄럴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신제품
(中) (大)
■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호상탁마’로 올바른 판단해야



있는 상설기관이나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기대합니다.”

오후 1시. 운하당에는 월운 스님을 비롯해 강평에 참가한 대중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조실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곧바로 강평회에 들어갔다. 워낙 어려운 경전으로 치부되었던 <인본욕생경>은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며 인연을 따라 여러 법이 생기하는 양상을 자세히 설하고 있다.

연기의 도리를 설하는 <인본욕생경>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지, 스승에 대한 예우 때문인지, 아니면 참가 대중들의 안목이 스승과 현격해서인지 강평은 시역고에 대한 오탈자 지적과 일부 문장의 번역에 대한 이의제기, 편집상의 문제 지적 등으로 이어졌다.

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취봉 스님의 진행으로 4시간 동안 이어진 강평회는 진지했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인본욕생경>의 번역 및 주석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월운 스님이 이 경을 ‘초기대승경’이라 한데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강평의 열기가 달구어졌다. 한 사람의 후학이 20여 쪽을 집중 연구해 발표를 했다. 경상 앞에 꼿꼿이 앉아 후학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록하는 조실 스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가르침’이었다. 토씨 하나에서 문장부호 하나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첨삭하는 정성으로 달구어진 강평회 그 자체가 장엄한 법석이 아닐 수 없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잊거나 왜곡돼지 않도록 해 길이 전승시키기 위해 결집 작업을 할 때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었다. 칠엽굴의 제1차 결집 장면 말이다. 부처님을 측근에서 시봉했던 사촌동생 아난이 구술(口述)하면 대중이 논의해 경의 원본을 삼았던 그 장엄한 장면. 그 때는 문자 기록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유일한 유통 수단이었음을 생각하면, 칠엽굴에서의 제1차 결집으로부터 2500여 년이 지난 이날의 강평회는 시공을 초월한 귀한 불사의 현장이었다.

월운 스님은 어느 대목에서 “나는 웬만치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에게 뭇매를 맞는다”며 “여러분이 오자를 잘 찾나 못 찾나 보려고 그런 거야”라며 분위기를 식혀 주기도 했다.

능엄학림 출신인 반산 스님은 “이렇게 귀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경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암사 강주 지형 스님은 “오늘 강평회를 해 보니까 강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강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오늘 가지고 온 대본에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적은 뒤 가져가지 말고 나에게 주면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하겠다”고 부탁했다. 다시 강평회를 마련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강평회로 인해 <인본욕생경>의 번역에 날개가 달린 것은 분명했다.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정도의 번역은 아닐지라도 고전을 번역하는 새로운 풍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인식제고 자체가 월운 스님이 강평회를 마련한 이유의 팔 할은 될 것이다.

“이미 마음을 낸 이들도 더욱 정진해야겠지만 새 인물을 개발해 교육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종단적인 합의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문고전을 전공하는 기구를 상설화해서 우리의 고전은 우리의 기구에서 판독한다는 원칙이 서야 앞으로 한국불교의 명맥을 주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월운 스님이 주장해 온 ‘상설기구’에 대한 원력이 이 날의 강평회로 그 지평을 넓혀 갈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강평회에 참가한 후학들은 한국불교 경학연구와 역경불사의 주역이 될 것이기에 여기 이름을 기록한다.

취봉(능엄학림 학감) 거부(前 수덕사 강주) 응각(前 백양사 강주) 정산(법주사 강사) 학봉(영축사 주지) 현문(능엄학림 강사) 중봉(동화사 강사) 서봉(화명선원장) 우설(통도사 율원장) 승석(청안사 주지) 반산(능엄학림 출신) 각진(능엄학림 수학) 현암(능엄학림 연구원) 지형(청암사 강주) 일연(봉녕사 강사) 상덕(청암사 강사) 수법(청암사 중강) 운산(운문사 강사) 신규탁(연세대 교수) 김두재(역경원 역경위원) 윤옥선(불경서당) 최윤옥(불경서당) 이상 무순.

글 · 사진=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00. 글렌 D. 페이지(Glenn D. Paige) 박사

하와이에 한국 절 창건 제안… 한국 여성 포교에 앞장서

글렌 D. 페이지(Glenn D. Paige) 교수는 192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블록톤(Brocton)에서 출생해 프린스턴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중 군에 입대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육군 포병 소위로 1950년 9월 4일 부산에 입항했다. 페이지 교수는 1950~1952년 한국전에 참여했다. 당시 미 육군장교였던 그는 ‘비살생 세계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전세계 평화 공존을 주장했다. 페이지 교수는 한국인들의 전쟁 피해 상황을 낱낱이 목격하고, <미국의 한국 전쟁 결정>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불교와 인연이 전혀 없었던 페이지 교수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무렵이었다. 페이지 교수는 1961년부터 친분을 맺어오던 前 동국대 김동익 총장에게 그 해 여름 방학 동안 한국의 절에서 요양도 하고 저술 활동도 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김동익 총장의 소개로 페이지 교수는 설악산 신흥사를 찾았다. 당시 신흥사는 문성준 스님이 주지로 있었고, 대원 스님이 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 옆방에서 2달간 집필과 수행생활을 했다.

페이지 교수는 수행생활을 통해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을 얻었다. 그 곳에서 글을 쓰고 머무르면서 대원 스님과 나누었던 많은 대화들은 한국불교사에 커다란 획을 긋게 됐다.

페이지 교수는 당시 하와이에는 30여 중국 · 일본 절이 있었으나 한국 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하와이에도 한국 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에게 요청해 하와이에서 한국 절을 창건할 것을 제안했다.

1975년에 대원 스님은 페이지 교수의 초청으로 하와이를 방문했다. 대원 스님은 호놀룰루 와이키키의 페이지 교수 집에서 한 달간 생활하며 한국 불교 포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에게 승려의 본분은 세속적인 학문 연구가 아니라 포교에 있다고 설득했다. 그 후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이 하와이에 머무르면 이 하와이에서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정부, 의회, 불교관계 인사 등을 소개시켜 줬으며, 많은 후원을 뒷받침 했다.


하와이 무량사.

대원 스님이 하와이에서 포교를 할 당시, 하와이의 한국인 교포는 약 2만~2만5000명 정도였다. 하와이는 우리 조상들이 미주 가운데 최초로 이민한 곳이다. 하와이 진주만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자리한다. 그래서 미군과 한국의 여인들에 얽힌 애환이 하와이에 어려 있다.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과 국제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들어와 생활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

페이지 교수는 한국 불교가 이러한 고충을 앓고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와이의 한국여성들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포교의 진정한 대상이라고 대원 스님에게 설파했다. 자신의 조국인 한국과 자신이 선택한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소외받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페이지 교수는 대원 스님과 함께 포교에 앞장섰다. 대원 스님과 페이지 교수는 선재동자처럼 한국 불교의 전법의 수레를 이 미국의 땅에서 이렇게 소외받은 계층을 위해서 굴리기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해외 포교를 시작한 후 만 6년 만에 대원 스님은 1982년에 대원사의 대작 불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하게 됐다. 대원사 준공을 기념해 대원 스님과 페이지 교수는 ‘불교와 평화 지도자론’를 주제로 1983년 제1차 세미나를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 남한, 스리랑카, 소련, 태국,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평화 운동가들과 학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미국과 적대관계였던 소련 학자들의 이 세미나 참여한 것은 당시 대단한 수확이었다. 그 후로도 일본 도쿄, 몽골, 서울 등을 거쳐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하와이 대원사는 특정 스님이나 개인 및 단체를 위해 지은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고국을 떠나 힘들게 살고 있는 교포들을 위한 따뜻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기 위해 건립됐다. 대원사는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미국 전초기지로써 발판을 마련했다.

사실 불교는 무슨 일을 해도 상(相)을 내지 않고, 견(見)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상과 견을 가지고 시비한다. 이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 암울한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불교의 깊은 뜻은 한국불교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전초가 됐다.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합장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운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 집(393쪽)
- 한국 한양굿 전통의식 집(225쪽) 등이 있다.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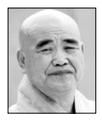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⑦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돈교설법(頓敎說法)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닫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뿌리가 작은 대지의 초목이 큰 비를 맞고 모두 다 저절로 거꾸러져서 자라지 못함과 같나니, 작은 근기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를 못하는가?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라.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으므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 ·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되나니,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물이 합해져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바로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 통달해 거리낌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런 행을 닦으면 바로 <반야바라밀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주관은 주관대로 객관은 객관대로 비우지 말고 그 자체를 즐기며 행복과 자유를 누려라

모든 경서 및 문자와 소승과 대승과 십이부의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운 것이니라. 만약 나(我)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인해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법을 설해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우쳐서 알고 마음이 열리게 하나니,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알아야 할지니,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니라.

나는 홍인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 그 말뜻에 크게 깨달아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만약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 자성을 볼 것이니라. 어떤 것을 선지식이라 하는가? 최상승법을 깨달아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큰 선지식이며 또한 바로 큰 인연이니라.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해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만약 깨달은 이는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밖으로 선지식을 구해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나니,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바로 해탈을 얻느니라. 만약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해 망념으로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반야의 관조를 일으켜야 하나니,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바로 자기의 참 선지식이며, 한 번 깨달음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자성(自性)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써 관조해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곧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 바로 반야삼매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곧바로 무념이니라.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해 여섯 도적(色 · 聲 · 香 · 味 · 觸法)들로 하여금 여섯 문(眼 · 耳 · 鼻 · 舌 · 身 · 意)으로 달려 나가게 하나 육진(六塵)속을 떠나지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로운 것이니,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재해탈로서 무념행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지니, 이는 곧 법에 묶임(法縛)이니 곧 변견(邊見)이라고 하느니라.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을 깨달은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모양을 여읜 게송(無相頌)'을 들을지니, 그대들 미혹한 사람들의 죄를 없앨 것이니 또한 '죄를 없애는 게송(滅罪頌)'이라고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말한다. 보시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 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 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 세상에 복은 얻으나 죄는 어쩔 수 없느니라. 만약 마음 속의 죄의 인연 없앰을 안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 속의 참된 참회이니라. 만약 대승의 참된 참회를 깨달으면 삿됨을 없애고 바름을 행해 죄 없어지리.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자성(自性)을 관찰하면 바로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서로 같으니라. 대사(五조대사)께서 단번에 깨닫는 이 가르침 전하심은 배우는 사람이 같은 한 몸 되기를 바라서니라. 만약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하면 삼독의 나쁜 인연 마음에서 씻어 없애라. 힘써 도를 닦되 한가로이 지내지 말라. 어느덧 한 세상 헛되이 끝나 버리리라. 만약 단번에 깨닫는 대승법을 만났거든 정성껏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여라."

중국 선불교의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담아 놓은 책을 어록(語錄)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조사어록(祖師語錄)은 옛 선지식들의 말씀이 담긴 책을 의미합니다. <조주어록>하면 조주 스님의 가르침, <운문어록>하면 운문 스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후대에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예로부터 숱한 조사어록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한국의 선불교에서는 <임제어록>을 으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제 선사의 가르침에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날이 중생들의 미혹과 아둔함을 예외 없이 구석구석 잘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제 선사는 조불(祖佛)이란 단어까지 여러 곳에 등장시키며 조사와 부처님이 동등하며, 중생에서 부처에 이르는 길을 혜능 선사 못지않게 바로 알고 바로 이르게 하는 선지식중의 선지식입니다.

그 중 한 가지만 옮겨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4단계의 수행법을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단계는 주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객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관과 객관을 한꺼번에 다 비우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단계는 주체와 객체를 다 남겨두는 것입니다.

넷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보는 나와 보이는 사물이 참나를 이뤄 걸림과 막힘이 없는 대자유의 참사람에 이르게 됩니다. 주관은 주관대로 객관은 객관대로 비우고 버릴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며 행복과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산은 산인 그대로, 물은 물인 그대로 차별이 없는 참사람의 열린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면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져죽지 않는 진리와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육체가 아닌, 차별이 없는 참사람의 대자유를 누리는 정신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을 바로 보아 부처를 이루는 선(禪)의 생명이자 선의 특징입니다.

임제 스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선사들은 깨달음을 성취한 뒤 떠난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치열한 구도자의 뼈아픈 체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객체에 끌려 다니고 주체에 얽매여 생사의 윤회를 거듭하는 범부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바퀴를 돌아 객체와 주체가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에 이르게 되면 객체는 객체인대로 주체는 주체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으며 오고 감도, 더함도 덜함도 아닌 생멸이 둘이 아닌 하나의 차별이 없는 참사람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곧 도(生活是道)요,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상인으로서는 구름 잡는 허황한 이야기일 뿐 생활을 열어 가는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임제 스님의 가르침처럼 한 바퀴를 돌아 버릴 객체나 머물 주체가 없어 참으로 한가한 평상심으로 돌아와 있을 때에는 생활 그대로가 도(道)가 됩니다. 옷 입고 밥 먹는 그대로가 부처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조 대사의 설법하는 모습.

혜능 선사는 돈교설법에서 수행자를 소근기(小根器)와 대근기(大根器))로 나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수행자를 풀과 나무로 비유해 큰 비가 내리면 풀잎은 꺾이고 뿌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으나 큰 나무는 큰 비를 받아들이며 오히려 큰 비 자체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며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행자들이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사견의 장애를 겹겹이 해 번뇌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는 집착의 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혜능 선사가 <보살계경>까지 인용해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며 도를 배우고 닦는 이로 하여금 단박에 깨달음을 이뤄 진리와 하나가 되라며 채근질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지식이란 최상승법을 깨달아 바른길을 올바르게 가리키고 실천하는 자라며 상대자가 누구든지 교화하고 지도하며 착한 법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되고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돼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흔히 돈오점수(頓悟漸修)니 점수돈오(漸修頓悟)니 또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앞세우며 나름대로의 학설과 주장을 펴고 있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혜능 선사처럼 돈오의 정신으로 정진에 매진하되 중생의 크고 작은 근기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전이나 어록 등에서 많이 등장하는 마음이니 자성이니 본성이니 또는 불성, 그 자리, 한 물건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작용은 마지못해 다양한 이름을 붙여놨을 뿐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입니다.

법신과 도신, 그리고 화신이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세신인 것입니다. 혜능 선사가 <육조단경>에서 무상송(無相頌), 멸죄송(滅罪頌)이라며 게송을 들려주는 것도 중생근기에 따라 처방해 주는 약이자, 길안내서일뿐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여, 게으름 없이 나무와 나무를 끊임없이 비벼 불꽃을 얻는 것처럼 스스로 깨닫는 것만이 <육조단경>의 생명이자 혜능 선사의 참 가르침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 철야 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 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선생님의 공부 방편을 그대로 계승하여 현재까지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위해 백봉선생님의 법문 녹취집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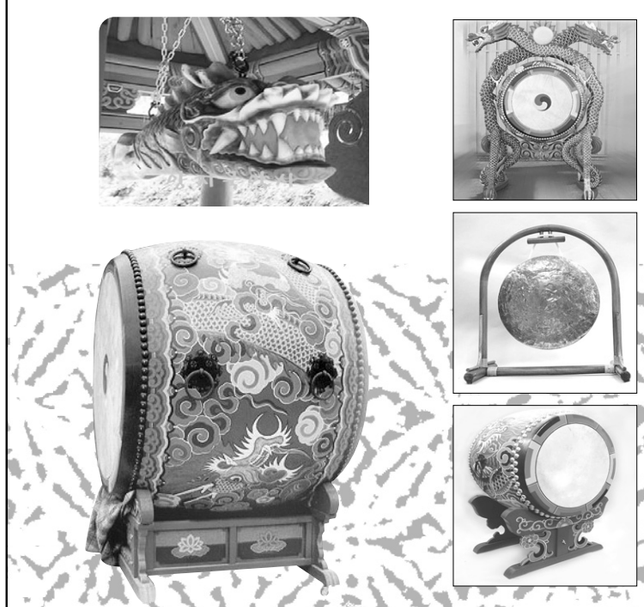
아 래

■ 일 시 : 2010년 7월 29일(목) 오후 8시부터
2010년 8월 4일(수)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 (서울 종로구 부암동 185-30)
■ 회 비 : 일반 10만원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모든 초록버스 이용. 하림각앞 하차.
5호선 광화문역 2,3번 출구 교보빌딩 앞 초록버스 탑승. 하림각앞 하차.
(초록버스 :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
*하림각 오른쪽 담을 따라 100m 올라와서 중앙하이츠에서 우회전 지장암 근처

보 림 회 회장 홍 종 화 합장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혜 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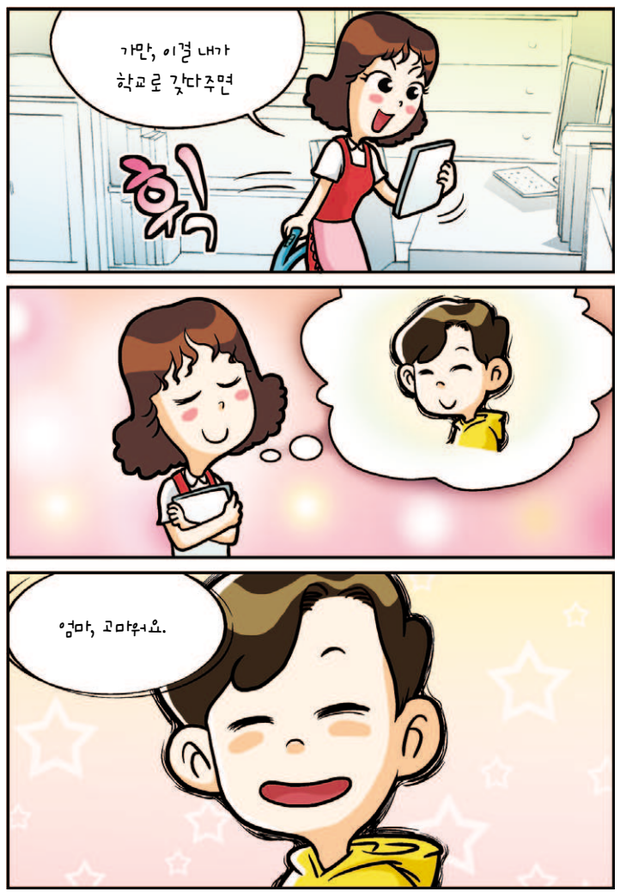
요절복통 여래네 집

#17. 그 엄마에 그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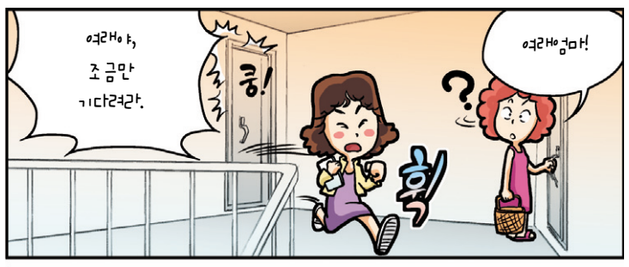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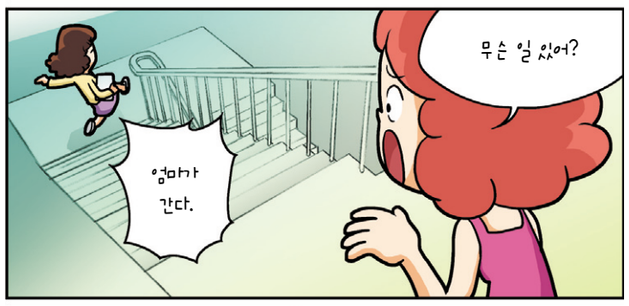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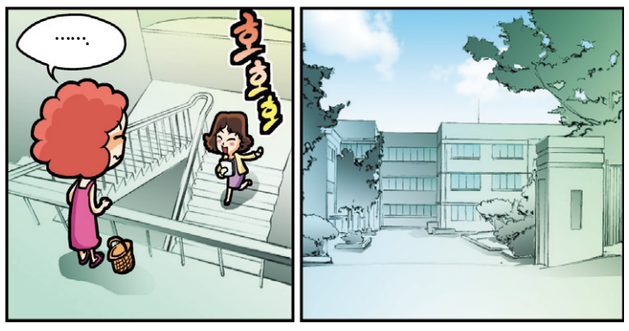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허공도 아니요, 바다속도 아니다.
또한 깊은 산 동굴 속에 숨어도
우리가 지은 악행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구경



귀사와 귀하의 홍보를 대행해 드립니다

"저비용 · 고효율" 홍보대행 서비스, 주요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전송

Daum NAVER NATE YAHOO! KOREA Paran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홍보 효과를 위한 취재 및 보도자료 서비스입니다.
대성사의 홍보대행 서비스는 10년 노하우의 전문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주요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전송 합니다.

서 비 스 내 용

- **보도자료 원문 서비스:** 보도자료 원문이 국내 주요 포털에서 검색 가능
-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 **기사화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기획 취재후 해당기사를 언론사와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 **행사 사진촬영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기획 취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여 CD로 제작 서비스

보도자료 및 취재기사는 국내 주요 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야후·파란) 에서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제보·구독·광고문의
E-mail : ksson108@hanmail.net
본사 대성사 ☎ 010-9522-8453 (옥천 대성사 혜철 스님)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충북지사 ☎ 043-732-5560
대전지사 ☎ 042-223-8214



육조 대사의 법을 드날린
하택신회대사 현 종 기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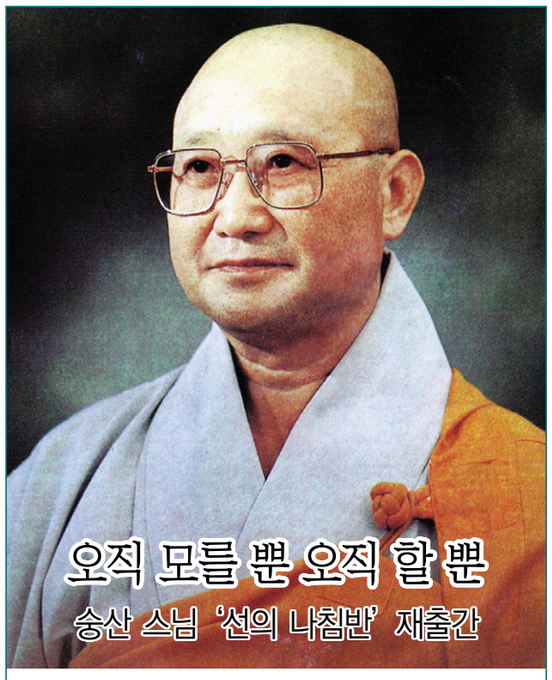




신간!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이 중국천하에 우뚝하도록 한 장본인, 하택신회대사의 현종기.
세간에 지해종도로 알려져 있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뛰어난 깨달음의 경지가
여기에 담겨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하택신회대사의 실경지를 드러내고
바로보임으로써 빛냈다.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중 16권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도서출판 바로보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많은 벽안(碧眼)출가자를 배출한 숭산 스님(1927~2004)의 30여 년간 설법을 집대성한 책 <선의 나침반>이 10년 만에 재출간됐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를 통해 스승인 숭산 스님과의 인연,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줬던 현각 스님은 4년여에 걸쳐 숭산 스님이 설법한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녹취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의 나침반>을 완성했다.

숭산 스님은 1966년 일본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남아공, 싱가포르 등 전세계를 누비며 해외포교에 앞장 섰다. 스님은 서구의 합리적 사고방식과 불교에 낯선 서양인들의 관점에 맞춰 다양한 일화와 쉬운 어휘를 사용해 법문을 했다. 불교 공부가 어려운 한자로 가득한 경전 공부가 아니라, 참선 수행이라는 마음공부를 통해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길잡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이자 세계적 수행가인 존 카밧 진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은 서구인들의 지성과 관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한 편의 명시처럼 추상적 이미지를 일단 무턱대고 삼키고 나면 그 이미지들이 내면에서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되듯이, 획일적이고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열어 주었다"고 회고한다.

<선의 나침반>은 참나를 깨닫고 중생을 교화하는 불교의 목적에서부터 소승 · 대승불교, 선불교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쉽고 재밌게 그러나 핵심을 관통하는 숭산 스님의 말씀은 연기법, 삼법인, 사성제, 발정도, 육바라밀행 등 불교교리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하고 <금강경><대열반경><법화경><화엄경> 등 경전에 담긴 불법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따뜻하고 자애로우면서도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숭산 스님의 유머러스하고 파격적인 법문은 딱딱한 불교가 아닌, 재밌고 쉬운 불교로 우리를 안내한다.

선의 나침반 | 현각 엮음 | 김영사 | 1만8000원

이나은 기자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웰다잉 선구자 오진탁 교수의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일곱 살 때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라는 글을 읽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 불치병 선고를 받았지만, 운 좋게 치료 가능한 췌장암으로 밝혀져 다시 회사로 돌아온 뒤 그가 얻은 교훈일테다.

이렇듯 생사를 넘나드는 병고를 치른 뒤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들이 있는 반면, 개인 · 경제 · 사회적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한류스타의 사연이 그러하다.

한국은 이미 2005년부터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 선진국'이라 불릴만한 우리 사회의 자살은 초등학생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죽음준비교육' 과목을 개설해 일반인들에게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97년 한 대학 내 최초로 과목이 개설됐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야 죽음준비교육이 종교단체, 복지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입관체험 등의 행사 위주로만 진행돼 죽음준비교육이 하나의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전락한 실정이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국내의 정서적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죽음을 금기시 하다 못해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인 저자 오진탁 교수는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생사학 전문가의 부재가 결국 웰다잉(well-dying)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자살문제와 웰다잉 교육을 못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책의 1부에서 우리 사회에 죽음이해가 크게 부족함을 지적하며 육체적 · 불교적 · 티베트 ·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다.

2 · 3부에는 자살예방과 웰다잉 교육 성과들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었다. 자살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직면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결코 도피할 수 없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죽음 이후에 끔찍한 고통만 가중되고, 그가 사랑했던 남은 사람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임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해준다.

오진탁 교수는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미봉책에 불과한 위기개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살예방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며 "우리 사회의 자살률, 자살충동률, 불행한 임종모습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제 '웰다잉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운동'을 통해 바람직한 죽음이해와 성숙한 임종방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 오진탁 지음 | 종이거울 펴냄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오진탁 교수가 제안하는 웰다잉 · 자살예방 위한 사회 운동

1. WHO의 기준에 따라 죽음을 육체적, 사회적 관점(의학적, 법률적 죽음이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관점(생사학, 종교의 죽음 이해)에서도 접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널리 알린다.
2. 죽음준비교육을 학교와 사회 교육으로 실시, 특히 의과대학에 웰다잉 교육 과목 개설
3. 죽음과 자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10~20대층에 집중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초 · 중등학교와 대학생, 군부대 병사와 전투경찰
4. 교사, 군 장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교육을 통해 웰다잉과 자살예방 전문가로 양성
5.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6. 존엄사 법제화 이전에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과 절차를 분명히 제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엄격한 존엄사 가이드라인 확정
7. 사전의료지시서 표준양식을 확정해 보급
8. 죽음 준비와 유서 쓰기의 생활화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사찰탐방의 모든 것 '절집 길라잡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찰을 찾을 때 사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그런 모양 · 구도로 자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을 것이다.

<절집 길라잡이>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것들을 대부분 정리하고 절집의 경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절집을 떠나올 때까지 논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친절히 소개한다.

일주문부터 산신각까지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불상, 그림, 조각 등 시각적 요소들에 대해 꼼꼼하게 구석구석 설명해 주고 있다.

<절집 길라잡이>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가이드북처럼 평이하고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됐으며 때로는 글보다 많은 다양한 사진을 곁들이고 있어 이 책 한권만 들고 사찰탐방에 나서도 충분하다.

대학에서 한국사와 불교문화재를 강의하고 있는 저자 김영숙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아는 게 쌓이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절집을 돌아다녀도, 그 의미에 대해 모르고 다닌다면 종교적 신앙심이든 교양이든 남는게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절집 길라잡이 | 김영숙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3000원

이나은 기자

유 · 불 · 도의 정수 '채근담'

칼럼니스트 이병두 해설서 펴내



동서고금의 문명과 종교 · 사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책들이 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와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힌 유교 · 불교와 노장의 여러 경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채근담>은 유교 · 불교 · 도교의 정수를 가려서 뽑은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고 있다.

<채근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의 홍응명이 엮은 것이다. 채근(菜根)은 '나물뿌리의 맛'이란 뜻으로, 중국 송대의 학자 왕신민의 "사람이 항상 나물뿌리라도 그것을 달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참을성과 기개가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못당해낼 것이 없어 가히 100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에서 따 온 것이다.

<불교평론> 편집위원이자 칼럼니스트인 이병두는 2년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채근담>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자신만의 해설을 덧붙여 <지혜로운 삶의 교훈 채근담>을 냈다.

책의 1장 수성(修省)편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2장 응수(應酬)편은 모든 사물과 접촉해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될 수있는 명구들을 담고 있다. 3장 평의(評議)편은 행동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잘잘못을 느껴 깨우치고 반성하도록 하는 가르침을, 4장 한적(閑寂)편에서는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의 글들로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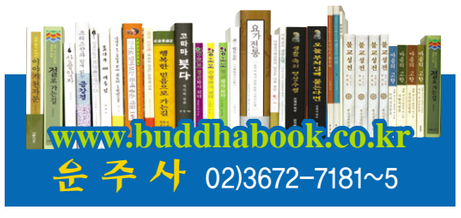
채근담 | 이병두 풀어씀 | 참글세상 펴냄 | 1만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정토
2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5	선의 나침반	현각	김영사
6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7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8	불타 석가모니	법정	문학의 숲
9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이시우	민족사
10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천진/현현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2500년간 정법의 기근(饑饉)에 단비를 내린다
불교 총서(叢書)의 새로운 지평 영산불교에서 간행된 주옥의 불서(佛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6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법문을 들어 온전한 불법을 다시 세워 전하는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수행에 있어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진정한 삼매,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등골 오싹하도록 무서운 지옥이 진실로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늘 세계와 해탈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붓다를 이룬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사후 세계와 윤회 대상인 육도의 실질적 모습을 밝힌 전대미문의 대성서.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보화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하고 깊은 법문
진짜 나인 '영혼체'의 정체를 알아야 육도여행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4개의 겹으로 이루어진 영혼체의 내면을 해부하고 육도를 윤회하는 나는 3번째 층이 드러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진정한 불법의 진수를 드러내어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토와 도깅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을 적시하며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의무가 있다.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과 소감을 통해 원문에 대한 이해와 신심을 증장 시킨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붓다의 메시지를 통해 신심이 증장된 불자라면 요해를 통해 영산불교의 사상을 재정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 그녀를 지금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오늘날 그분의 사상과 업적을 3생의 연속선 상에서 되짚어 본다.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위대한 법왕일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담은 책.육도의 실제 모습과 칭명염불 수행, 진정한 효행의 길인 천도재를 설명한다.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기존 선불교에서 내세우는 깨달음(견성)이 진정한 삼매를 위한 수행의 시작임을
선언하고 수행의 과위가 아라한-보살-붓다로 위계지어짐을 밝힌다.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나의 종교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불교가 제(諸) 종교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밝힌다.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영산불교 관점에서 7대 종교의 교주, 경전, 사상을 정리하고 평가해보자.

법문집 Ⅰ·Ⅱ·Ⅲ·Ⅳ 631면 | 15,000원. 540면 | 20,000원, 648면 | 20,000원. 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부처님의 세계, 육도윤회의 실상, 수행과 마장, 칭명염불수행, 기존 불교의 한계 등이 큰스님의 육성법문에 녹아들고 이를 4권의 책속에 담았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기존불교계의 핵폭탄 되려나?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기자의 눈으로 보고 들은 자재만현 큰스님과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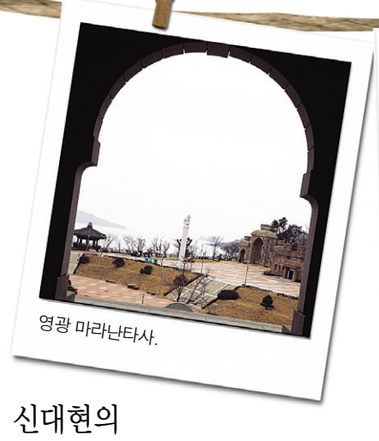
신불교학개론 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근본불교에서부터 밀교와 선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종파의 사상을 아우르고 허물어진 불법의 뼈대를 다시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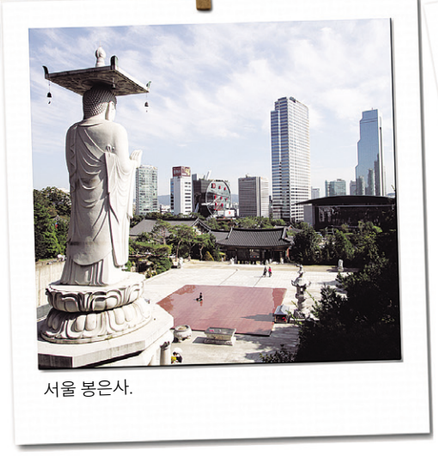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 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영산불교사상연구소

매월 음 8일, 23일 대법회 http://www.hyunjisa.com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대전 분원 Tel 042)525-5325, 5345

가람 속 살아 숨 쉬는 역사


영광 마라난타사.


서울 봉은사.


강릉 신복사지 보살상과 삼층석탑.

신대현의 '우리 절을 찾아서'

한국문화에서 사찰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찰은 종교 건축물이나 불교의식, 수행 등이 이뤄지는 종교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민족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이름 붙은 사찰에는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안 구석구석까지 모두 한민족의 얼이 서린 문화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문화의 가치를 수없이 듣는다. 하지만 정작 사찰을 찾는 많은 사람들 중 이러한 문화에 얽힌 일화를 접하는 이는 많지 않다.

<우리 절을 찾아서>는 저자 신대현 씨가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친 역사를 품은 고찰 48곳을 순례하고, 그 사찰의 유래와 가람배치, 각 건물의 의미 등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20여 년 동안 직접 찾아다닌 사찰의 구석구석에 얽힌 이야기 거리를 독자들에게 풀어낸다. 저자는 신라를 대표하는 경주 사천왕사를 시작으로 강릉 굴산사지와 신복사지, 영광 불갑사, 보은 법주사, 여주 신륵사 등을 답사한다.

"사천왕사지에는 당군을 격파하기 위한 방책과 전술을 연구하던 일종의 국방연구소가 설치돼 있었던 게 아닐까 상상하곤 한다. 685년 당 황제는 수년 전 풍랑으로 나당 전쟁의 군사작전이 무산되자 사천왕사에서 행한 비법이 있었음을 알고 사신을 파견해 진상을 알아오도록 했다. 신라는 사신이 사천왕사에 가는 것을 매우 꺼려 맞은편에 급히 절을 짓고 이를 사천왕사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이 절은 나중에 망덕사가 된다. 당시 행해졌던 비법은 문드라(Mudra: 밀교 의식 중 하나로 불단을 설치하고 다라니 등을 독송하면 국가의 재난을 물리칠 수 있다) 의식이다. 이 비법으로 싸우지 않고 전쟁을 막았다면 진정한 호국불교가 아닌가 싶다."

책은 사찰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하고 각 건축물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짚는다. 화성 용주사의 효 사상, 서울 봉은사 대학생수도원의 청년불교운동, 보은 법주사의 미륵신앙 등 사찰이 가지고 있는 유래와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하며 현대인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특히 사찰 문화재에 얽힌 인물들의 당시 원력을 살피는 저자의 시선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다가온다.

나뭇결 그대로를 나타내 자연스러움이 두드러지는 내소사의 요사, 여강을 바라보며 자리한 고즈넉한 신륵사 삼층석탑 등 다양한 사진이 함께 실려 아름다움에 대한 눈을 열어준다.

우리 절을 찾아서 | 신대현 지음 | 혜안 펴냄 | 1만 5000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돈황' 실크로드를 빛낸 오아시스

나가사와 카즈토시 '돈황의 역사와 문화'

눈을 찌르는 강렬한 태양, 살을 에는 거친 모래바람, 사막을 건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막을 건너는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물 부족일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생명줄이다. 오아시스가 없다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생사를 걸고 사막길을 횡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돈황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과 서역을 잇는 오아시스 '돈황'(敦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돈황은 실크로드의 천산북로(天山北路)와 천산남로(天山南路)가 나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긴 사막길에서 여행자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던 돈황의 존재는 인류문명사에서도 하나의 오아시스로 고대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준다.

돈황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청대에 서구 열강에 의해 문화재가 반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일종의 제국주의 문화침략은 학문적 열정으로 이어져 돈황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이 과정에 대해 "장경동에서 발견된 대량의 고문서와 미술품은 파리, 런던, 북경 등에 나뉘어 소장되는 불행한 운명에 처했다"며 "하지만 이후 각 소장처를 중심으로 관련 도록과 보고서 등이 꾸준히 출간돼 오늘날 돈황학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한다. 책 속에는 서구열강의 문화침략을 바라본 아시아인의 입장과 학문의 발전을 다루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관점이 섞여 있다.

저자는 책에서 돈황의 관문인 옥문관(玉門關) 위치를 확인하며, 기존 정설(定說)인 옥문관 이동설의 한계와 오류를 밝히는 등 사료분석을 통해 기존 학계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도 낸다. 일본 와세다대에서 실크로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을 중앙아시아 현지조사에 주력해 온 저자의 경험이 살아있다.

돈황의 역사와 문화 | 나가사와 카즈토시 지음 | 민병훈 옮김 | 사계절 펴냄 | 2만 5000원

노덕현 기자

■ 문화 소식통

공옥진 여사 5년만에 춤사위

'명인명무전' 올라 한풀이



"공옥진이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또 오겠습니다."

뇌졸중과 교통사고로 무대를 떠나야 했던 우리 시대의 광대 공옥진(사진), 그녀가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다.

6월 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한국의 명인명무전'에서 공옥진 여사는 마치 지난날의 한을 풀듯 공연을 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른 것은 2005년 광주 공연 이후 5년 만이다. 공 여사는 1인 창무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교통사고와 뇌졸중 등으로 병마에 시달려오다 최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날 하얀 소복을 입고 무대에 선 일흔아홉 노구의 표정에는 뇌졸중과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이 모두 사라져있었다. 뒤늦게나마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그녀만의 춤사위가 인정받았다는 기쁨에서일까. 노쇠해진 몸으로 수건을 올리기도,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그 열정은 온 무대를 휘감았다. 이제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무대에서 혼을 담은 춤은 관객들을 들썩이게 했다.

공옥진 여사는 이미 전설이다. 공옥진 하면 병신춤을 떠올리듯 그녀는 창무극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를 떡 주무르듯 하는 공 여사는 둘을 분리해 배우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나오기 힘든 예술가였다.

그녀의 춤은 민중의 애환과 한 등을 녹여냈다. 하지만 그녀의 창무극은 전통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 심사에서 늘 탈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춤판에 설 수 없는 몸으로 문화재가 됐다.

이날 공연은 당초 예정에 없었다. 명인명무전을 주최한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도 "선생님께서 무대에 오르시려고는 하지만 건강 관계 상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할 정도였다.

관객들도 인사말 정도를 기대했는데 공 여사는 끝내 무대에 올랐다. 그녀를 기다리는 관객이 있기 때문이었다.

공 여사는 1933년 판소리 명창 공대일 선생의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창을 배웠고, 10세에 일본에서 무용가 최승희 씨에게 신무용을 익혔다. 6·25전쟁 때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나들었고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했다가 환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굴곡진 여정을 춤사위로 풀어 1인 창무극의 갈래를 개척한 공 여사는 서민적인 한국예술을 선보였다. 장애를 가진 인간이나 우리에 갇힌 동물의 몸짓을 흉내 내며 생명의 한을 표현한 '병신춤'과 '동물춤' 등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15분 간 춤사위 후 공 여사는 "죽지않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울며 무대를 떠났다. 거장의 기약 없는 다짐 속에 잊혀져 가는 민중의 춤에 대한 애석함과 춤 전수에 대한 열의가 묻어난다.

노덕현 기자

네팔 만다라 특별전 7월 3일부터 해인사서

네팔 관광청은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법광루에서 네팔 만다라 특별전을 개최한다.

'천상으로 가는 영혼의 수레바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네팔 만다라 최고작가로 꼽히는 노루브 라마의 만다라 등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네팔 낙후지역 난민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02)418-5252 **노덕현 기자**

부채바람에 禪 담아 선풍기(禪風氣)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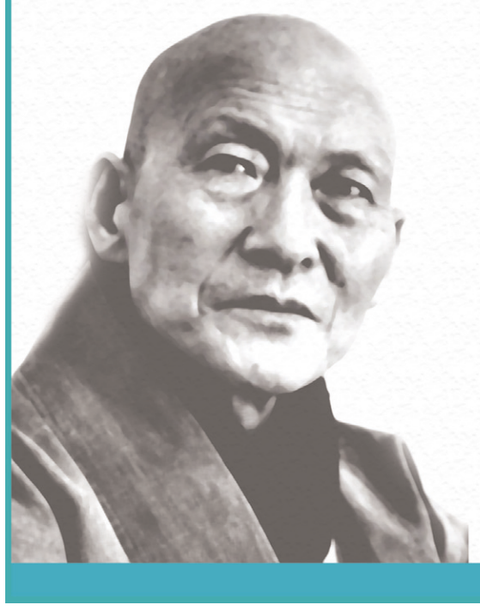
지구촌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한 '나눔과 공생전'이 6월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비영리문화전시관 '스페이스 선+'과 수원 수원사갤러리에서 열린다.

24명의 불교계 신진작가들이 첫 선을 뵐 이번 전시회에는 '선풍기(禪風氣)전'이라는 부제 하에 부채와 불교를 접합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수익금의 30%는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로터스월드에 기부된다. (02)732-0732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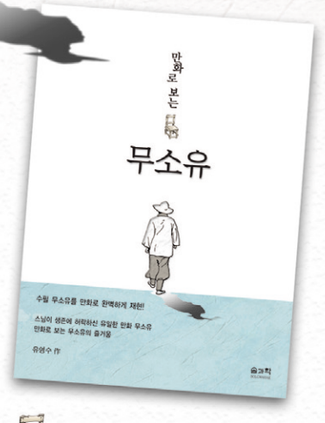
인생의 큰 가르침이 되는 무소유!

법정스님께서 생존에 허락하진 국내 유일의 만화.
소유와 집착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법정 스님이 전하는 깨우침의 이야기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만화로 완벽하게 재현한
만화 『무소유』



192p / 국판 / 올컬러 / 10,000원

제주 돌가마도예연구소 오창윤 작가의
살아 숨쉬는 도예의 세계



제주 흙의 재발견 '숨' 180p / 국판 / 올컬러 / 11,000원
제주 문화 제주 옹기 168p / 국판 / 올컬러 / 11,000원

만화로 보는 대통령 풍수이야기
명당 풍수

대권을 얻는 것은
하늘과 땅의 힘을 받아야 한다.
왕이 나온다는
제왕지지를 찾아 조상을 모시고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는
오랜 옛날부터 행해지던 일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쉽게 풀어서
만화로 보는 명당풍수 이야기



1.대원군 2.박정희 3.전두환 / 신국판 / 각권 10,000원

도서출판 솔과학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4-4 삼부골든타워 302호 / Tel 02-714-8655 / Fax 02-711-4656

C791-202010.7.510:55AM페이지1(1.1)

최연의 산 이야기 <17> 두륜산 3



아홉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九龍爭珠)구룡쟁주의 명당 두륜산 아래 대둔사의 용화당(龍華堂)이 보인다.

구룡쟁주 명당은 부처님 자리 아니라 대사님 자리

〈九龍爭珠〉

두륜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지세(地勢)가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구룡쟁주(九龍爭珠)의 명당(明堂)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두륜산 주능선 상의 아홉 봉우리에서 아홉 개의 산줄기가 대둔사의 일주문을 향해 뻗어 내려와(來龍) 머리를 맞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룡쟁주의 명당에는 누가 모셔져 있을까? 대둔사의 금당(金堂)인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우백호(右白虎)인 고계봉 아래 합수머리 계곡 건너 움푹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합수머리의 중앙에는 천불전(千佛殿)과 표충사(表忠祠) 그리고 대광명전(大光明殿)이 들어 서 있다.

두륜산의 우백호는 가련봉을 일구고 고계봉을 거쳐 장춘계곡(長春溪谷)으로 잦아들고, 좌청룡(左靑龍)은 연화봉을 일구고 혈망봉을 거쳐 장춘계곡으로 잦아들고, 안산인 향로봉을 향해 달리는 두륜봉의 산줄기가 머리를 들이대는 입수처(入首處)는 일지암(一支庵)에서 잠시 솟구쳤다가 내려앉아 합수머리 가랑이 사이에 명당을 부려 놓았는데, 그곳이 바로 표충사, 즉 사명대사의 사당(祠堂)이다.

대둔사가 그야말로 남쪽 땅 끝 조그마한 절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衣鉢)과 '대선사 교지(大禪師 敎旨)'가 전해지는 사찰이라는 위세 덕분으로 1664년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져 창건 이후 처음으로 규모를 갖춘 절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데 대웅보전 주변의 전각들이 이 때 세워졌다. 5년 뒤에 표충사가 세워졌는데, 금당인 대웅보전을 우백호 한쪽 귀퉁이에 세우고 구룡쟁주의 명당 터는 비워두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자리는 '대사님 자리(表忠祠)'로 미리 잡아놓고, 다음으로 '부처님 자리(大雄寶殿)'를 잡았는 것이 아닌지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표충사를 건립할 때는 정조(正祖) 임금이 친필 편액까지 내렸을 정도이니 서산대사가 남긴 의발과 대선사 교지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구룡쟁주의 명당에 묘는 잘 썼는데, 그렇다면 천년동안 제사를 받는(千秋血食) 현인(賢人)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대둔사가 배출한 13대종사의 마지막 대종사(大宗師)인 초의선사(草衣禪師)가 아닐까?

13대종사 모두 불가(佛家)에서는 천추만대에 우러름을 받겠지만 다성(茶聖)으로 일컫는 초의선사는 문도(門徒)뿐만 아니라 문외한(門外漢)까지도 두루 기림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의선사가 다도(茶道)를 꽃피우며 주석하였던 일지암은 두륜봉에서 표충사로 내려오는 입수의 중앙에서 돌출한 오대산 적멸보궁(寂滅寶宮)과 같은 위치이다.

초의선사는 16세에 운흥사(雲興寺)로 출가하여 선객(禪客)이 되어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등 명산을 두루 편력하다가 두륜산에 정착하여 일지암에 주석하게 된다. 그는 불교뿐 아니라 유교, 도교에도 조예가 깊어 많은 유학자들과 친교를 맺었다. 그중에서도 가까이 지낸 유학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洪顯周), 자하(紫霞) 신위(申緯) 등을 꼽을 수 있다.

초의선사는 차를 지극히 사랑하여 다도를 알고 싶어 하는 홍현주를 위해 〈동다송(東茶頌)〉을 짓기도 했고, 역학(易學)에 관심이 깊어 스물다섯 살이나 위인 다산에게 〈주역(周易)〉을 배웠고, 다산의 자제인 정학연(丁學淵), 정학유(丁學游)와도 각별하게 지냈다.

특히 추사는 초의선사와 동갑으로 남달리 깊은 우정을 나눴다. 추사가 제주도로 귀양 갈 때 대둔사에 들러 초의를 만났고, 추사를 만나러 제주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좋은 차를 구하면 추사에게 보내고 염주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두륜산을 끝내면서 달마산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호남정맥이 두륜산을 빚어놓고 한반도의 남쪽 끝 땅끝 마을에서 바다로 들기 전에 헌걸찬 기상으로 솟구쳐 놓은 것이 달마산이다. 달마산은 십여 리에 걸쳐 길게 이어진 기이하고 오묘한 형상을 한 바위산이다. 달마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미황사이다.

서산대사의 의발이 대둔사에 전해진 뒤로 많은 수행자들이 대둔사로 몰려들었는데, 그와 지근거리에 있는 미황사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들어 대둔사와 미황사를 오가며 깨달음의 문을 두드렸다. 대둔사의 13대종사인 연담(蓮潭), 벽하(碧霞), 설봉(雪峯) 스님 등은 미황사에 자주 머물렀고, 정암(晶岩), 인암(忍庵), 영허(靈虛) 스님 등은 미황사가 배출한 조선 후기의 고승대덕 들이다.

도량 터는 아주 대조적인데 대둔사는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깊고 그윽한 반면에 미황사는 앞이 훤히 트여 있어 한없이 넓고 경쾌하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별은 가까이 있다

'좋네'라는 말이 뇌리 속에서 '톡' 솟아나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봄에 옮겨 심은 나무가 잎이 시들시들 한 게, 물 좀 대줘야겠어요. 비가 좀 내려야 할 텐데…."

나는 좋기만 한데 아내는 텃밭에 불과한 농사일지라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내가 아내보다는 생활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이 분명하다. 작물이야 지들이 알아서 다 잘 자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신경을 덜 쓰는 이유 중 하나다. 거기서 나아가 '먹고사는 것이야 어찌 되든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 또한 가슴 한쪽을 차지하고 있으니 아내가 속 터질 만도 하다. 어찌됐거나 그것이 사실인 걸 또 어찌할거나.

산속에 10년하고도 5년이 넘게 살다보니 뱃심이 제법 두둑해졌다. 십몇 년 전에 비하면 그렇다. 세상이 어떻게 돼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때문이다. 돈을 벌어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인간형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내 나름대로 목숨 붙이고 살아갈 자신이 산속 생활을 하면서 몸에 붙었다. 텃밭만 잘 가꾸고 때 맞춰 나오는 나물을 채취만 잘 해도 쌀을 제외한 먹을 것은 모자람이 없다. 먹고 남은 고추를 팔면 쌀값도 쉽게 해결된다. 먹고 살 일이 두렵지 않으니 세상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릴 이유가 없다.

싫은 걸 싫다고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살아왔으나 요즈음은 싫다는 말도 곧잘 한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지는 오래 됐으나 감히 대들 힘이 나지 않았다. 없던 힘이 생겨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힘은 있었으나 더 큰 힘에 억눌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 꿈틀, 반항의 기운이 솟구치곤 했으나 스스로 억눌렀다. 살아온 세월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기까지의 학교생활에서, 뒷골목의 깡패들에게, 국가의 폭력 앞에서, 군대의 쳘조망 속에서.

우주 끝의 손길은
지구에 닿아 있고
사람의 손길은
우주 끝에 닿아 있다
우주의 구석구석
그 어느 곳도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기도 어려워 밭으로 발길을 옮겼다. 푸른 작물들에 내리쪼이는 햇살은 더욱 환하다. 푸르름과 햇살은 잘 어울리는 형제다. 빛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은 태양만이 아니다. 밤하늘의 별, 수많은 태양이 지구로 자신의 몸을 날려온다. 지구로 흐르는 은하의 빛줄기를 마시며 생명이 자란다. 이 거대한 우주의 기운을 받아먹으며 사람도 살아간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말 한마디 하지 못할까? 일어나는 힘을 밖으로 발산하지 못할까?

산수유나무는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옮기지 않은 나무에 비해 잎이 자라지 못하고 힘이 없이 축 처져 있었다. 새로 옮겨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기 위해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옳았다. 이겨낼 수만 있다면 앓는 것도 헛된 것만은 아닐 터이다. 식물로 태어나 공간을 이동해서 살아보는 행운을 얻은 경험만으로도 병을 앓는 대가는 되지 않을까? 나무가 원치 않은 이식이었다고?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앞뒤를 알고 나면 나를 욕하진 않을 것이다. 오가는 길옆에 심겨진 나무였다. 자라나면서 사람의 이동을 방해해 언젠가는 잘려질 운명이었다.

녹색식물들이 햇살을 한 줌이라도 더 받기 위해 키를 키우는데 온힘을 쏟아내는 여름이다. 이 세상이 하나의 덩어리인 것이 분명하다면 굳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식물들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처참하지 않다. 풀을 뜯어먹는 동물도 가만히 보면 햇살을 닮았다.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도 햇살을 닮았다. 푸르름만이 햇살의 동무라고 할 수는 없다. 붉은 피가 솟구치는 동물의 세상도 태양의 얼굴을 비켜갈 수 없다. 저 하늘의 얼굴은 지상의 모든 것과 엇비슷한 모양새다. 우주 끝의 손길은 지구에 닿아 있고 사람의 손길은 우주 끝에 닿아 있다. 우주의 구석구석 그 어느 곳도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 유승도 (시인)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 물

K 샌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4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조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건강샌들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㉕ 휜 다리

아랫배 나오면 휜다리 의심해 봐야

일자로 곧고, 탄력 있는 다리를 갖는 것은 모든 여성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휘어지지 않고 예쁘고 반듯한 다리는 예쁜 얼굴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신체부위 중 하나입니다.

흔히 오다리라고 부르는 'O'자형의 휜 다리는 종아리의 모양이 항아리처럼 바깥으로 벌어진 모양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다리와 좌식생활을 습관화 하고 있기 때문에 휜 다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무릎을 꿇고 생활하는 일본인의 경우는 'X'자형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O'자형의 휜 다리는 무릎이 안쪽으로 비틀어져 생깁니다. 만약 휜 다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는 휜 다리는 무릎과 연결되는 엉덩이와 골반의 비틀림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또한 심한경우 발의 비틀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휜 다리를 갖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휜 다리를 갖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휜 다리는 골반의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아랫배를 볼록하게 만듭니다. 하복부가 유독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면 휜 다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휜 다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골반의 벌어짐은 다리 벌어짐을 동시에 일으켜 허벅지 안쪽 부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휜 다리는 골반의 벌어짐과 비틀림, 무릎의 비틀림 및 족부관절의 비틀림으로 인해 생기는 하지의 체형불균형입니다. 휜 다리 교정 시에는 단순한 다리교정 뿐만 아니라 하체의 모든 관절과 근육을 제자리로 풀어줄 수 있는 관리가 필수입니다.

대부분 휜 다리의 교정가능 여부는 각각의 연결 부분의 불균형한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연결 부분까지 동시에 교정 하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승무원을 채용 시 유독 다리와 체형의 균형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의 비행과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바르고 균형잡힌 체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항공사 승무원들의 채용 면접 시 휜 다리는 채용에 결격사유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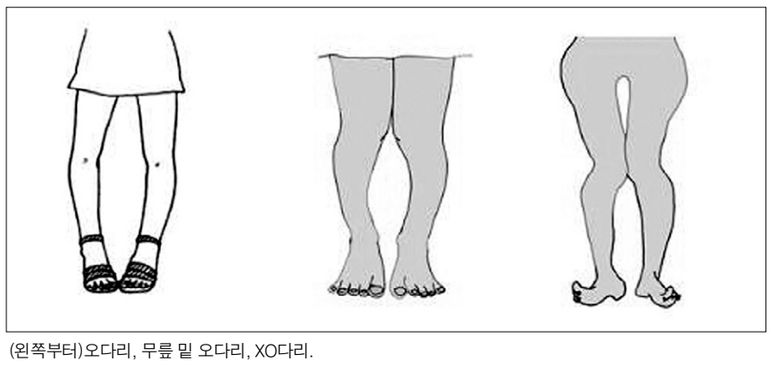
항공 승무원 지망생인 한 여성분이 휜 다리로 심각하게 고민해 오다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의 경우 평상시 무용으로 탄력 있고 매력있는 몸매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체형과 몸매는 살리되, 집중교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 5회씩 3개월간 지속적으로 휜 다리를 교정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3개월 뒤에는 어느 정도 무릎과 무릎 사이가 붙어 곧은 다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체형 역시 그 노력의 양이 가장 중요한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다리가 곧은 일자형 다리라 할지라도, 평소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휜 다리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많이 업히거나 하이힐을 자주 신기, 다리 꼬기, 출산 후 벌어진 골반 방치, 척추측만증 방치, 벌어진 골반과 척추가 바로 잡히지 못한 상태, 장시간 기울어져서 앉아있기, 장시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운전하기, 장시간 양반자세로 앉아있기, 꾸부정한 자세 등이 원인이 됩니다.

평소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다리도 곧게 될뿐더러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왼쪽부터)오다리, 무릎 밑 오다리, XO다리.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⑬ 중풍치료 보조요법

예방이 최고의 명약

중풍 치료법은 곧 예방법이다. 허혈,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원리와 방법이 그대로 중풍 치료에 적용된다. 전문적인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공인된 한방요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두충나무의 껍질을 잘게 썬 것을 두충(杜沖)이라고 한다. 두충을 15~20g 정도 물에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마시면 고혈압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두충에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 있어 지속적인 혈압강하작용이 있다. 두충은 불에 볶은 것이 볶지 않은 것보다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2배 정도 강하다. 두충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불에 볶는 경우도 있지만 소금이 혈행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볶는 것이 더 좋다. 두충은 또 다른 말로 사선(思仙)이라고 한다. 예부터 불로장생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일로 치던 약이다.

두충 외에도 익모초를 하루에 20~30g 정도 물에 달여 식후 3번 마시는 것도 좋다. 익모초의 데오누린은 혈관을 넓히고 항아드레나린 작용을해 혈압을 내리고 소변의 배설을 원활하게 한다. 특히 여름에 식욕이 떨어질 때 익모초의 쓴맛은 식욕을 촉진시킨 익모초는 과체중이나 몸에 열이 있는 사람에게 적극 권한다. 익모초는 달인 후 졸여서 환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다.

다시마 또한 보드랍게 가루를 내 한번에 3g정도씩 식후에 하루 3번 먹는 것도 좋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라미나린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하는 것을 막는다. 봄철의 진달래꽃 역시 혈압을 낮추는데 좋다. 진달래꽃도 그늘에 말린 것을 보드랍게 가루내 한번에 4~5g씩 하루 3번 먹으면 된다. 혈압강하제가 많지 않았던 시절 고혈압 환자들에게 자주 쓰던 치료법이다. 진달래꽃은 평지보다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것이 혈압을 내리는 성분인 안드로메토톡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지구엽초라고도 부르는 음양곽은 대표적인 강장제이다. 숫양이 많은 암컷들과 교미를 한 후 뜯어먹는다는 것에서 그 이름이 비롯됐다. 음양곽은 혈압이 오르면서 손발이 저리고 잘 쓰지 못하는 경우 많은 효과가 있다. 평소 몸이 찬 사람에게 특히 좋다.

천마는 뇌 혈액순환을 돕는 약으로 유명하다. 잘 빻아서 한번에 3~4g씩 하루에 3번 식후에 먹으면 뇌출혈후유증으로 몸 한쪽을 잘 쓰지 못하거나, 팔 또는 다리가 저리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에 효과가 있다. 신경을 많이 쓰는 이에게 좋은 약재이다.

솔잎 100g을 찧어 즙을 내 술이나 물 500ml에 넣어 하루 밤 어두운 곳에 놓아뒀다가 한번에 50ml씩 하루에 3번 식사 사이에 복용하고 땀을 약간 내게 하면 뇌출혈로 입과 눈이 비뚤어진 안면신경마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솔잎요법은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다. 혀가 굳어지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흰가루병에 걸려 굳어진 누에를 쓰기도 한다. 백강잠이라고 하는데 뇌출혈 후유증 치료에 주로 많이 쓰인다.

우황청심원은 한 번에 한 알씩 하루에 3알까지 쓸 수 있다. 가급적이면 통째로 삼키는 것보다는 따끈한 물에 풀어먹는 것이 좋다. 뇌출혈, 고혈압, 원인 불명의 열, 의식장애, 언어장애, 심한 두통, 신경증, 동맥경화증 등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명약이다.

이 중 필자가 중풍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곰열, 즉 웅담이다. 곰은 국제희귀동물 보호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동물이므로 곰의 쓸개를 직접 쓸 수는 없다. 곰의 쓸개즙을 추출해 말린 것을 곰열이라고 하는데 웅담과 성분이 똑 같다. 한번에 0.3g~0.5g까지 하루 두 번 쓸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 그러나 규칙적인 섭생과 운동 그리고 긴장완화야말로 중풍과 기타 혈관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전제가 되는 명약이다. 원래 가장 좋은 약은 약이 아닌 곳에 있는 법이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㉕ 영춘권1

봄날 물에 비친 자신을 보며 창안

최근 '엽문'이라는 영화는 사람들에게 영춘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는 이소룡의 스승이자 영춘권의 고수인 엽문 노사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춘권(詠春拳, Wing Chun)은 여성 무술가에 의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무술의 기원과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속설이 있으나, 대체로 청나라 시대에 엄영춘이라는 여자가 창시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속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째는 명말 청초 푸젠성(福建省) 남소림사는 쇠퇴하는 명나라 편에 가담해 수차례 청나라 군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저항하던 소림사 승려들은 결국 패배했고, 사찰은 불타고 많은 스님들이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그 중 홍가권의 창시자인 홍희관의 스승 지선 선사와 그의 동기인 오매 선사는 남쪽 지방의 어느 절에 체류하다 두부장수 엄이의 딸 엄영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영춘이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오매 선사가 이유를 묻자, 영춘은 마을의 불량배가 자신에게 그의 아내가 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



엽문 노사와 이소룡.

을 계기로 오매 선사는 영춘에게 권법을 가르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모든 기술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매 선사는 권법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간략한 기술만을 뽑아 영춘에게 전수했는데, 영춘은 그것으로 불량배를 물리쳤고, 불량배는 이후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 엄영춘은 양박주와 결혼해 그에게 다시 영춘권을 전수했다 고합니다.

두 번째는 청나라 말기 엄영춘이라는 권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권법을 배웠는데, 여성의 특성에 맞는 권법을 고려하던 중 우연히 학이 여우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영춘권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에서 전통 영춘권을 전수 받은 사부님의 이야기를 빌어 또 하나의 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동네 불량배는, 불량배가 아니고 소인배라는 것입니다. 권법은 몇 가지 특징만 몇 수 배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이야기에 등장하는 엄영춘은 당시 연약한 여자였고, 내공도 전혀 단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기간 내에 보통 상대도 아니고 불량배를 제압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눈을 찌르면 된다'라고 가르쳤을 때 전투력 상실과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예민하고 반응속도가 빨라 이 수법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설은 다소 믿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설 역시 지금 영춘(詠春)의 영은 '詠'으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影'것이 바른 것입니다. 영춘권이라는 이름은 사실 사람이 아닌 무술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춘권은 '봄날의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춘권의 기원은 소림 계통의 비구니 무술이며 봄날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창안해 낸 무술입니다. 그래서 영춘(影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춘권이 노사부가 전수해 준 무술이라면 애당초 영춘권이라는 무술이 존재했어야 함으로 말이 맞지 않으며, 소림계통의 비구니 절에서 창안하고 고안돼 전수된 무술이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불자정보 791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토굴안내
●위치 : 경북 성주
●대지 107평, 건물 4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
●거실 大, 방3 (화장실2, 남향 뒷 야산)
●차량마당진입, 건축비 1억 8천만원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11-531-5562

사찰안내
●위치: 송파, 천호 20분거리
●부지 133평
●건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외 30평 ●산신굴법당
●주변여건 : 4차선 대로선 앞
●뒤는 야산, 경관 예쁘고 마당 500평 이상 사용중
●가액: 12억
010-2862-5108

암자안내
●위치 : 부산시내. 대지 66평
●사용평수 100평 이상
●건물 1층 36평, 2층 법당 20평
●법당 뒤 대나무밭 채소밭
●주차가능
●가액: 3억 2천만원
주인직 010-3133-0018

토굴안내
●위치 :위치: 경북 봉화군
●평수 : 340평
●큰채 와가: 큰방1, 작은방2, 실내화장실1
●요사채: 주방1, 큰방2, 샤워실1, 창고1
●산신각,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마당 넓음
●전세 2500만원. 즉시 입주, 주인 직
010-5899-0679

포교원(급)안내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011-329-6606

사찰안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법당 목조 18평
●요사채 콘크리트 40평
●종각 약 1평
●대지 380평(기타부지 500평)
●가액: 4억
010-3112-3513

포교원(급)안내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위치 : A급 ●법당시설완비
●상담실1개, 방 1개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50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포교원안내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화서문 로터리 영봉여고 통로
●현재 법회 기도중
●4층 건물 중 2층, 실평수 40평
●시설: 삼불상, 후불탱화, 양쪽인등, 주방집기일절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약간 조절가능)
031)258-7584
019-371-0470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 소개료, 수수료가 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다구를 찾아서 ⑳ 소대형

천금으로도 가질 수 없는 차호

자사호(紫沙壺) 연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춘추전국시대 월(越)나라 대부 범려(范蠡)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이싱(宜兴, 의흥)에 은거해 (서시와 함께) 자사호를 만들었다. 그러자 이곳에 범씨들이 모여 살게 됐다. 지금도 이싱에서 활동하는 자사호 공예인 중에는 범씨 성을 가진 이들이 많고 '서시호(西施壺)' 라는 대표적인 자사호 형태가 있어 범려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싱과 관련 있는 인물로는 송나라 시인 소동파도 있다. 그는 말년을 보내기 위해 이싱에 땅을 사뒀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다했다. 시간이 흘러 명나라 때 어느 관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의 동파서원(東波書院) 자리에 소동파를 기리는 사당(祠堂)을 세웠다. 그 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학당이 됐다. 현재 60세가 넘는 이싱의 웬만한 자사공예인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1960년대 동파서원은 소학교로 개편됐고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남아 있다. 유물로 남아있는 다구(茶具) 중에서 자사호는 만든 사람과 그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대형(邵大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청나라 가경에서 도광 연간(嘉慶~道光, 1796~1850)에 활동했던 이싱 상안리(上岸里, 현재의 상원촌(上袁村)) 사람이다. 소대형은 어렸을 적부터 도예인(陶藝人)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양팽년(楊彭年)의 자사호가 정교했다면 소대형은 질박함이 묻어나면서도 기품 있고 따스하며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소대형이 만든 차호는 '천금으로도 가질 수 없는 차호' (一壺千金 幾不可得 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일화가 전한다.

어떤 지현(知縣-관직명)이 소대형의 차호가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호의 값을 많이 내겠다"며 소대형을 관아로 불렀다. 소대형은 도리어 조악한 차호를 만들어 보냈다. 크게 화가 난 지현은 소대형을 잡아다가 죽을 정도로 곤장을 쳤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소리하나 내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지현은 협박과 재물로 그를 회유했으나 끝내 차호를 얻어내지 못했다. 소대형은 차호의 진가를 모르면서 명성이나 돈으로만 소유하려는 사람에게는 팔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자사호는 생산한 요(窯)로 그 품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제작기법과 기술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드는 기법이 비밀에 부쳐진다. 그래서 자사호 제작법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로 전승(傳承)되기 때문에 다른 가문 출신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대대로 자사호 제작을 가업(家業)으로 삼고 있는 집안에는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묵힌 니료(泥料)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공예인보다 훨씬 유리했다.



팔괘속죽호(八卦束竹壺) 청 소대형(邵大亨), 중국 남경박물원(南京博物院) 소장, 높이 8.5cm 구경 9.6cm.

팔괘속죽호(八卦束竹壺)는 소대형의 대표작으로 용두일곤죽(龍頭一綑竹)이라고도 부른다. 자갈색으로 니료의 재질이 세밀하면서 윤택하다. 호의 문양은 용, 대나무, 팔괘(八卦)가 결합돼 있다. 호의 몸통은 64개의 대나무로, 호의 다리는 사방에 8개씩의 대나무로 조형돼 있고 몸통의 위와 아래가 일체형으로 자연스러운 조화가 일품이다. 호 뚜껑에는 복희(伏羲)씨의 팔괘방위도(八卦方位圖), 뚜껑 손잡이에는 태극도(太極圖), 호 부리와 손잡이는 용의 형상으로 장식돼 있다. 제작 솜씨가 정밀하고 문양의 의미가 함축적이면서도 깊어서 자사예술의 극품으로 칭송되고 있다. 현재 중국 남경박물원에 소장돼 있으며 후대 도예인들의 모방작(模倣作)이 많은 기형(器形)중 하나이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㊶ 봉정암



몇 해 전, 부산 불광사의 '10보 1배 순례단'을 따라 봉정암에 올랐었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도량이지만 쉽게 가지지 않은 도량이기도 하다. 얼떨결에 따라 나선 좋은 기회였다.

길이 시작됐다. 설악산 해발 1224m. 백담사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오세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에 본격적인 10보 1배를 시작했다. 봉정암까지는 4km. 걸어서만 가기에도 쉽지 않은 길이었다.

마지막 관문인 '깔딱고개.' 마음과 몸이 서로를 버리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 거칠게 숨을 토해내며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기어오르자 마침내 봉정암이 눈앞에 나타났다. 울었다. 모두는 해발 1224m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를 만나고 있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3도 불과상방억불토유국토명왈설법장

붓다는 사리불에게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말했다. 삽화는 그러한 내용을 묘사한 것이며, 전각을 중심으로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광명과 구름에 쌓여있는 여러 전각의 모습은 이층의 목탑 구조 형태이다.

전각 주변으로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구름의 모양을 도상화해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전각의 뒤편에 광배의 모습을 판화의 음 · 양각의 기법을 대비시켜 화염문으로 장식했다. 화려한 광배의 모습, 보리수와 구름을 융합시킨 모양을 화면에 아름답고 긴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세존께서는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극락이요,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호가 아미타이시라 지금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아, 저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는가?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도 없고 다만 즐거움만 누리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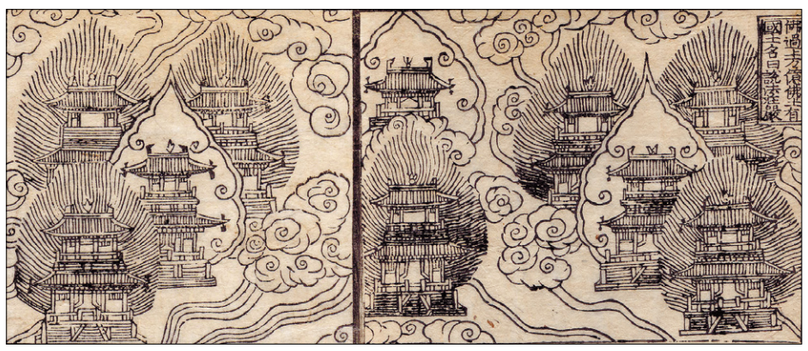
극락(極樂)은 '지극히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 뜻이며, 종교적이고 절대적인 깨달음의 있는 곳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극락을 중국에서는 안락(安樂) 혹은 안양(安養)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산스크리트어로 수카바티(Sukavati, 樂이 있는 곳)로 번역한다.

극락세계를 주재하시는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무량수불(無量壽佛),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부른다.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미타바(Amitabha), 즉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가진 것(無量光)과 아미타유스(Amitayus),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진 것(無量壽)이라는 두 종류의 원명의 음사(音寫)이다.

아미타불은 원래 법장(法藏)이라는 비구승이었는데, 48개의 큰 서원을 세우고 오랜 수행 끝에 서원을 모두 이룬 뒤 부처가 돼 극락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죽음에 이른 자가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반야용선을 보내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공덕을 실천하고 계신 부처님이시다.

우리는 이제 고해의 세계인 현실의 고통만 탓할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해도 즐겁고 괴로움이 끊어지고,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불자들이 돼야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 3도 불과상방억불토유국토명왈설법장엄 (佛過上方億佛土有國土名曰說法莊嚴).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자기를 리드하는 자기의 원동력에 진짜로 감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문 저희들을 항상 밝게 이끌어 주시는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십 년 전쯤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는데 스님의 이끄심을 따라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부디 법체 강건하십시오.

답 이 마음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신다면 여러분도 다 남을 위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혈을 해서 죽게 됐는데 병원엘 가니까 도무지 그쳐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관해라. 알았다."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멈췄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와서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그 신세를 못 갚겠다고 하더군요. 애 다섯을 두고 자기가 죽었더라면 어떡할 뻔 했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죠. "이것 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냐. 너의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야. 이 도릴 알아야 해. 못났든 잘났든 내가 없어도 아니 되고 상대방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을 말해서 상대성 원리라고 해. 그러나 우리의 참다운 참(眞)은 누가 해 줬다, 고맙다 이러기보다도 고마우면 자기 주인공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자기를 운전하는, 자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의 원동력을,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을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나를 만날 수도 없고 종교라는 것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만이 귀중한 겁니다. 나부터 귀중한 걸 알고 나부터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나부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아마 자기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벗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교는 참 알기가 어려워."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진리입니다.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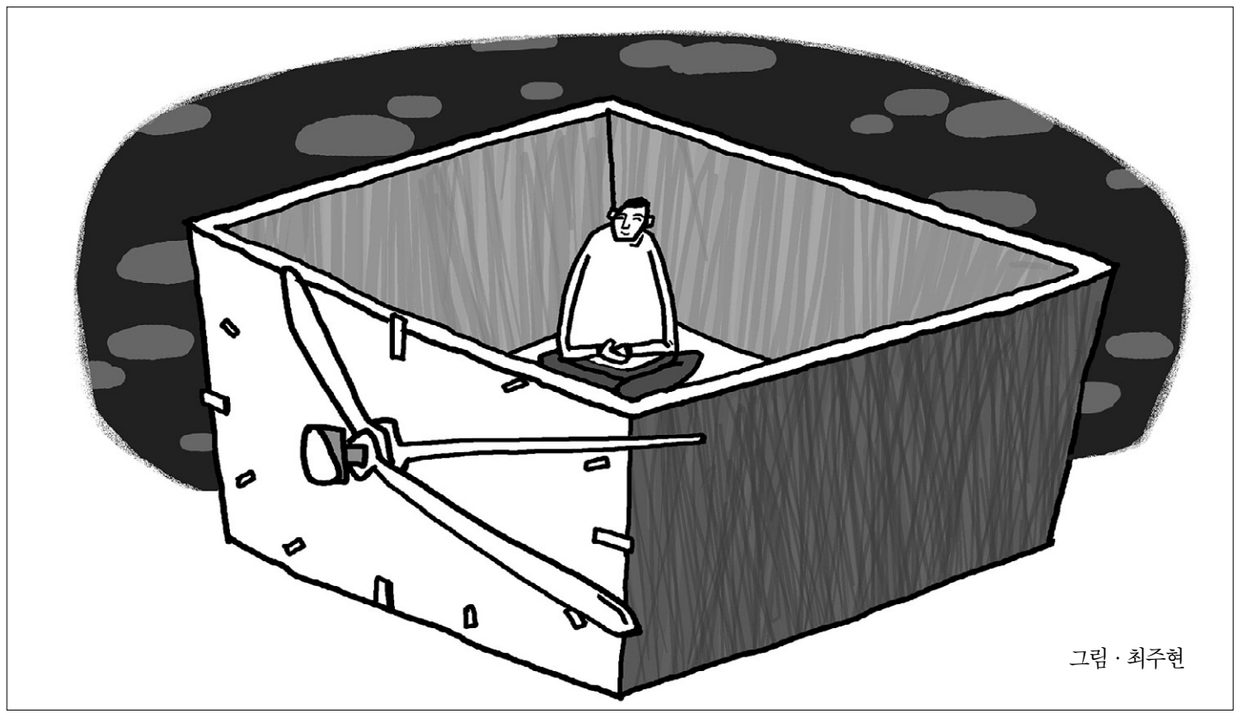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살고 나가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서서 다니고 또 앉아 있고,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본다면 그대로 참선입니다. 공기주머니가 만약에 버스라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복닥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 시간과 공간은 초월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물질도 돌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땐 정착돼 있는 걸로만 보이죠. 거꾸로 섰든 바로 섰든 우리는 바로 서 있는 것 같죠? 그러니 생각하면 개미의 살림이나 우리의 살림이나 수천수만 그 천차만별의 삶이나 뭐가 다릅니까? 좀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그래서 나를 똑똑히 보라 이랬습니다. 각자 말입니다. 각자 자기를 보라. 자기 몸뚱이 속에 얼마만큼 생명들과 모습들과 의식들이 들어 있나. 내가 밥 한 그릇을 먹고 물 한 컵을 먹을 때 내가 먹는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몸뚱이도 지구와 같고 우주와 같고 세계와 같은 겁니다, 몸뚱이 하나가.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거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누가 먹는 것입니까? 그 육신 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먹으며 우리는 심부름을 해 주는 바로 심부름꾼이다 이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심부름꾼이 따로 없습니다. 안에서도 그거를 줘야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에서도 그렇게 심부름을 해 주지 않는다면 안에서 작용을 못해 줍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따로 없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버지가 됐거나 어머니가 됐거나 한 가정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엄마!" 하면 엄마가 되시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하면 금방 자동적으로 그냥 아내가 되시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그렇죠. 그러나 그뿐인가요?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나중에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동시에 그냥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실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게 과학적이며 바로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천체의학적이기도 하고 천체과학,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내가 남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만이 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벗어나는 대장부라 일컬어지는 사람이라면 그쯤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너무 욕심부리는 걸까요?

문 지금 저는 애들하고 셋방살이를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꾸 일이 안 풀립니다. 별로 악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답 아니, 애들하고 살면서 집이 없는데 집 걱정을 안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세상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아세요. 그 주인의 시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래나, 돈을 갖지 말래나, 집을 갖지 말래나. 그 말만 하면 알아듣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악하게 살지 마라.' 이런 것은 악이 별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마는 자녀들하고도 악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공부를 잘못하거나 이러면 공부 공부 공부, 부모가 그냥 '공부 공부' 이러기만 한다면 자식들이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공부' 하지 마라. 공부에 진저리가 나서 들어오면 "어디서 배고프지 않게 뭘 먹었느냐. 피곤하지 않으냐. 배 고프면 뭘 좀 먹고, 피곤한데 쉬어라." 하고 거죽으로 말은 부드럽게 해 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쟤, 공부 좀 열심히 잘하게끔, 마음 잡아서 잘하게끔 당신밖에는 해결 못해.' 하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아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득이 있고 공덕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 말로다가 그냥 다르르르 해 버리고 냉랭하면 눈치 봤다가 그냥 또 달아나가요.

그러니 점점점점 속이 썩고 이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이 별난 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남한테 무조건 잘,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란 말입니다. 공을 칠 때 보면 공이 나한테 돌아오지 절대로 그 벽에 딱 파묻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걸리지 마시고,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인제는 내가 관리인만 되겠다. 그저 마음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고, 또 집 없다

☞26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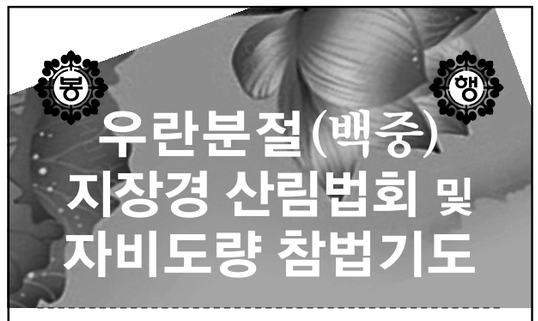
(사)한국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 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하고 있는
본종단은 문공부등록 141호 사단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수행정진,
화합하는 본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져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본 종단과 유사한 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총무원장 자 화
(사) 한국불교 조계종 자화정사

■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25번지
■ 연락처 : 010-3262-1005



우란분절(백중)
지장경 산림법회 및
자비도량 참법기도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과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영험도량에서 있을 천도재 · 산림법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법사 : 석 혜능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일시 : 불기 2554년 5월 25일 (양, 7월 6일) ~ 7월 15일 (양, 8월 24일)
◆ 조상, 태아령 영가 천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 - 오전 10시
◆ 지장경 산림법회 - 오후 2시

금강경으로 장엄한 법당,
시왕(명부)를 모신 지장기도 영험도량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1077-6번지
수 정 사 성천 합장
052)225-0068, 0177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만이 귀중한 것입니다

☞25면에서 계속

는 것을 내 주인공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때 생겨도 생기겠지.'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저절로 나와야지 그게 강제적으로 집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마음으로는 걱정이며 근심이며 생각이 나는 것들을 자꾸 돌려놓으시면서 이 육신은 부지런히 뛰어다니신다면 일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사는 게 정말 허무한 걸까요?

문 얼마 전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화장막에 가 보니 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지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는 게 정말 허무한 걸까요?

답 그것은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면 좋겠네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물건들이, 종이나 비품이 많이 나간다고 합시다. 헌 쇠든지 넝마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죠. 종이도 그렇고. 그것이 재생돼서 나가죠? 많은 게 재생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금도 반지가 됐다가 또 가서 팔려면 금방으로 가져갑니다, 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귀고리로도 나오고 팔찌로도 해서 나오고 반지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른 물건이 돼서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나오죠. 곧 다른 물건이 돼 가지고 다른 이름이 돼서 나올 동안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 수술하는 걸 보고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재생돼서 나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최고의 고등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인간이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대롭니다. 그 생명 자체의 근본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습니다. 의식 자체는 바로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 자체입니다. 불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성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즉 말하자면 우리가 기름 또는 운전수, 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이 옷이 허니까 아무데나 앉아도 그냥 괜찮거든요. 그게 늙었다고 해서 이 옷이 헐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데나 앉아도 그냥 뭐 흙 묻었다고 걱정할 거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옷 입는 거보다 헌 옷 입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아무리 노인네가 늙었어도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늙어지면 뭐 허무하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허무하다는 소리 더 잘해요. 노인네들은 외려 덜합니다. 어째 거꾸로 됐는지 그래요. 늙었다는 것이 이게 옷이 헐었다는 얘긴데 이왕 늙어 버렸으니 아무 데나 앉은들 누가 어떠랴 이러고 말입니다. 참, 그 마음이 지혜롭고 크면 이 우주 안에 그 마음이 꽉 찼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으리까.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밥 굶을 필요도 없고 용돈 안 줄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허무하다는 게 왜 허무한가 그거를 알아보려면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부터 믿어야 하고, 자기부터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런 도리를 모르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이런다면 안 됩니다. 지금 노인네들이 이 도리를 알면 정말 머리가 허옇게 새었다가도 검어질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고 '야 참, 이런 도리로구나.' 하고 그냥 기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당장 밥 먹을 때 죽 그릇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서 숟가락 몇 개를 꽂아 놓고 "잡수세요." 하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걸 먹으면서 싱글벙글할 거예요. 절대 허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나부터 귀중한 줄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아마 자기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벗어날 것입니다

왜 사회는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는지...

문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흑인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날이 갈수록 종교인은 늘어나는데 왜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거는 자기 마음을, 그 영원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자기 주처를,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있음으로써 주처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할 텐데 자기는 쑥 빼고 '주님' 하고 바깥으로 찾거든요, 기도하고. 또 뭐가 잘못되면 해 달라고 하고, 또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할 때도 내가 잘못해 놓고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 하면 그 죄가 감해질까요? 신부님이 대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이쪽에서 배가 부를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려 놓은 거 자기가 처리해야죠. 나도 한때에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벌여 놓고선 저 신부님한테 고하면 내 죄가 과연 사해질까?' 그게 의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 할 거 없이 모두 타의에서 구해요.

즉 말하자면 '주님' 하고 상대를 놓고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상대를 놓고 고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복이다라는 얘기죠. 자신으로서 자기 주처를 먼저 알아야 상대성의 원리를 알고 또 상대성의 마음도 둘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다. 생명은 평등한 거니까, 어느 거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도리를 알아서 내 이 마음의 대뇌로 통신이 된다면 모든 게, 즉 말하자면 시쳇말로 한다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조절을 하고 모든 거를 해 나가는데, 그걸 불가에서는 천백억화신이 나툰다고 하죠.

그러니까 입자에서 모두 나가서 응신으로서 모두 조절해 주고 이럭하고선 다시 그 입자가 원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도리를 하나도 모른다 이겁니다. 정신계는 계발을 못하고 물질계만 개발이 되니까 이 난동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야 난동이 안 나는데 정맥은 안 돌아가니까, 한쪽만 움죽거리니까 분란이 나죠.

결국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영이 수만 개가, 수십만 개가 채워진다면 그게 두드러질까요? 두드러지지 않죠? 꺼내도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넣고 꺼내듯이 두드러지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하고 광대무변하고 영묘한 도리죠.

본래 생명은 둘이 아니죠? 또 생명이 둘이 아닌 것을 볼 때 생명은 원천적인, 즉 말하자면 자기의 각자의 발전소가 있다고 보세요. 발전소가 하나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모두 감당하고 쓸까요? 천차만별로 에너지를 용도에 따라서 쓸 테죠. 그런 거와 같이 자기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에너지를 용도에 따라서 적게 쓰든지 많게 쓰든지 다 써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미움이 없고요. 왜?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무엇은 안 돼 봤겠어요? 무엇이든지 다 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랄 때도 있었고 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을 볼 때에, 또 미운 사람을 볼 때에, 원수진 사람을 볼 때에 '아, 나도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지.'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이 꺾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미움도 없고, 넘쳐서 고움도 없고 항상 평등하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처를 먼저 알아야겠죠?

상대방이 잘 안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문 저는 누가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꾸만 잘 안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튀어나오니 저도 괴롭습니다. 스님께서 그런 마음이 안 나게 좀 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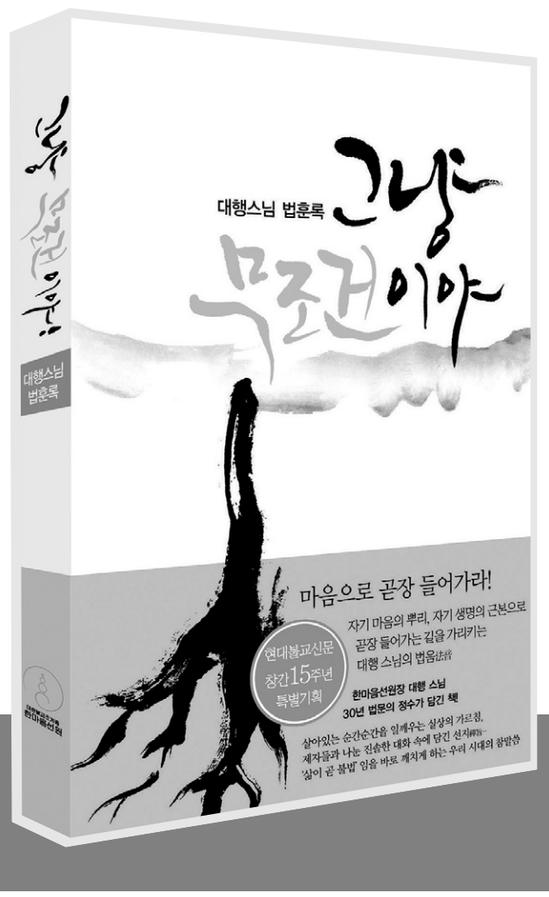
답 그거야 내가 해 줄 바가 못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 몇천 년 몇만 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생을 살 뿐인데 왜 남한테 그렇게 거북한 생각으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를 다 벗어나셔서 평온하게 사셔야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내, 내가 죽어서 태어날 때 또 그게 붙는단 말입니다. 아주 졸졸이 졸졸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바로 업식입니다. 부부의 정자 난자를 받아서 본인의 영혼이 들어가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데 그 영혼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업식도 마저 거기 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 하나 받는 데에 몸속에 있는 모든 업식들도 다 거기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몸속에다 짊어지고 나와요. 아주 이 몸뚱이 집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이 업식들도 그냥 같이 자라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한테 '차를 잘 끌고 다니게 하고, 위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넣어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를 끌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깐 차를 부숴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잘 끌고 다니는 것도 운전수요, 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넣어 가지고 다녀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바로 운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니다. 이 생명의 근본도 둘이 아니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 다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운전수에다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증오심을 버리시고요. 그런 것도 거기다 맡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사량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해 줬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말하자면 그냥 '나는 당신의 시자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의합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요, 댁의 마음과 아주 하나가 돼서 나중엔 사과를 해요. 그래서 더 절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근본, 자기 운전수를 믿고 거기다 맡기는 걸 공부해 보세요. 아셨죠?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 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불자 세상보기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 참여가 성패 가른다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분기점이 될 민선 5기 지방정부가 7월1일 출범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자치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해야 한다. 여전히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모순이 남아있고, 아직도 지방자치 운영주체들에 대한 믿음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나,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방자치임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 제도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천적인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주민대표인 지방의회가 소신을 제대로 펼칠 수 없고, 지역특성에 맞는 능력발휘가 어렵다고 해도,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일이야 말로 민선5기 지방정부의 최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늘 인식하고 시민의식이 깨어 있을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꽃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시민참여가 지방자치의 왜곡을 바로잡는 기둥이고,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점에서 결국 '참여'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이러한 시민참여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형태가 있다. 첫째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서 나타나는 '비참여' 형태인데, 이때는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거나 잘해야 주민욕구를 치료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명목적 참여형태인데, 이때는 정부가 정보제공이나 주민의 회유 또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라는 소극적 대응을 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하는 선진국은 세 번째 단계를 실천하고 있는데, 소위 '적극적 참여' 유형으로서, 이 경우는 정부와 시민간의 파트너십 또는 권력위임 나아가 '시민통제' 단계까지의 직접참여가 가능한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민선 5기를 지나면서 국민들의 참여 욕구 수준은 선진국 버금가게 높아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만 보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발의제, 참여예산제 등 거의 모든 참여제도화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잘해봤자 2단계 수준인 소극적 참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선5기는 우리의 참여수준이 고도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거버넌스유형 중에서도 보다 선진 모델인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또는 '네트워크거버넌스'를 구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방정부-지역경제-지역시민사회'에 의한 형식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3자가 공히 동등한 권리와 책무성을 동시에 갖는 네트워크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4년마다 투표라는 행위로 지방정부를 구성해 놓고는 빠지는 시민이 아니라, 선출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과 4년 임기 내내 '시민통제'(Civil Control)라는 책임성을 담보하는 살아 있는 지역주민의 존재가 중요하다. 지난 6·2지방선거도 어김없이 '선거'만 있었지 '지방'은 실종된, 즉 중앙정치권의 대리전으로 왜곡되는 바람에 분명한 한계는 있으나, 이제는 과거와 같은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명실공히 권리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지방정치의 주체로서의 시민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행위를 통한 선거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거센 자연파괴 행위에 대한 경고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 국민적인 경종을 울려주었듯이, 앞으로의 4년도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때 한국 지방자치에도 미래가 있게 된다. 지속적인 '시민통제'만이 방만한 지역권력을 제어할 수 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일상사와 직결된 지방자치는 결국 '시민참여'가 그 성패를 가른다.



사부대중 칼럼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불교계 NGO의 존재가치

1988년 초파일. 당시는 여의도광장에서 법요식을 마치고 조계사까지 연등행진을 했다. 행렬 중간에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한 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제등행렬은 엉망이 되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다반사였던때였지만, 신성한 제등행렬 탄압(?)을 온 몸으로 경험한 당시 조계사 주지스님의 태도가 그 뒤로 확 바뀌었다.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던 대불련을 적극 후원하고, 공양간에서 눈칫밥 먹지 않게 배려도 해주었다 한다. 주지스님은 젊은 대학생 불자들과 그들의 조직체 즉 불교의 사회적 역량(NGO)이 불교계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온 몸으로 절감하였던 것이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불교계의 형편은 당시보다 나아졌을까? 불교계의 사회역량은 늘어나고 이를 책임질 NGO라는 제3의 영역은 확장되었을까? 부끄럽게도 아니다.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짐에도 역량은 정체 혹은 외려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NGO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문제로 외화될 것이다.

요즘 불교테마공원 설립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는 대구 동화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독교계는 정부가 1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정교분리 위배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려면 동화사는 불교테마공원이 불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계는 현재 불교테마공원 반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기총까지 나서 재정지원 중단을 외치는 형편이니, 쉽사리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이 난감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대구시와 정부에 로비를 강화하여, 지원계획을 예정대로 집행되게 만들고, 사업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불교'적 색채를 줄이고, 공익적 측면을 보완한 후 기독교계를 만나 양해를 구하면 될까?

필자가 보기에, 이런 정도로 문제가 덮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전국적으로 서명운동까지 벌일 정도이고, 한기총까지 나서면서 명분없이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을 기독교의 시비 정도로 치부하지 않고, 침묵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바른 견해, 제3의 중립지대를 조직하여 대안을 만들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내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집행하는 힘이 바로 사회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동화사가 쌓아 온 축적물이 없다면, 하다못해 중립적인 시민·시민단체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정도의 관계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 해결은 난망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결국 정치인과 관료들에 매달리는 정도일텐데, 이런 방식이 불교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은 불문가지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사회와 불교의 접목을 고민하는 불교시민사회 역량의 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교를 기반으로 사회적 실천을 추구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아져야 하고, 그들의 일을 보는 안목, 집행력 등이 커져야 하며, 부족하나마 상호간에 촘촘히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역량이 없이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다수의 사찰과 스님들, 재가불자들은 불교와 세상이 소통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자기유지에만 급급할뿐, 사회적 실천이나 불교NGO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불교 내부 행사에조차 불교NGO는 찬밥대우를 받기 일쑤다.

이런 악순환의 과보로 고사된 불교사회 역량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느끼는 곳이 요즘 필자의 근무처인 조계사 앞마당,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분향소이다. 10여 개의 불교단체들이 분향소를 지키며 활동하느라 악전고투를 하면서, 역량의 빈곤과 소진 앞에서 참담함을 가눌 길 없다. '소신공양'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건만, 우리 불교계는 소신공양이 불교계와 한국사회에 던진 의미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어느 교계신문에서는 대담에 나설 희망자를 찾지 못해 결국 포기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불교의 사회역량을 키울 호기다. 그 분이 준 선물이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활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아픈 자화상이다.

사 설

이주민 120만명 시대

이주민이 120만 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09년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형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은 110만6884명, 불법체류자가 약 1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한다. 이주민 중 절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며, 결혼이민자는 12만여 명(이주민 중 11.4%), 유학생 7만여 명(7%)이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56.5%(62만4994명), 동남아 21.2%, 미국 5.4%, 일본 2.4%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다문화사회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다문화에 익숙치 않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낯선 땅에 온 이주민들의 정착지원과 그들의 자녀 교육문제는 시급한 사회적 현안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마하이주민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 이주민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주민 지원 활동을 펼치는 NGO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이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보고된 천주교의 혜화동성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혜화동 공동체'는 좋은 본보기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743개(2009년 5월)로 조사됐다.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개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함께 사는 이들에 대한 배려이다. 종교간의 경쟁 이전에 마땅히 불교가 해야 할 일이다.

지자체 주도하는 인각사 개발 안된다

잘 아다시피 군위 인각사는 일연 스님이 주석하며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곳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 단군신화를 실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원형(原型)을 일깨워주었다. 또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드높은 인간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의 인각사는 일연 스님의 뜻과 <삼국유사>에 담긴 정신을 보여주기에 초라하다. 한때 '일연의 달' 지정을 계기로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 연구가 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군위군이 추진하는 '삼국유사 테마파크' 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찰과 <삼국유사> 관련 문화콘텐츠 활성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개발논리에 전도돼 관광자원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면 큰 문제다. 지자체는 관광자원화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할 것이다. 부여 정림사에서 보았듯, 외형의 복원은 도량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려내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사찰을 박제화시킨다.

2006년 발굴조사에서 대형 목탑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그후 실시된 발굴조사의 보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지금 개발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 지금까지의 보고서와 이후 발굴 계획을 검토하면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조계종과 중앙정부,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까뭉개고 파헤치고 문제되면 되메우고…

사라져가는 전호리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려 봅시다. 마치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듯이 대기권에서 조금씩 한반도 상공으로 시야를 좁혀 들어갑니다. 푸른 바다 넘실대는 한반도 상공의 구름을 걷어내며 시야를 더 내려와 서울의 시가지를 봅니다. 꼭 손목시계의 속처럼 부품이 가득 차 있는 것 마냥 빼꼭하게 보이는 서울입니다. 그 숨 막히는 도시의 가운데를 가르는 한강이 보입니까? 그럼 이제 한강을 따라 양쪽의 제방에 쭈욱 뻗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초점을 맞춰 봅니다. 강의 양쪽으로 뻗은 도로의 한편은 올림픽대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에 꼬리를 물고 오고 가는 차량이 가득합니다.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차량의 흐름을 따라 김포 쪽으로 가다보니 성산대교를 거쳐 방화대교 그리고 행주대교에 이릅니다. 거기서 강가로 내려옵니다.

강변도로를 차로 오고가는 사람들은 그 도로만 보게 됩니다. 한눈을 팔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도로 너머에 무슨 마을이 있는지, 그 마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신경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를 위한 포장길을 만들다보니 정작 그걸 쓰는 사람은 그 물건에 넋이 홀립니다. 길 위에서 죽어가는 목숨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행주대교 바로 아래에서 한강이 내려가는 쪽으로 바라보면 너른 들판이 있습니다. 싱싱한 대파밭입니다. 생산량이 엄청 납니다. 큰물이 나면 이곳의 땅은 넘실대는 흙탕물에 잠기지만 곧 물이 빠지고 나면 강의 위쪽에서 쓸려온 뻘과 온갖 미생물로 땅은 더욱 기름져집니다. 땅이 기름지니 막 파종을 하고 나서 두어 달 지나면 벌써 파는 쑤욱 자라 출하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생산된 대파는 도시사람의 입맛을 돋우는데 일등공신이 됩니다.

여의도의 반쯤 되는 넓이의 대파밭을 지나면 더러 호박밭도 만납니다. 밭과 밭 사이의 농로를 지나 좁은 수로 위에 놓인 녹슨 철제다리를 지나 고개를 넘으면 거기 1970년대 한창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벌이던 무렵의 집들이 올망졸망 자리 잡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전호리입니다. 마을 전체가 예순 가구쯤이나 될까 싶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 언덕에 서면 여기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마흔해 전에 시간이 멈춘, 아니 꼭 무슨 영화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곳 같습니다. 낮은 구릉이 왕릉처럼 이어진 그 골마다 여남은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 선 구릉이 다섯이라 그런지 오룡곡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답니다. 아, 또 다른 이름으로 옥녀봉이 있는데 마을 산이 옥녀 같아 그런다지요. 글쎄요, 산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고 봉이라 하기에도 손등같이 낮은데 게다가 옥녀라니. 어쨌든 참 예쁜 마을입니다.



김포터미널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나라를 파헤쳐야 잘 산다고 믿는 정치인들 때문에 생명은 시난고난 스러진다. 눈물처럼 안개에 가려 세상이 뿌옇다.

시간이 멈춘 마을 전호리, 새마을운동 때보다 격동

가득 하던 대파밭 사라지고 대규모 항구 지어져

이 마을에서 해지는 쪽을 보면 멀리 들판에 삐죽 솟아오른 산 하나가 보입니다. 인천 부평의 계양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의 높다란 철탑이 붉은 노을에 물드는 모습을 시간이 멈춘 이 마을에서 보노라면 괜스레 '낭만적'이 됩니다. 전호리에서 계양산까지는 아무것도 걸릴게 없이 펼쳐진 들판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김포 끝, 강화도로 가기 전까지 이르는 들판을 김포평야라 했지요. 경기도 이천과 더불어 김포쌀이라 하여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답니다. 그 평야의 들머리입니다. 들판엔 마땅히 개천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굴포천이 들판을 지나와 이 전호리에서 한강으로 흘러듭니다. 그곳에 연고가 있는 내 후배 말에 따르면 그 개천엔 가물치가 흔했답니다. 개구리나 삼겹살을 꿴 낚시줄을 그놈이 있음직한 수초 속에 빠뜨리고는 살살 약 올리면 이놈이 알을 훔치러 온 적인 줄 알고는 덥석 문답니다. 곡괭이 자루만한 가물치를 그렇게 함지 가득 잡아서 집안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었다니 믿거나 말거나.

박정희 대통령은 '근면' '자조' '협동'을 내걸고 새마을운동을 벌였습니다. 마을을 개조하기 위해 정부가 양회(시멘트)를 대주고 농한기에 농민은 노동력을 대어 볏짚을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습니다. 싸리울타리는 양회조립식담이 되고 집과 집 사이를 흐르던 고랑은 관을 묻어 하수도가 되었습니다. 동네 서낭당도 미신이라고 헐었습니다. 전국이 난리북새통을 부려 슬레이트가 부족하자 양철 지붕도 등장했습니다. 좌우지간 정부가 호되게 몰아쳐 겉으로는 생활환경이 나아졌습니다. 전호리는 그때 거기서 그대로 지금까지 그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마을, 전호리, 그래서 화가나 사진가 또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이라고 입소문난 마을입니다. 아, 장어낚시하는 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마을이지요.

그런데 이 마을이 새마을운동 때보다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두어 해 전부터 외지사람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의 강변은 민간인출입통제지역으로 철책선이 쳐져 있고 재두루미 서식지이기도 하여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제한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1종전용주거지역이라 집을 지어도 바닥면적에 비해 반도 안 되는 땅에만 지어야 하며 높이도 3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구멍가게, 일용품점 따위의 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고 공장과 창고가 즐비하게 들어섰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교통수단으로는 오로지 하나뿐인 마을버스 종점엔 '생계 보장하라'는 붉은 펼침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기 그지없는 이곳에 웬 물류창고에다 뭐다 뭐다하는 회사가 들어오는 걸까요. 다 보상을 노린 수작이 아닐까요.

들판을 가로질러 오던 굴포천이 이 전호리를 무너지게 만든 주범입니다. 마른들에 물을 대주어 온갖 목숨을 기르던 개천이 외려 숱한 목숨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호리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개천을 '운하'로 만들고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마을도, 마을사람도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황해바다의 아름다운 섬 영종도에 들어선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라다 보이는 인천 서구 쪽에서 전호리까지 이어지는 '경인운하'는 진즉 있던 굴포천을 몇 배 넓혀 거대한 물길을 내고는 뭔 화물선이 다니게 한다는 공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바로 옆에서 거의 평행선으로 경인운하, 그 사람들은 '아라뱃길'이라던데, 그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현장은 참으로 사람의 사고가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연이니 뭐니 하는 건 이 사람들 사고엔 아예 없는 듯합니다. 까뭉개고 허물고 파헤치는 공사만 하면 됩니다. 먼 뒷날 문제가 심각해지면 또 되메우고 다듬는 공사를 하면 그만이라 이거지요.

생명의 빛깔, 파란 줄기로 그득했던 대파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항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의 한쪽은 인천터미널이고 전호리 쪽은 김포터미널입니다. 그 가까운 곳엔 86만9000㎡ 규모의 물류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저기 저곳에 정말 그 푸르던 들판이 있었단 말인가. 백 마디 말로 어찌 그 현장을 설명하겠습니까. 예전 그곳을 알던 이들은 꼭 다시 거길 가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이 나라를 잘살게 한다는 자들이 하는 짓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물론 장난치는 자들 때문에 마을도 무너지고 사람도 갈라서니 지금이라도 이 삽질을 멈추게 해야 하겠습니다.

잠깐,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된 이도 이 운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멀쩡한 양화대교를 헐고 여객선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괴물은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서동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 동안 망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천도해야 망자를 해탈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중음의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 변형 | 144쪽 | 값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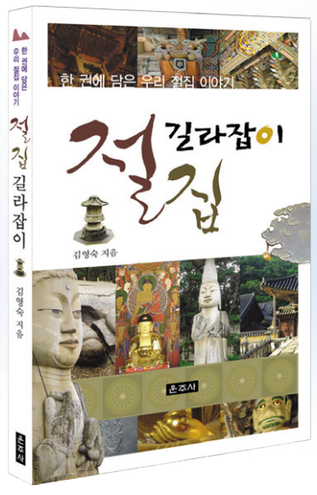
한 권에 담은 우리 절집 이야기!

절집 길라잡이

일주문부터 산신각까지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불상, 그림, 조각 등에 대해 꼼꼼하게 구석구석 설명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절집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그런 모양으로, 왜 그런 구도로, 왜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 책은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준다.

김영숙 저 | 신국판 변형 | 컬러 | 224쪽 |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